



4

198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4호

(루게 426)



## ◆◆◆◆◆◆◆◆◆◆ 차 례 ◆◆◆◆◆◆◆◆◆◆

4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 .....	4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제성있는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자 .....	6
탄생 .....	10
조선의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께 영광을! .....	23
<b>김일성</b> , 그이는 우리의 시대의 위대한 태양 .....	23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	24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대백과전서 .....	25
해와 별 빛나라 나의 평양 .....	32
우리 수령님 .....	33
언제나 함께 계시며 .....	33
설맞이의 밤 .....	34
보통날에 .....	36
세월은 흘러도 .....	37
크나큰 품 .....	38

맺음시 .....	39
언제나 한마음 .....	40
백두산의 눈석이 .....	62
나는 이 땅의 정의로운 수호자.....	63
우리소리 .....	64
《 <b>김일성</b> 장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74
단호한 징벌을 안기리라!.....	76
향도와 해발따라 통일의 한길 가네 .....	77
충성으로 불타는 심장들 .....	78

## 4 월의 아침에 드리는 축원의 노래

화창한 4 월의 봄빛이  
강산에 넘쳐  
천만떨기 피어나는 꽃들은  
만리에 향기를 심어나르고

4 월의 봄날에  
삶의 뿌리를 내려  
행복의 웃음어린 인민의 마음속엔  
뜨거운 축원의 꽃물결이 설레여라

해빛넘친 락원의 강산에서  
마음의 꽃을 엮어  
감사의 정을 엮어  
이 아침 인민이 드리는 노래는  
만수축원의 노래

우러러 목메이고  
우러러 고마움에 젖는 마음  
어버이품속에서  
누려온 그 모든 행복을  
인민은 이 노래에 담아  
삼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다니

수령님 모시여  
웃음이 만발한 수억만 창문들에  
흐릴줄 모르는 조선의 하늘이 비끼고  
수령님 계시여  
봄날의 대지를 걸어가듯  
창창한 앞날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

영광의 길도  
시련의 길도  
수령님 따라 헤치며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간절한 축원의 마음  
이 노래에 담았더나

인민의 이 노래  
조선의 봄이 시작된  
만경대 4 월의 꽃송이에 어려

첫 망울을 터쳤고  
새별이 솟던  
감감한 하늘에  
동트는 러명속에 노을로 비껴갔더라

**김일성** 동지!  
그이는 한별  
그이는 태양  
그이를 우러르는 청년전위들의 가슴에  
후더운 눈물과 함께  
혁명의 첫 송가로 울려퍼진 이 노래

그것이였더라  
혈전수십만리  
혁명의 난국을 진두에서 헤치시는  
장군님을 우러러  
그이께 올릴 마지막 한줌의 강냉이를  
주전자에 끓이는 친위전사의 가슴에  
눈물로 맺히던 축원의 한마음

수령님은 조국이고  
수령님은 우리 운명의 전부였기에  
수령님 계시면  
아무리 간고한 시련도  
비구름처럼 가셔지고  
푸른하늘에 태양이 빛나라는  
이 철석의 믿음이 있어

월미도 방위자들이  
꽃나이 청춘을 바쳐  
영생을 웨치며 간것도  
락원의 10 명 당원들이  
용선로의 쇠물로 끓인것도  
오로지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전사의 드림없는 그 신념이 아니었던가

아, 그 어느 년대를 더듬어도  
오직 인민을 구원하시려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헤쳐넘으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떠올라

뜨거움에 젖는 인민의 마음

그 어느 력사의 장을 펼쳐도  
오로지 조선을 빛내이시려  
혁명의 폭풍을 맞받아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한가슴에 안겨와  
더더욱 간절한 축원에 불타거니

화강석 계단을 밟으며  
만수대언덕을 조용히 오르는  
저 숨얼한 가슴들에도  
주체의 거창한 탑을 우러러  
인류 새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의 벗들의 마음속에도  
다함없는 축원의 노래가 흘러라

가장 간고한 날에  
수령님 모시여 불타던 충성  
이 행복한 날에  
넘치는 꽃물결에 어려  
수령님 모시는 한길에  
영원히 질줄 모르는 꽃바다로

끝없이 설레이고 설레이나니

아, 혁명의 첫 기슭에서 시작되어  
이 봄날까지 차넘치는 이 노래  
이 땅 이 하늘밑에서  
먼 대륙의 한끝까지  
가득차흐르는 축원의 한마음

천년을 이어  
만년을 이어  
세기의 한끝까지 울려가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혁명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이 아침 드리는  
만수축원의 노래  
주체위업이 만발하는  
자주의 봄  
인류의 봄언덕에 영원하리라!

##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제성있는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자

지금 우리 문학앞에는 매우 중대한 과업이 나 서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 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우리의 새로운 혁명적 현실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더욱 철 저히 무장시키며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 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혁 명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영화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은 사람 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커 다란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의 하나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우리 의 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이며 작가는 이 전초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들이다. 작 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라는 강력 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다.

우리 당중앙은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강력 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가장 올바른 문예방침을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고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주체형 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 에로 힘있게 고무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최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예술영화 《군 당책임비서》,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 《그 날의 맹세》등이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창작된것은 특기할 사변이다.

이 작품들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 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자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전사의 혁명적신념과 의리, 당정책에 대한 절대

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 명정신 그리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 하며 가정을 혁명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시 기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되어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들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혁명 적수령관을 확립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처럼 사회정치적문제성을 담고있으며 교양적 의의가 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은 당사상교양 사업의 귀중한 밑천으로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투철하게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토하여 근로 자들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 을 교양사업을 한계단 발전시킬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교양 사업에 있어서 류레가 없는 전혀 새로운 독창적 인 방침이며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이 지닌 크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며 또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 에 대한 당적신임의 뚜렷한 표시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실요투쟁을 통하여 사상교양사 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야말 로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수준에 맞게 기성관 념과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당사업을 참신하고 쾌기있게 전개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사상사업에 서 혁명적개선의 계기를 열어놓는 참으로 정당하 고 현명한 조치이다.

문학예술을 통하여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 리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어떤 애로와 난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굴의 투사로 키우며 그 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 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대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위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게 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에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예술영화 《군당 책임비서》,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 《그 날의 맹세》를 통하여 전당적인 사상교양사업을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벌리도록 한것은 문학예술이 우리당의 사상과 의도를 투철히 구현한 당의 문학으로 될 때 당사상교양사업의 강력한 수단으로,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에서 밝혀준바와 같이 예술은 정치에 복무하여야 하며 정치의 산물이다. 또한 예술은 장치를 정서적으로 안받침하여주는 위력한 수단이며 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예술이 정치에 복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 정책을 제때에 예리하게 반영하고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를 반영한 작품창작에 형상의 여러 수단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최근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의 특출한 성과는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얼마나 진실하고 예리하게 반영하고 예술적으로 얼마나 심오하게 형상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정치사상적공격과 예술적가치가 결정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1,2 부), 《월미도》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와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문학작품창작에 일반화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적문제성이 예리하게 반영된 작품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된 당의 문학을 건설한다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당중앙이 의도하는 문제를 문학작품에 투철히 반영하여 우리 문학을 당정책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수령관확립과 주체의 인생관수립에 힘있게 복무하는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때에 똑바로 파악하고 문제성있는 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는것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정치적문제성이 예리하게 반영된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신념화, 신조화하여야 당이 바라는 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옳바로 형상할수 있다.

창작적대담성은 주관적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사상을 신념으로 체득한

작가에게서만이 발양될수 있는것이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완벽하게 창조할수 있는것도 작가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대담하게 창작하였기때문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오직 자기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결한 품모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전투장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에서 수령의 전사는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숨쉬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들이야말로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참다운 전형들이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을 완전무결하게 창조하고 우리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대주의, 패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비판할수 있는것도, 예술영화 《월미도》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사상적핵으로 하여 그것을 깊이있게 형상하면서 오늘 우리 문학에서 혁명적비극의 필요성을 힘있게 확인할수 있는것도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대담하게 창작하였기때문이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연구체득할 때만이 창작에서 확신을 가질수 있으며 창작적대담성을 발휘할수 있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문제성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은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미학적목적을 달성한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문학예술작품들은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주체형의 인간들의 혁명투쟁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인간문제들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형상적으로 풀어내고있다.

만일 우리의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창작에 반영함에 있어서 현실을 도해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직선적으로 로출시켜 생경한 대사나 지문으로 처리하고 그 어떤 인간문제도 제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사상미학적의의도 가질수 없다.

작가는 당정책적견지에서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창조적교훈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형상을 인간학적높이에 올려세울 때 아무리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부정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감으로 사람들의 감성에 작용하며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것이다.

창작에서 작가의 대담성은 작품에서 예술적갈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나가는가 하는데서 많이 나타난다.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는 이 문제에서도 많은 창작적시사를 주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되어야 할 우리 간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적인 면들을 예리하게 드러내놓고 비판하고있지만 그 비판이 매우 진실하면서도 어머니당과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뜨거운 신뢰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작품에 긍정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 그 중심에 선 주인공의 성격을 인간학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주도적인 강렬한 생활긍정의 기백과 예리한 비판성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동시에 그 비판성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저해를 주는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예리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결코 우리의 전진을 장애하는 낡은 사상들에 대하여 두리몽실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보고 형상하여야 하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의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부르는 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대담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탐구를 깊이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 문제이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깊이있게 품으로써 혁명적비극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수 있는것은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 혁명적랑만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으로부터 나서는 특별히 중요한 형상적요구로 된다.

혁명적랑만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 미래에 대한 강렬한 사상정신적지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의 하나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을 위하여 한몸 다바치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행복으로 여기는것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 혁명적랑만성을 더욱 풍부

히 체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백전백승하지만 그 길에서는 희생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설득력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안팎의 정세가 더욱 긴장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혁명적락관주의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죽음에 대한 철학을 옳바로 리해하고 그것을 형상에 옳게 반영하는 문제가 창작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우리의 일부 발표 못된 작품들은 주인공들의 영웅적투쟁을 그리면서도 그들의 값높은 죽음에 대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하는 부족점들을 가지고있다.

작품생리로 보아 주인공의 영웅적희생은 보여 주어야 하겠으나 그것을 피하고 작품의 마감에 가서 경사로운 종말이나 행복한 대단원을 펼쳐보이는 경향이 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의 종결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에 기초한 작가의 정당한 평가와 예술적해명에 의해서 작품속에 체현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혁명적인생관에 기초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문제를 깊이 있는 형상으로 밝혀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백전백승하지만 그 길에는 희생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할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된 특출한 성과작들이 우리에게 창작적교훈을 안겨주는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애정률리문제들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미발표작품들에서는 우리 세대의 새로운 애정률리문제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창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서 오는것이다.

작가란 생활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시대정신의 구현자이며 당과 혁명앞에 신성한 의무를 당사상전신의 초병이다.

때문에 작품은 작가가 처하고있는 시대의 가장 절실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적로력의 결실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언제나 진실하고 대담하고 아름답다와야 한다.

이렇게 되지 못할 때 작품에서는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문제가 나올수 없으며 그것이 생동한 협상의 옷을 입고 시대의 높이에서 천명될수 없



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높이 받들고 시대와 인간을 대담하게 형상함에 있어서 시문학의 전투성과 기동성을 높이는 문제가 또한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시문학은 시대정신의 기수이며 날개이다.

우리의 주체적시문학을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시형상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민감하고 기동성있게 반영하는것과 함께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서정시들에서 시인의 얼굴이 작품에 뚜렷하여야 하며 그 목소리가 개성적으로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시인들은 동일한 주제, 흡사한 상을 가지고도 어디까지나 자기류로 생활의 진실을 노래하여야 한다.

작품에서 동일한 주제가 시인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개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것처럼 작품에서의 근사한, 소재도 역시 개성적인 시적체계를 흐리게 하거나 무색하게 하지 않는다.

시작품의 사상성이란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민감하고 깊이있게 노래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장엄한 현실의 기저에 뜨겁게 굽어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웅심깊게 노래하여 서정시에 시대정신이 힘차게 맥박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동문학작품들이 주체시대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성인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면서 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아동문학일수록 아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더 깊은 탐구가 요구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아동문학에 동심세계를 반영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예술에서 정치성은 형상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는것을 간곡하게 강조하였다.

아동문학작가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아동문학의 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하여 동심이 없이 성인화되었거나 지내 얌전한 주인공들이 아동문학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어린 주인공들의 생동한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내어 아동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정치적문제성이 예리하게 반영된 문학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높은 창작적 자질과 기량을 가져야 한다.

문학은 현실을 형상적으로 재현하여야 하는것만큼 높은 창작적기량이 없이는 아무리 철학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포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의 의도에 맞게 옳바로 형상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줄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의도하는 문제를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 현실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지향과 념원,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수행되고있는 우리의 벽찬 현실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작가들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질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우리의 현실속에 몸을 폭 잠그고 시대와 인간을 깊이 체험하여야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월미도》의 주인공들과 같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을 탐구할수 있으며 자신이 또한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당의 작가로서의 사상정신적 및 창작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있다.

오늘처럼 우리 작가들이 당의 작가로서의 높은 영예감과 긍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깊이 느낀 때는 일찌기 없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한 문제성있는 작품을 대담하게 창작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과 주체문학예술의 발전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 나가자!

## 탄생

김수경

## 1

농업부문 지도일군인 리규성앞으로 랑림에서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곳의 한 현장기사가 정당 스무톤이나 나는 기름작물을 만들어냈다는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었다. 알곡작물을 스무톤 냈다고 해도 그것은 농산사업에서의 일대 비약을 의미하는것인데 보통 수확고가 훨씬 적게 나기마련인 기름작물을 스무톤이나 냈다는것이다.

리규성은 현지에서 보내온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며칠후 돌아온 그의 말에 의하면 지방경영기관에서 보내온 소식이 정확할뿐아니라 그곳에서는 벌써 두해째 정상적인 재배를 하고있다는것이다. 다만 걱정되는것이 급한 일인데 그것도 이미 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있다는것이었다. 리규성은 하마트면 책상을 내리치며 환성을 지를번했다. 설사 수확기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다고 해도 달린 열매야 따먹지 못하겠는가! 사실 과학원에서는 벌써 10여년전부터 땅개암수확기를 연구해오고있었다.

이제 남은것은 완성단계에 이른 수확기를 현장에서 시험하는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학도사에서 머지 않은 상강에 수확기를 시험할수 있는 땅개암밭까지 있다지 않은가! 말하자면 먹는기름문제는 그 한끝을 잡아당기면 곧 끌려올수 있는 완전히 성숙된 문제로 눈앞에 다가와있었던것이다.

리규성은 이 모든것을 알게 되는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동안 녀려해오신 먹는기름문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는 크나큰 기쁨으로 가슴이 들먹거렸다.

문득 평양에서 떠나오기전에 랑림에 갔던 일군들과의 협의회내용을 그이께 전화로 보고드리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말씀이며 웃음이 귀전에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두 기름을 마음껏 먹게 되었다는 말이구만! 이거말루 큰 경사요!》

그이께서는 호탕한 웃음으로 수확기의 진동판을 들었다놓으시며 닳새후에 땅개암을 생산에 도입할 구체적인 대책안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었던것이다.

리규성은 국가적인 의의를 갖는 큰일을 앞두었을 때 항용 느끼는 그 흥벽을 두드리는 흥겨운

흥분을 느끼며 땅개암밭이 있는 상강으로 차를 몰았다.

리규성은 상강마을 당비서와 마주앉자 곧 자기가 찾아온 뜻을 말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들으면 기뻐할줄 알았던 비서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며 당황한 나머지 눈길을 들곳을 몰라하는것이었다.

《왜 그러오? 무슨 애로라도 있소?》

말보다도 거칠어진 목소리에 더 큰 뜻을 담으며 이야기를 하는데도 당비서는 종내 눈길을 바로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갈수록 더 무거운 시름이 매달릴뿐이다.

《랑림에서 스무톤이 났다는것이 사실인가요?》

이윽고 당비서가 더듬거리며 묻는 말이었다.

《사실이요.》

《거기서두 재배를 했다니까 종자를 만들어낸지 오래됐구만요?》

《한 서너해되는것 같소.》

《우리 마을에 내려와 있는 연구사는 다섯해전에 육종을 했지요.》

손님용으로 내놓았던 담배를 끄당겨 한대 피워물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라기보다 절통한 오열을 참는 사람의 긴 한숨소리와도 같았다.

반백이 된 별스레 어꾸수수하게 일어섰던 상고머리도 내려앉던 시름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워버렸다.

《난 비서동무의 말을 리해할수 없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렇게도 녀려하시던 기름문제가 풀리게 됐는데 시험밭쯤 내놓는게 무엇이 그렇게 큰것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그러오. 비서동무도 마을에 땅개암을 연구하는 연구사가 있다니 이작물이 어떤 작물이라는것을 알지 않겠소?》

땅개암은 우리 인민에게 더 많은 기름을 먹이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웅심깊고 세심한 사랑이 깃든 은혜로운 작물이었다. 10 여년전에 이 야생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이께서는 벌써 이 작물의 전망을 확고히 내다보시고 몸소 정원에서 우리 나라에서 먹는기름문제를 해결해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과학원에서 10 여년전부터 수확기를 연구해온것도 그이께서 오늘을 예견하시어 거듭 교시를 주시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산골마을 초급일군에 지나지 않는 리당 비서는 많은 뜻이 담긴 리규성의 말을 듣고도 자신을 뉘우치거나 주눅이 드는 빛이 없었다. 아직 50 대 첫머리에 있는 장년이긴 해도 최근년간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해온 리규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오.》

이렇게 되어 리규성은 뜻하지 않게 한 녀학자의 시련에 찬 연구생활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송현이가 처음으로 이 외진 산간마을에 찾아왔을 때는 스물다섯살, 그런데 올해 그의 나이는 서른아홉, 그러니 열다섯해를 땅개암을 위해 바친 셈이었다. 녀성으로서의 거의 반생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기간에 그가 극복해야 했던 곤란은 실로 말로는 다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며 마침내 10 년만에, 그러니 다섯해전 땅개암을 18 톤이 나는 다수확품종으로 육종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녀학자는 자기의 필생의 목표가 서른네살에 성취되었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 기쁨은 때 이른 것이었다. 경영기관에서 파악이 없는 작물이라고 하여 10 년을 바쳐 육종해낸 그의 땅개암을 생산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랑림에서 송현이의 것보다 두톤이 더 많이 나는 땅개암이 나와 전국적인 도입을 하게 됐으니 그의 반생은 (아니 한생이라고 할수 있었다) 피기도전에 비참하게도 허공중에서 부서진 셈이었다…

당비서의 말을 들은 리규성은 처음엔 놀래고 다음엔 심각해졌다. 열다섯해를 바쳐서 가꾸어놓은 땅개암밭에 수확기를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인 듯싶었다. 그는 비서가 암시하는대로 수확기의 시험장을 랑림에 옮길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제때에 자신을 다잡았다. 녀학자에게 수확기가 밭을 짓이기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제 와서 그의 처지가 달라질 것은 조금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공연히 나라의 재정을 랑비하고 기계공학자들을 먼곳에 끌고 가서 고달프게만 하는 일이었다.

《연구사동무는 육종을 끝낼 때 학위논문도 같이 끝냈지요. 그렇지만 인민들에게 과학의 덕을 입히기전에 학위를 받는 것은 량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오늘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문만이라도 살릴수 없을가요?》

《과학계는 내 권한밖에 있는 분야지만 노력을 해보겠소.》

이것은 리규성이 진심으로 녀학자를 동정해서 한 말이었다.

《비서동무의 말을 들으니 녀학자가 성실한 노력을 해온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겠소. 비서동무도 랑림것보다 2 톤이 적은 18 톤을 낸다

고 하지 않았소. 2 톤이 어디요? 과학계에선 종종 이러한 일이 있소. 중요한 대상을 놓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지만 명성을 얻는 사람은 한두명 뿐이거든… 마음을 크게 먹구 비서동무가 그 동무를 만나서 알아듣도록 잘 말을 해주오. 땅개암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확기를 꼭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소.》

《송현이동무를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당비서는 무거운 눈길을 겨우 들고 한마디 부탁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만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 그러오. 비서동무의 도움을 받으면서 10 여년이나 일을 해온 동무니까 동무의 말을 더 잘 듣기도 하겠거니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마음아픈 이야기를 해서 좋을게 뭐요.》

리규성은 녀과학자를 만나면 필경 절망적인 호소를 듣게 될것만 같았다. 뜻깊고도 거창한 사업을 앞둔 이러한 때 자질구레한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싶지는 않았다.

《꼭 그렇게 해주오. 2~3 일내에 내 한번 또 와서 그 동무를 만나겠소. 재배경험을 들을걸 꼭 오겠소.》

리규성은 이것으로 녀학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것으로 치부하고 담배를 한대 피나물었다. 앞으로 상강마을에 올 기계공학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에 말머리를 돌렸다.

## 2

이틀후 리규성은 다시 상강마을에 오고있었다.

그의 마음은 어수선했다. 리규성은 그것이 송현이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녀학자를 희생할수밖에 없게 된 그 사실이 그의 가슴 한귀에 매달려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다. 이틀전에 그를 만나지 않고 상강마을을 떠난 것도 마음에 걸렸다.

지도적위치에서 사업하는 일군의 품성에도 어긋나거니와 오늘이라고 녀학자의 절망적인 울음을 듣지 않을것인가. 당비서의 말을 들은 녀학자는 이틀동안에 자신이 받아안게 된 불행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이었다. 혹시 상강마을의 당비서가 녀학자를 설복했으면 울음까지는 듣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바랄수 없는 일이었다. 이틀전에 리규성을 앞에 앉혀놓고 불손하다고 할 정도의 태도를 보인 비서가 그런 노력을 했을것 같지 않았다.

리규성은 이날도 리당에 먼저 들렀다. 비서는 이틀전에 리규성을 바래줄 때의 그 덩덤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를 보면 송현이의 기막힌 불행을 생각하게 되어 도무지 반가운 빛을 지을수 없는 모양이다.

《송현이동무의 기본상태는 어땠소?》

도의상 마지못해 물은 말이 아니었다. 지금의 리규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일 마음쓰는 문제였다.

《본인이야 침착해지려구 애두 쓰구 또 사실 그렇게 행동두 하지만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밭고랑을 훑어나가면서 기계공학자들한테 땅개암의 생태를 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규성이 부탁하고 떠난대로 녀학자에게 알아들을만큼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얼마쯤 벗어놓은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비서동무의 설복이 먹어들어간 모양이구만. 어떻게겠소. 일을 하느라면 때로는 대담하게 디디고 넘어가야 할 감정도 있지 않소. 내 시간이 나는대로 생산에 도입하지 않은 군기관일군들을 비판하겠소.》

리규성은 공연히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를 뒤에 달고 기계공학자들이 있으리라는 발으로 나갔다.

밭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이 부실만큼 색깔이 선명한 땅개암잎들만이 저를 가꾸어준 살뜰한 주인의 몸우에 내려앉은 엄혹한 시련에는 아랑곳없이 가을의 찬연한 해살과 어울려 놀며 몸을 뒤채기고있었다. 길옆의 작업반전전실에서 서른살안팎의 농촌아낙네와 작업반장인듯한 중년사나이가 뛰어나왔다. 아낙네는 녀학자와 10 여년동안 운명을 같이해온 조수라고 했다. 리규성은 녀학자를 찾아오라는 당비서의 말을 귀결에 들은 순간 그가 가리키는 저기 강가에 오도카니 앉아있는 한녀성의 뒤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는 마치 잘못 옮겨놓은 돌덩어리처럼 시험받이 끝난 누런 모래불우에 조용히 앉아 강건너 그 어느 먼곳을 바라보고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리규성이 보게 될가봐 두려워 한 절망에 빠진 녀학자의 외로운 모습이었다. 도간이 좀 있었으나 원래의 검은 빛이 날아버린 뿌연 머리, 그역시 비바람과 해별이, 한마디로 말해 세월이 원래의 옷색깔을 날려버린 어깨, 동그란 등허리를 다감하고 사려깊은 가을의 해살이 부드럽게 내리비치고있었다.

《기계공학자들은 숙소에서 협의를 한답니다.》

리규성은 당비서의 이러한 말을 듣고 얼굴을 돌리었다. 송현이에게 조수가 달려가고있었다. 녀학자는 조수의 전갈을 받고 모래길에 발자욱을 꼭꼭 찍으며 걸어왔다. 남에게 혹시 구차스러운 꼴을 보일까봐 그러는듯 한두번 손가락끝으로 눈굽을 꼭꼭 찍어낸다.

이렇게 되어 리규성은 어수선한 마음속에서 그려오던 농촌아낙네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몸매 작은 송현이의 작은손을 쥐었다. 녀학자의 얼굴에

는 이들사이 감당하기 어려운 번뇌에 시달려서인지 고달픈 빛이 탁지탁지 앉아있었다.

리당비서가 이들전에 말해주던 녀학자의 고난에 찬 10 여년을 방불히 눈앞에 그리게 하는 모습이였다.

《기계공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비서동무한테 들었소. 그 동무들은 뭐라고 하오? 전망이 보인다고 하오?》

리규성은 녀학자의 번뇌에 지친듯한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일부러 말소리를 높였다.

《알이 커져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송현이는 뜻밖에도 청높은 목소리로 대꾸를 했으며 심지어 입가에 웃음까지 피웠다. 남에게 구차스러운 꼴을 보일까봐 눈굽을 찍어내는듯싶었던 것은 공연한 생각이었던것 같았다. 그는 녀학자의 아픈 마음을 건드릴가봐 그만두려고 했던 땅개암재배경험을 듣기로 했다.

《재배경험을 좀 이야기해주오.》

송현이는 리규성의 앞에 서서 밭에 들어갔다. 그는 답답한 억양으로 조리있는 설명을 해나갔다.

리규성은 송현이의 자제력에 그만 감동되고말았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땅개암을 재배하게 되면 동무의 경험이 꼭 필요될거요.》

밭에서 나오며 리규성이 던진 이 말은 녀학자를 위안하기 위한것이 아니었다. 그의 재배경험을 듣는 과정에 확신이 잡혀서 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녀학자는 그의 이 말을 한낱 동정으로 여긴 모양 부끄러운듯 눈길을 내리까는것이였다. 웅골차고 내성적인 이러한 녀자는 피로움을 그렇게 쉽게 잊지못할것이다.

《앞으로 또 만납시다.》

리규성은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다.

《또 찾아와주세요.》

송현이는 리규성의 손을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지금이야말로 땅개암밭을 내놓는 대가로 당비서가 말하던 그 학위논문이야기를 꺼낼수 있는 때였다. 그렇지만 녀학자의 얼굴에는 그 무슨 말을 하려는 표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리규성은 의외롭기까지 했다.

리규성이 밭머리에 다 나왔을 때였다. 등뒤에서 녀학자가 더듬거리며 숨가빠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저 랑림의 그...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 그 학자의 주소하구 이름을 제가, 저... 제가 알수 없을까요?》

《사람이 가진 했는데 아직 그 동무를 평양에 데려오지는 못했소.》

송현이의 조그마한 얼굴에는 심각한 실망의 빛이 비졌다. 리규성에게 이것은 전혀 뜻밖의 표정

이었다.

《왜 그러오?》

《한번 만나보구싶어 그러니다.》

《내 며칠후에 랑림에 가게 될것 같은데 가거든 그 동무한테 이야기하지.》

너학자는 아직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것 같았다. 사실과 모순된 이러한 비극적인 고집은 리규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리규성이 자동차에 올라타려는 때이다. 너학자가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런데 저...》

정작 이렇게 말머리를 떼긴 했으나 자신의 당돌한 행동에 당황한듯 너학자는 말을 계속하지 못한다. 리규성은 자기의 힘이 미치는것 너학자를 도와주고싶어 물었다.

《무슨 일이요? 말하오.》

《미안합니다만 저. 제가 쓴 제 그 학위논문하구. 그리구 열다섯해동안 기록한 과학일지가 제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무에게... 그 동무는 원산지에서 연구했기때문에 중간지대에서 연구한 제 경험이 꼭 필요할겁니다. 그걸 그 동무에게 전해줄수 없을가요? 전 그 동무를, 그 학자를 만날 기회가 빨리 올것 같지 못해서 그러니다.》

송현이는 자기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온넛을 기울여 열렬히 말했다.

리규성은 물론 그의 말을 알아들을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일지와 학위론문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너학자의 의도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얼마동안 과학기관에서 사업을 해본 그는 시험재료나 연구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것은 여간해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실패한 연구인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거기에는 자기가 바친 탐구의 열정과 지향, 기쁨, 눈물... 한마디로 말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수도, 느낄수도 없는 넛과 삶이 숨결이 숨배여 있었다. 그래 학자들은 그것을 자식이나 자기 생명의 한부분처럼 귀중히 여겼던것이다. 그런데 너학자는 반생을 잃은것만으로도 부족해 과학일지뿐만아니라 학위논문까지 내놓겠다는것이다.

《그러니까 동무는 학위도 필요없다는것이요?》

리규성은 일종의 의혹까지 느끼며 강바람에 메마른 너학자의 조그마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학위는 해서 뭘합니까? 제가 이제 어버이수령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두요. 이제 과학기관에서 동무의 논문을 심의하기 위해 찾아올게요. 우리들끼리 의논이 좀있었소. 일지두 앞으로 땅개암채배에 참가하자면 필요하지 않겠소?》

리규성은 선심을 쓰는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으

려던 문제를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리규성동지, 정말 전 학위가 필요없습니다. 랑림의 그 동무는 제 경험이 없으면 온화한 기후조건에서의 채배경험을 쌓느라구 한두해 또 시간을 바쳐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두 도입이 늦었는데 어버이수령님께 이권 얼마나 죄스럽구 또...》

너학자는 갑자기 목이 꺾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수년간이 갑자기 생각난 모양이었다. 그의 진실한 얼굴표정은 리규성의 가슴에 한순간 비졌던 의혹을 날려버렸다.

《그건 인민들에게두 죄스러운 일이구, 부탁합니다. 리규성동지!》

《리당비서동무가 찬성하면 가져가겠소.》 리규성은 결론을 비서에게 밀어버렸다. 그런데 정작 학위만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던 비서도 말을 못하고 얼굴을 돌리고만다.

이때 너학자와 운명을 같이해온 조수가 불쑥 앞으로 뛰어나왔다. 너학자옆에 서서 랑손을 가슴우에 모두어잡고 얼굴이 질려 오고가는 말을 듣고있던 은실이였다. 그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건 안돼요! 절대루 그건 안돼요! 연구사언니는 그걸 늘 베개머리에 두고 잤어요. 이제 연구사언니한테 남은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건 안돼요!》

은실이가 진실한 말을 하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었다. 너학자는 정말로 학위론문을 베개머리에 두고 잤을것이며 행복한 앞날을 그리며 꿈속에 미소를 지었을것이었다. 리규성은 조수가 자기의 심정을 대변해준것만 같았다. 그런데 조수를 돌아보는 너학자의 눈길에는 진심으로 질책하는 빛이 어려있는것 아닌가. 은실의 얼굴이 눈물로 온통 매달질되어있지 않았다면 너학자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꾸중의 말이라도 튀어나올것 같았다. 너학자는 조용히 조수곁에 다가가 손을 꼭 쥐였다. 그는 안타까운 간청이 담긴 말을 나직이 속삭였다.

《은실아, 내 어제밤에두 말하지 않던...? 내가 이제 와서 학위는 해 뭘하니? 우리가 열다섯해동안 이 밭에서 고생을 하면서 바란것이 내 학위냐? 이제 와서 랑심을 더럽히는건 비겁한짓이야!》

너학자의 눈곱에도 이제야 자제하던 맑은 이슬이 맺혔다. 10 여년동안 간고한 탐구의 길우에서 운명을 같이 해오것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조수가 너무도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그래도 언니에게 남아있는게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스물다섯에 시작해서 마흔살이 다 되었는데 그것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버이수령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두 덜어드렸으면 됐지, 은실이는 뭇이 또 남아 있기를 바래?》

《그래두 어디 그래요? 내겐 그래두 자식이 있구 가정이 있지만 언니에겐...》

은실이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송현이의 어깨에 이마를 얹었다. 드노는 은실이 어깨에 손을 얹고서있는 강바람에 메마른 녀학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그것은 약한 티를 보여 동정을 사는 실수를 할가봐 초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녀학자의 모습이었다.

리규성은 얼굴을 돌리고말았다. 다년간 주로 지도적위치에서 사업해오면서 마음을 굳세게 버리기도 한 그는 좀체 눈물이라는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부끄러운것으로 여겨오던 그 눈물을 보이교야말것 같다. 그는 녀학자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 리당에서 기계공학자들하구 간단한 협의회를 하겠소. 거기루 논문하구 일지를 가져오오. 랑림의 그 동무에게 꼭 전해주겠소.》

《고맙습니다.》

송현이는 운명을 건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은듯이 머리를 깊이 숙였다.

이렇게 되어 리규성은 논문과 함께 녀학자가 상강마을에서 열다섯해동안 기록한 과학일지를 자동차에 싣고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송현이의 행동이 아무리 리규성을 감동시켰다고 해도, 그리고 리규성이 아무리 녀학자가 잃어버린 반생을 두고 가슴아파한다고해도 송현이의 논문과 일지는 땅개암 생산도입을 설계하는 그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리규성은 평양에 도착하자 자기가 육종가를 만날때까지 송현이생각을 머리에서 털어버리려고 크라프트지에 쓴 논문과 일지를 문서함에 넣고 쇠를 잠그었다.

### 3

다음날 리규성은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를 올리려고 그이께서 계시는 정원으로 갔다, 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빠른 걸음을 옮기던 그는 청신한 아침대기를 헤치시며 활달한 걸음을 옮기기는 그이를 뵈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이께서는 기름식물이 랑림에 늘어선 정원길을 거닐고계시었는데 맑은 아침이슬에 씻긴 눈부신 해살과 깊고 참신한 사색을 교감하시는듯도 싶었고 부드럽고 다감한 아침안개와 어울린 눈부신 해살을 주위의 기름식물들에 뿌려던져주시는듯도 하시었다.

그이께서 리규성을 만날 장소를 기름식물이 집중한 이곳으로 선택하신것은 먹는기름문제가 결

정적으로 해결될 전망을 내다보신 기쁨때문이실 것이었다. 리규성은 자신의 마음도 날아오를듯 가벼워지는것을 느끼며 나무그늘에 부동의 자세로 서서 그이를 뵈고있었다. 부관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었다.

《빨리 오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손으로 만질수도 있을것 같은 눈부신 아침대기를 흔들며 정원끝에 까지 울려갔다. 리규성은 그이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조리있는 보고를 올리였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연구소에서두 땅개암이 기름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의의를 찾는다라는것을 인정했단말이지요? 그래서 수확기를 연구해왔단말이지요? 보시오. 우리 과학자들의 관점이 이젠 얼마나 바로섰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인민이, 과학자들도 포함해서말ियो. 우리 인민은 좋은 인민이라고 어디에 가서나 말을 합니다.》

그이께서는 땅개암이 다수확품종으로 육종될 오늘이 있을것을 예견하시여 기계공학연구소에 여러차례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것을 잊으시기라도 하신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인민들에게 경사로운 일이 차례졌을 때 그이께서 보이시군하시는 그 호탕한 웃음이다.

《그런데 스무톤이 나는 땅개암이 육종됐으니 그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소. 규성동무, 이리 오오.》

그이께서는 아침이슬에 젖은 화려한 잎사귀들이 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는 발머리에 이르시였다.

《이것이 뭇지 아오?》

상강에서 보고 온 땅개암잎과 비슷했으나 꼭 그렇다고 할수도 없는 색깔이 선명한 잎사귀였다.

《이것이 육종되기전의 땅개암ियो. 동무는 이 땅개암이 일정에 올랐을 때 논고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처음 볼게요. 그때는 일여덟톤밖에 나지 않았소. 그런데 스무톤이 난다니 우리 학자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창조했소!》

리규성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경건해져 자세를 바로잡았다. 얼마나 기름문제를 걱정하시였으면 육종되기전의 땅개암을 정원에 또 심으셨겠는가. 그런데 농업부문을 맡아보는 전문일군인 자기는 그 잎사귀를 알아보지도 못한것이다. 열다섯해전에는 논고장에 있었으니 땅개암을 몰랐다고해도 그후에 눈에 잘 익혀두기라도 해야 했을것이나닌가.

《그래 수확기를 어떻게 완성하기로 했소? 랑림에서 시험하기로 했소?》

《연구소가까이에 수확기를 시험할수 있는 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연구소가까이에 땅개암밭까지 있었던말 입니까?》

《네, 한 녀학자가 연구해온 땅개암밭이 있었습니 다.》

리규성은 이 말씀을 올릴 때 검버섯이 내돋고 강바람에 메마른 녀학자의 조그마한 얼굴이 문득 눈앞에 떠올랐다. 보고를 준비할 때도 그 얼굴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었다. 간고하고 성실한 연구를 해왔다고 하여도 명성을 얻는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아버지수령님께 말씀올려서 근심을 끼칠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없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리규성의 얼굴을 한순간 스치고 지난 혼란에서 벌써 많은것을 헤아리시고 자제한 부분까지 따져물으신다. 녀성이 산간농장에서 그렇게도 오래 연구를 해왔다면 그동안에 아이는 어떻게 키웠는가, 아직 처녀라면 연구를 위해 청춘을 희생했단말인가? ... 이렇게 되어 리규성은 당비서한테 듣기도 하고 자기가 보기도 한 곡절많은 녀학자의 반생을 그이께 죄다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리규성의 말을 들으신 그이의 안색은 녀학자가 간고한 탐구의 길우에서 체험한 그 모든 시련과 피로움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안으신듯 침중한 빛이시였다.

무거운 음성으로 물시였다.

《논문과 일지를 내놓을 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근심을 빨리 덜어드리기를 바라는 성실한 동무입니다.》

눈부신 해살이 깔린 풀밭우를 사뭇 떠지신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결심을 하기가 피로왔을겁니다. 그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피로움을 체험한후에야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랑림종을 도입하게 됐다는 말을 들은후 이를동안 그 동무는 남들이 일생을 두구두구 체험할수 없는 피로움을 체험했을겁니다. 그리고나서 논문과 일지를 내놓는 희생을 결심했을겁니다.》

그이께서는 아지가 휘늘어진 기름밤나무앞에 걸음을 멈추시고 호두알같은 열매를 잠시 굽어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어쩐지 한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눈앞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런 동무들이 주추돌이 되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강력한것입니다. 그래 나한테 한 보고중에서 그 동무의 일지와 논문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은 어느 대목입니까?》

리규성은 그 무엇인가 가슴에 딱 걸리는듯한

감을 느꼈다. 녀학자의 논문과 일지를 읽는것을 그닥 긴치 않은 일로 여긴 자신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것을 순간에 깨달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떨구었다.

《참작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읽지 않았단말입니까?》

《네.》

수령님께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으신듯 놀라신 눈길로 리규성을 돌아보시였다.

《그 녀학자의 논문하구 일지를 읽는건데 그랬 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여 걸음을 다시 옮기시는 그이의 어깨를 선명한 땅개암일에서 반사된 아침해살이 송구스러운듯 조용히 어루머듬었다.

《물론 동무의 보고는 실무적인 조치를 예견한 것이니까 녀학자의 논문이나 일지에서 참고할 점이 많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언제 사업에 꼭 도움이 되는 글만 읽습니까? 그것으로써두 모자라 현지에 나가서 가정과 합숙을 찾구...》

안개를 날려버린 해빛은 더욱더 밝은 빛을 뿌렸지만 그이의 모습에서 무거운 안색까지 는 씻어 내지 못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분명히 리규성이 인민의 피로움을 자기의 피로움으로 삼을줄 모르는 일꾼으로 혹시 변하지 않았는가 근심하고 계시였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향은 인민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자신에 대한 요구가 낮아지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번만 이야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민의 피로움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을 때 그는 벌써 지도일꾼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것입니다.》

жат나무숲속에서 잠시 숨을 죽였던 메새가 다시 들까불며 우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이의 마음에는 아침의 청신한 해빛도, 숲속의 아름다운 메새의 노래도 벌써 비쳐들지 않는듯싶었다.

《그 녀학자의 일지하구 논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개암밭두리를 천천히 도시던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시였다.

《저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시오. 내가 그 논문과 일지를 보겠습니다.》

리규성은 자기가 씻을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것을 더욱더 가슴아프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이의 이 말씀에만은 응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가 상강에서 떠날 때 당비서가 귀뜸해준 말이 있었던것이다. 녀학자의 일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은 날이면 과학적관찰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일신상문제도 적어넣군해서 얼마

큰 송현이의 일기와 비슷한데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 랑림의 육종가에게 비밀을 지킬것을 미리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다. 그러니 그 일지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음의 부담으로 될 어떤 글이 써여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리규성의 길지 않은 말을 들으시고도 그렇듯 마음아파하시었는데 그 많은 일지속에 담긴 곡절많은 한생을 몸소 헤아리시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것인가.

《이번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위해 오늘저녁에 평양을 떠나실 예정이시였다.

《인민을 위해서 반생을 바친 녀학자가 외진 농장에서 피로와하루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까? 부관하구 같이 가서 어서 문문과 일지를 보내시오.》

그이께서는 좀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몸을 돌리시였다. 집무실쪽으로 걸어가시는 그이의 걸음은 졸전에 리규성이 본 그 정력에 넘치신 활발한 걸음이 아니시였다. 손세에서도 기름나무들이 해살을 뿌려주는듯싶던 그 정력이 보이지 않았다. 리규성은 위대한 수령님앞에 달려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자리에 그냥 서있기만 했다.

## 4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저히 미루실수 없는 긴급한 사업이 계시여 가을의 늦은 해가 기울무렵에야 녀학자의 일지를 앞에 놓고 앉으실수 있으시였다. 착잡하게 씌여진 일지를 번져가시는 그이의 안색은 무거우시였다. 책임부관이 문건을 가지고 들어와도 시간을 다루는 급한것 이외에는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중학생들의 학습장을 껴매서 만든 시약과 흙물로 군데군데 어지러워지기까지 한 루추한 일지를 한장한장 주의깊이 번져가시였다.

어느덧 가을의 밤이 빠른 걸음으로 정원에 찾아 들어와 나무들을 부드럽게 어루어듬어 잠을 재우기 시작했다. 서쪽하늘에 곁게 비끼였던 무거운 구리빛 잔광도 벌써 스러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잠을 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지에서 눈길을 드시고 어쩔수없이 찾아드는 상실감에서 벗어날수 없어 시름에 잠겨있을 녀학자를 눈앞에 그리시는데 이윽히 창너머 먼곳을 바라보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두손을 등뒤에 모두어쥐시고 방안을 천천히 거니신다.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서시여 무거운 어둠이 찾아든 정원을 내다보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서는 녀학자의

일지에서 본 글의 매 글자들이 마치 그 녀성의 종잡을수 없는 사색이 매달린 눈이며, 해별에 뜬 입술이며, 발일에 거칠어진 손처럼 생동하게 살아움직이였다. 녀학자가 일지에 쓴 글에는 일시적충격에 못이겨 펜을 날린 대목들이 적지 않았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글뒤에 깔린 녀학자의 숨결을 느끼셨으며 숭고하고 깨끗한 녀원을 감수하시였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체험하시였다. 그이께서 읽으신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있었다.

나의 심장에 사랑의 열정을 심어준 벗은 오늘 나한테 항의를 했다. 자기를 위해서 손을 좀 아름답게 건사해달라는 요구였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나는 그에게 수백평의 밭에서 시험을 계속하는 조건에서 손을 아름답게 건사할수 없다고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손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와질수는 없을것인데 말을 해 무엇하랴. 돌아오는 길에 공원의 돌의자에 앉아 거칠게 뜬 손등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본래의 아름다운 손으로 되돌아갈수 있는 길이 나에겐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졌다. 문제는 그러한 말을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떳떳해야 하겠는데 나에게는 아직 그런 결심, 그런 굳센 의지가 준비되어있지 못한것이 슬프다.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언제면 사랑하는 벗이 리해를 해줄까?...

수년이 지나서는 다음과 같은 글도 썼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우리 집에서 유일한 비당원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가 당에 바치는 혁명적의리를 지키며 떳떳하게 살고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생과 어머니마저 나를 리해해주지 못하니 이 외로움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것인가.

마침 평양에 올라와있던 나한테 제대되어 고향으로 가던 동생이 들렸다. 동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간 나를 그는 마치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자기를 업어키워준 누이와 비슷하지도 않은 나를 보게 된 그는 놀라고 당황해하였다. 나는 동생의 눈길에 담겨있는 뜻을 리해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동생의 손을 붙들려다가 험해진 나의 손에 놀랄가봐 도로 움츠리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굴과 손만이 아니라 나의 발등까지 거칠게 텃다것을 알고 마음이 침울해져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흘동안 목을 예정이던 평양에 하루도 묵지 않고 떠나가버렸다. 그는 떠나면서 나의 손을 붙들고 분개해서 웨쳤다.

《농사로 늙은 어머니처럼 손이 험해지구서두 뭣이 모자라서 아직 입당두 못했소. 길을 잘못들어두 단단히 잘못든것 같소. 그러기에 동생이 와두 하루밤 잘 집두 없이 떠돌아다니는게 아니요. 난 누이가 어머니의 소원만이라두 빨리 풀어주



있으면 좋겠소. 어머니는 누이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로chner로 늙는다구 이젠 <대>자앞에 서기 두 싫다구한다오.》

아, 현남아! 너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었으면 얼마나 큰힘으로 되었겠느냐...

거치른 손등우에 눈물을 떨구며 그것을 안타깝게 쥐어뜯는 송현이의 모습이 동생을 떠나보내며 어깨를 들먹거리는 녀학자의 뒤모습이 어버이수령님의 눈앞에 엇갈려 떠올랐다. 그이께서는 녀학자의 피로움이 그대로 옮겨와 자신의 가슴에도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듯하시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피로우신것은 스무해나 몸소 키우다싶이 하시여 최근에는 책임적인 사업을 맡긴 리규성까지 왜 녀학자의 그 고심에 찬 노력속에 담긴 큰뜻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는것이였다. 인민의 피로움에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존중할줄 모르는 일꾼으로 되지 않았는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칠 혁명가의 각오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가? 그이께서는 이런 위구때문에 마음이 더욱 피로우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여 송고하고 아름다운 녀학자의 지향과 열정을 더듬어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대목에 이르시여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듯 안색이 더욱 심각해지시였다. 그이의 모습은 점차 부드러워지시긴 했으나 그것은 헤아릴수 없이 심원한 사색에 집중하고 계시기때문인듯 싶었다. 그이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나무그늘에서 무거운 어두움이 이미 굳잡이 든 정원으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땅개암의 발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수령님께서 방금 녀학자의 일지에서 열여섯해전 땅개암을 처음 시험재배해보실 때의 일을 상기시켜주는 감동적인 대목을 읽으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땅개암을 몸소 정원에서 시험재배를 해보시고 교시를 주신지 벌써 열두해, 아, 나의 지성에서 무엇이 모자라기에 그이의 녀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일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업의 여가에 잠시 휴식을 하셔야 할 정원에서 땅개암을 재배하셨다는 말을 듣고 잣나무숲속에 들어가 울며 맹세를 다진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열두해가 지났다. 그때 나의 울음속에 과연 감격의 눈물만 섞여있었던가. 식물학자들이 제구실을 못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기름작물을 시험해보시게 하였다는 분한 눈물도 섞여있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쁨의 보고가 들어오기를 해마다, 달마다, 아니 매 시각마다 기다리실것인데 아직도 교시를 관촬했다는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있으니 이 죄송함을 무엇으로 씻을수 있을것인가.

아, 수령님, 이 불초의 딸은 먼 상강에서 잘못을 빌며 이해를 보냅니다. 새해는 꼭 어버이수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수령님, 날씨가 차집니다. 오늘밤 첫서리가 내

릴것 같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등뒤에서 들려오는 책임부관의 말을 들으시고서도 땅개암발머리에 그대로 두무릎을 꿇고 앉으시여 마치 해별에 검은 빛이 날아버린 녀학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듯 밤이슬에 축축히 젖은 땅개암잎을 어루머듬고계시였다. 지향이 송고하고 뜻이 크고 또한 열렬하기도 했던 녀학자의 그 모든것, 말하자면 넋을 잃어버린 그가 지금 상실감에 시달린 나머지 허물만 남아 모대기고있을것만 같으시여 그이께서는 마음이 놓이지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관이 내주는 수건에 손을 훑치시고 집무실에 들어가시여 상강마을 당비서한테 전화를 련결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전화는 곧 련결되였다. 수화기에서 극도로 흥분하고 당황한 석심한 목소리가 조리없이 울려나왔다.

수령님께서 리당비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시였다. 송현이의 건강상태부터 물으시였다.

《알지는 않습니다. 좀 얼굴이 축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기계공학자들과의 사업두 끝냈습니다. 오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 동무에게 한가지 부탁하겠소.》

헤덤비며 이야기하는 산골마을 당비서의 말을 끝까지 듣고나신 수령님께서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대신 송현이동무한테 가서 그 동무를 고무해주오. 짐을 싣 집에서 자기란 어수선한 법인데 몇사람 데리구 가서 짐을 풀구 실험도구두 그전대로 놓아주시오. 그동안 며칠 자지를 못했는데 오늘밤은 어떻게든 잠을 좀 자게 하시오.》

《수령님, 저, 저, 수령님...》

불시에 목멘 소리가 들려오다가 끊어졌다.

《송현이동무가 상강마을을 떠나는것은 우리한테서 다시 련락이 있을 때까지 미루는것이 좋겠소. 동무가 그래두 녀학자를 도와주었다니 고맙소.》

당비서는 분에 넘친 치하의 말씀을 받고도 목이 메여 종내 아무 말도 드리지 못했다.

《그럼 부탁하겠소.》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도 좀 갈리신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상강마을과 전화를 끊으시고 다른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수화기에서 곧 리규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왜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규성의 건강부터 녀려해주시였다.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이삼일후에 랑림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사이엔 무슨 일이 있소?》

리규성은 예견하고있는 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계획했던 일들을 하루쯤 뒤로 미루구 래일이

침 랑림으로 떠나게 좋겠소. 직승기를 비행장에 대기시킬테니 그것을 타고 가시오. 상강에서 송현이동무가 육중한 땅개암을 가져온게 있소?》

리규성은 대답을 울리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꼭 쉬구 래일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송수화기를 놓으시고 책임부관을 부르시었다.

《누구 한 동무를 상강에 보내서 송현이동무가 육중한 땅개암을 몇기로 가져다가 래일아침 비행장에서 떠나는 리규성동무에게 내다주기두 하구 나한테두 좀 가져오시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오래도록 집무실에서 떠나지 못하시었다. 녀학자의 일지를 보시느라 뒤로 미루셨던 문건들도 보셔야 했고 송현이의 신상이 아무래도 넘려되시여 상강이 자리잡은 그 먼곳으로 눈길을 자주 두시게 되는것이였다.

## 5

리규성은 방금 직승기로 랑림에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오전 10 시까지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에 도착하라는 연락이 있었다는것을 서기가 알려주었다. 30 분 남짓한 시간이 있었다. 집에 가서 겨우 먼지 낀 옷이나 갈아입을수 있는 시간이였다. 그는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리규성이 집무실에 들어섰을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슨 문건을 주의깊이 보고계시였는데 그이께서 마주하고 앉으신 넓은 집무상우에는 그 어느 자연과학자의 실험대처럼 자름자름한 땅개암이며 아직도 시들지 않은 여러 무지의 푸른 잎사귀들이 가득히 놓여있었고 분명히 보통때 수령님께서 받으시는 문건과는 다른 시험치수를 표시한 시험표들이 붙은 문건들이 쌓여있었다. 리규성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가 랑림에 가서 규명해가지고 온 그 모든것을 벌써 이 집무실에서 해명하고 계시다는것을 순간에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러신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우시고 리규성을 반갑게 맞이해주시었다.

《먼 길을 갔다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 랑림에 가니 어떠했습니까?》

리규성은 곧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자기의 잘못으로 열다섯해나 고생을 한 녀학자를 희생시킬번했을뿐이니라 어버이수령님께 그렇게도 큰 근심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비행기안에서 몇번이나 곱씹은 말들이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것이였다. 그는 잠시후에야 앞뒤를 헛갈리기도 하고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면서 랑림에서 알아가지고 온 사실을 그이께 말씀드리었다.

…정당 스무툐이 나는 랑림종은 사실은 송현이가 육중한것이였다. 그의 씨앗이 다섯해동안이나 생산에 도입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가 그 먼땅에까지 흘러들어간것이였다. 처음에는 그곳의 현장기사가 농장원들에게 기름을 먹이려고 시작한 일이였는데 놀라운 수확을 낸다는것을 확정하고 전국적인 도입을 위해 얼마간의 씨앗을 준비하여 군에 바쳤다. 그것이 리규성이 사업하는 기관에까지 보고되어 일군들의 감정을 받았던것이다. 이번에 리규성이 가지고 간 송현이의 씨앗을 분석해보고서야 모든것이 명백하게 해명되였다.

수확고에서 얼마간의 차이가 나는것은 시비량에 관계되는것 같았다.

충신한 해살이 비쳐드는 창가에 서시여 리규성의 말을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가벼운 자름자름한 열매들이 무져있는 집무상앞으로 걸어오시었다.

《리규성동무, 이리 오오. 가까이 와서 이것을 좀 보오.》

그이께서는 두개의 무지에서 땅개암을 몇알씩 손에 드시고 그것을 리규성에게 보이시었다.

《동무네 위원회일군들이 랑림에서 가져온것 하구 우리 동무들이 그제밤 상강에서 가져온것이요. 학자들한테 의뢰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동무의 보고와 같소.》

《제 잘못으로 성실한 학자를 희생시킬번했습니다.》

리규성은 자신을 뉘우치는 더 심각한 말은 준비해두었으나 어째선지 이런 평범한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건 리규성동무가 잘못 생각했소. 비록 랑림에서 정말로 스무툐짜리 땅개암을 육중해냈다구 해두 상강의 그 녀학자를 어떻게 희생시킬수 있겠소. 학계에서는 거기의 원칙이 있으니 발명권을 주지 못한다쳐두 우리야 인민을 위해 바친 송현이동무의 성실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할것이 아니겠소. 리규성동무가 랑림에 간것은 평가할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니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을의 여문 해살이 찬연하게 비쳐들어오는 밝은 방안을 가벼운 걸음으로 걸으시며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놓으시기 아쉬운듯 손에 드신 땅개암을 쓸어만지시기도 하시고 어루더듬기도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시었다.

그이께서는 리규성을 랑림에 떠내보내시기전에 벌써 그곳에서도 상강에서와 똑같은 육중사업이 진행되고있으리라고는 믿지 않고계시었다. 송현이와 같이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학자만이 이런 큰일을 할수 있다고 확신하신것이다. 그이께서 리규성을 랑림에 보내신것은 이 확신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먼길을 려행하는 과정이 인민들의 숨은 창조적노력을 발견할줄 아는 지도일군의 안목을 리규성에게 더 밝게 되워주고싶으시었다.

《그런데 규성동무, 이것 보오. 내 오늘 책상우에 이걸 놓고 많은 동무들에게 보여주었소. 이건 상강의 녀학자가 새로 육중하기전의 채래종이요.

그저께 아침에 동무하구 우리 집 트랙에서 본  
재래종이란말이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손에 들고 계신  
것보다 훨씬 작은 자름자름한 열매를 탁상우에서  
드시고 리규성에게 보여주셨었다. 위대한 수령  
님의 관심속에 있는 작물이어서 언젠가 리규성이  
자연박물관에 찾아가 본것과 같은 콩알만큼씩한  
작은 열매였다.

《그런데 이 두 열매를 대비해 보여주어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는 동무들은 많지 못했소.  
더구나 송현이동무와 같은 학자가 청춘을 바치  
며 10 여년간 연구를 해서야 비로소 이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적었소. 하긴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리규성동무와 같은  
전문일군은 적었지만 아무튼 얼른 보면 두어배정  
도밖에 커보이지 않는 여기에 얼마나 고심에 찬  
숨은 노력이 담겨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못했  
단말이요. 우리 일군들가운데는 새것을 창조하기  
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이 들어도 새것을 창  
조해야 우리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것  
을 아직도 잘 모르는 동무들이 있는것 같소.》

깊은 사색에 이끌리시여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  
며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은 바로 리규  
성의 가슴을 후려치는 질책의 말씀이기도 하였다.

리규성은 심한 자책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차라리 그이께서 우리 시대를 비약시키고있는 인  
민대중의 창조력을 존중할줄 모르는 자기의 결함  
을 맞대놓고 꾸중도 해주셨었다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송구스럽고 괴롭지는 않았을것이다.

《제가 바로 그런 일군이였습니다.》

리규성은 머리를 떨구고 겨우 이 한마디를 말  
씀을릴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잠시 걸음  
을 멈추시고 이윽히 리규성을 지켜보셨었다. 그  
러시던 그이께서 다시 걸음을 옮기시었다. 리규  
성의 귀에는 그이의 부드러운 발자욱소리가 마저  
복소리처럼 크게 울려왔다.

《나도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소. 그래 동무와  
알게 된후의 10 여년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았소.  
규성이, 우리가 선돌마을 논두렁에서 만난것이  
언제였더라?》

《열네해전 5 월 17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한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감격의 날  
이어서 리규성은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수 있었  
다.

《5 월, 그래 5 월이였던것 같소. 보슬비가 내리  
는 날이었지... 등성이밭의 강냉이들이 비를 받아  
서 싱싱하게 피어나는 날이었소. 동무는 비가 오  
는 날인데도 논판에 들어가 인력이앙기를 시험하  
고있었지...》

리규성은 불시에 가슴밑바닥에 묻혀있던 송고  
하고 격동적인것이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목  
구멍으로 치달아오르는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이  
께서 몸소 발견하시고 키워주신 일군이 백이나

천이 아니신데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열네해전  
그날의 감격을 어제의 일인듯 생생하게 되살려주  
신것이다. 리규성은 동력이앙기로 메꾸지 못한  
논귀를 농장원들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모를  
꽃을수 있게 하려고 제초기와 같은 자그마한 인  
력이앙기를 논판에서 시험하고있었다. 그런데 뜻  
밖에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  
서 이 하찮은 시도를 발견하시고 높이 평가해주  
시였던것이다.

《농장원들의 허리를 덜 구부리게 하겠다고 비  
오는 날 논판에서 기계를 시험하는 관리위원장을  
만났기때문에 그날은 내게 있어서 더없이 기쁜  
날이었소.》

아직 쓰기 편리하게 완성되지 못해서 동무가  
만든 그 기계를 생산하지는 못하구있지만 농장원  
들을 생각하는 동무의 그 마음을 오늘까지도 우  
리는 높이 평가하고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오  
늘도 못내 기쁘신듯 깊은 사색의 빛이 어리였던  
얼굴에 밝은 웃음을 피우시었다.

《물론 열네해라면 짧은 사이가 아니지만 사람  
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것이 아니요. 난 동무가  
군기관을 거쳐 최근에는 책임적인 사업을 맡게  
되기까지의 생활을 생각해봤소. 동무는 근로하는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할줄 아는 동무였소. 이번  
에 동무가 실수를 한것은 물론 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있긴 하지만 덤빈데도 원인이 있는것 같  
소.》

리규성은 눈곱에 맺히려는 뜨거운것을 겨우 참  
으며 머리를 들고 그이께 말씀드리었다.

《지도일군은 근로하는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할뿐아니라 그들이 고생을 하면 그것을 행복으로  
전환시킬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전 송현이동무의 창조적노력  
을 존중하지 못했을뿐아니라 그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똑똑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리규성의 심각한 자기반성을 들으  
시며 조용히 강가로 걸어가시었다. 찬연한 가을  
해빛이 그이의 모습을 더욱 부드럽고 밝게 부각  
시켜주었다.

그이께서는 당과 인민에게 큰 공헌을 한 녀학  
자를 발견하신 기쁨만이 아니라 리규성의 뉘우침  
에도 만족하신듯싶었다.

《자기의 결함을 비교적 정확하게 말한것 같소.

그렇지만 내 리규성동무의 자기반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몇마디만 더 말하겠소. 우리는 수자보  
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구 언제나 말해왔소.  
그런데 단순한 리치같은 이것이 생활속에서는 그  
렇게 쉽게 관철되는것이 아니란것이요. 상강의  
녀학자의 경우도 그랬소. 동무는 송현이동무가  
랑림보다 2 톤을 적게 냈다구 해서 경쟁에서 진  
학자로 생각한것 같은데 사실이야 그 동무가 과  
학적경쟁에 참가한 동무는 아니지 않소. 송현이

동무는 경쟁을 위해서 땅개암을 연구한 동무가 아니란말이요. 만일 그 녀학자가 명성이나 학위를 위해서 연구를 했다면 무엇때문에 논문과 일지를 내놓았겠소. 리규성동무는 바로 이것을 보지 못했기때문에 학계에서는 그 동무를 평가하지 못해두 우리는 그 동무를 평가해야 한다는것을 알지 못했소. 만일 리규성동무가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이 점을 명심하구 사업했다라면 자력갱생 간고분투해서 큰일을 제긴 그 녀학자의 노력을 평가했을것이며 당과 인민에게 충신했던 그 동무를 우리 시대의 귀감으로 내세우자고 우리에게 제기를 했을것이요. 그러나 동무는 그 녀학자를 동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제기는 하지 않았소. 이 점이 우리에게겐 섭섭한 일이었소.》

리규성은 머리를 깊이 떨구고 목멘 소리로 말 씀을 드리었다.

《이제 곧 상강마을에 가서 송현이동무를 만나 겠습니다.》

《송현이동무는 이제 우리한테 오오. 곧 도착할 게요. 도착하면 동무가 먼저 만나오.》

리규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녀학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시고계신다는것을 곧 느꼈다. 머리를 무겁게 떨군 그의 눈곱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이 맺혀있었다.

## 6

송현이는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실에 들어왔다. 그는 리규성이 상강에서 본 거의 그대로의 비듬지 못한 머리에 구김살도 채 퍼지 못한 옷을 입고있었다. 그는 극도로 흥분되고 긴장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것 같았다. 창백해진 얼굴에는 그 무슨 꽃문양처럼 검버섯이 더욱 도드라져 선명한 계절을 드러내고있었다.

송현이를 데리고 들어온 젊은 일군은 앓을 자리를 가리키며 은근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소? 어버이수령님께서 동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시간을 정한 외국순님이 있어서 접견장소에 계시오.》

녀과학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를 기다려주 시였다는 말에 너무나 놀라 앉았던 자리에서 뛰여일어났다. 그는 산에 분지를 따라 들어가 있어서 그만 시간이 늦었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리규성은 이러한 말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다. 송현이는 이때에야 리규성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발자욱 걸음을 땀다. 머리를 깊이 숙였다. 송현이는 리규성을 분명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온 안내자로 여기고있었다. 리규성이 마음속에 준비해두었던 말들은 그만 온통 형클어지고말았다. 다행히 송현이가 먼저 나직한 목소리로 말머리를 떼었

다.

《랑림에서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좁전에 왔소. 랑림소식을 들었소?》

《전 그 말이 곧이들리지 않습니다. 전 저와 같은 육종가가 랑림에두 있을것만 같습니다.》

지나친 긴장때문인지 같은 음식의 단조로운 목소리였으나 얼굴을 숙이고 이야기하는 그의 음성은 벌써 물기에 젖어있었다. 녀학자는 자기와 같은 피로움을 체험하는 학자가 랑림에도 있을것만 같아 겁이 나는 모양이었다. 리규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송현이에게 하여주신 이야기를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송현이의 과학일지를 보시게 된 경위, 랑림에 가게 된 과정, 리규성이 랑림에 가있는 사이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진행하신 감정, 위대한 수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사업에서 큰일을 한 송현이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사람들이 한생을 두고도 체험할수 없는 피로움을 송현이동무에게 안겨주었다고 여간만 가슴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수령님께서 시련속에서 보낸 송현이동무의 반생을 되찾아주고 싶어하십니까.》

리규성의 말을 들은 녀학자의 눈에서는 물기에 젖은 충격이 몸부림쳤다. 강바람에 메마른 조그마한 얼굴은 감격으로 해서 떨리었다. 이 성스러운 자리에 와서 리성을 잃는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몇번이나 자신을 타일렸는데도 끝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저와 같이 이름없는 연구자에게까지, 저와 같은 평범한 녀자에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제가 글씨 씹니까? 열다섯해동안 근심만 끼쳐드렸는데 저의 반생을 두고 그렇게 가슴아파하시다니...》

눈물을 경멸하던 리규성이였지만 이날은 송현이옆에 서서 그도 마음속으로 울었다.

부관이 급한 걸음으로 방안에 들어왔다. 울고 있는 녀학자를 본 그는 어쩔줄을 몰라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십니다. 송현이동무가 여기 있단 말을 들으시구 몸소 여기로 오십니까.》

부관의 말을 들은 녀학자는 얼른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수건으로 눈곱을 짖간히 훔쳤다. 잠시후에는 벌써 녀학자의 모습에서 온 흔적이 라곤 찾아볼수 없었다.

이윽고 방문이 열리더니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시며 송현이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였고 량심과 열정의 원천이었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방에 들어오시었다. 녀학자는 허리를 꺾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송현이동무, 머리를 드오. 교생을 한 동무의 손을 쥐어봅시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은 우렁한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녀학자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허리를 그냥 깊이 꺾고 있을뿐이다. 아마 눈곱에 맺힌 행복의 눈물의 너무도 무겁고 눈길을 들어 자애로운 그이의 모습을 보면 리성의 도움으로 다잡고있는 울음을 끝내 터뜨릴것만 같아 그러고있을것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도 녀학자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더 앞으로 다가서시여 어깨에 한손을 얹으시고 다른 한손으로 송현이의 손을 쥐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손을 주의깊이 들여다보시었다. 그이의 안색은 금시 어두워졌다.

그이께서는 아마 이 순간 돌의자에 앉아 거친 손등을 쥐어뜯으며 울고있던 녀학자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셨을것이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멀고 험한곳에서 위훈을 세우고 돌아온 외동딸을 맞듯한 이 뜻깊은 자리를 흐리게 하고싶지 않으신듯 곧 녀학자의 손을 놓으시며 밝은 웃음으로 무거운 안색을 쫓아버리시었다.

《자, 앉소.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열다섯해나 농촌에서 고생을 한 동무인데 우리한테까지 와서 서있어서야 되겠소. 앉으시오.》

《…………》

송현이는 물론 앉지를 못했다.

《그럼 나도 서서 말을 들읍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말로 앉으셨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었다. 송현이의 피로운 반생을 진심으로 체험하신분만이 하실수 있는 이 소탈하시고 허물없으신 풍모는 리규성으로 하여금 문득 상강에서 송현이를 대했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게 했다. 녀학자가 일지와 론문을 두고 당비서방에서 나갈 때조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었다.

송현이가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그대로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주는 고집센 딸을 타이르시듯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송현이동무. 내 외국손님들하구 좀 오래 서있어서 그러오. 동무처럼 인민을 위해 연구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내가 알아 들을수야 없지 않소.》

《수령님, 저는 아버지수령님 앞에 이렇게 서있는것만으루두 더없이 영광스럽구, 저는, 행복합니다. 수령님께서 서계시면 제가 어떻게, 제가…》

송현이는 목이 메여 말끝을 맺지 못했다.

《내가 앉아야 마음을 놓구 이야기를 할수 있단말이지, 그럼 좋소. 이야기를 하다 힘들면 앉으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녀학자앞에 의자를 갖다 놓게 하시고서야 자리를 잡으시었다.

《우리가 동무를 만나자구 한것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동무가 연구를 해야 하였는가 하는것을 좀 알고싶어서요. 옹당히 해야 할 일인데 왜 고생을 해야 하오?》

《수령님, 전 정말 고생한게 없습니다.》

《내 동무의 일지를 다 봤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알수 있었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하오?》

녀학자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머리만 숙이고 있을뿐이다. 그이께서는 좀전에 부관이 탁상우에 안아다놓은 일지가운데서 한권을 골라드시었다. 한대목을 펼치시여 리규성앞에 내미시었다.

리규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목을 주의깊이 읽었다. 그것은 녀학자의 마지막 부르짖음과 같은 비장한 웨침이라고 해야 할것이었다.

나도 나의 사랑이 심장을 억세게 그러잡고있으며 나의 청춘을 행복하고 뜻깊게 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 그 사랑의 뿌리를 나의 심장에서 뽑아버릴수 없다는것도 안다.

그러나 그쪽에는 인간본연의 안락이 있을뿐이고 이쪽에는 인민에게 더 많은 기름을 먹이시려고 몸소 저택에서 땅개암을 시험재배해보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이 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갈수 있으랴. 이 은덕을 저버리는것은 과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학자의 량심과 인간에게 있어서 더없이 고귀한 의리를 저버리는것이다. 학자의 지조와 량심과 인간의 의리를 저버린 생애가 결코 행복할수는 없을것이다. 나는 몇몇하지 못한 사랑에 굴종하기보다 량심과 의리를 지켜 몇몇하게 사는 길을 택하였다. 나는 나의 앞날을 녀려해주는 가까운 벗들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의리도 지향도 없는 사람이 될수는 없다고, 내게 남편과 자식은 없을수 있지만 량심과 지조를 지켜냈다는 학자의 자부심은 있을것이라고… 다만 근심되는것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이 자부심과 신념이 나의 뉘으로, 탐구를 추동하는 힘으로 나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벗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 불행한 사람으로 될것이다.

…………

송현이는 구태여 이 대목을 읽지 않고서도 글씨의 모양과 반점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고있었다. 한때는 가슴을 어이는듯하여 들여다볼수 없었던 대목이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가슴속 상처의 아픔도 무디어져 근래에는 심장을 뛰놀게 하던 행복한 그때가 그리워 가끔 펼쳐보곤 한 대목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면서 쓴 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거듭 물으시었다.

《이 글은 가슴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글이요. 동무와 같이 당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동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동무한테 듣고싶소. 왜 연구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는가? 왜 5년동안이나 다수확품종으로 육종한 땅개암을 생산에 도입하지 못했는가? 동무의 솔직한 견해를 듣자는것이요.》

녀학자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눈곱에는 참을수 없는 걱정으로 해서 흘러고 만 맑은 이슬이

아직도 그대로 맺혀있었는데 그 눈에는 애원의 빛과 같은것이 담겨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릴 말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듭되는 권유를 어길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 경솔하게 쓴 제 글때문에 아버지원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한것만도 죄송스럽기 그지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또 할수 있겠습니까?》

담담한 목소리로 여기까지 말한 송현이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낼 줄 알았던 그의 입귀에 가벼운 경련이 스쳐지났다. 눈에는 아직 맑은 눈물이 어리였는데 어버이수령님께 꼭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는 한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듯, 그러나 마음 피로와하실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이야기를 할수 없는듯, 입귀만이 경련을 일으킨듯이 떨렸다. 비장한 결심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나친 긴장과 북받치는 흐느낌으로 말이 토막토막 끊어졌다.

《다만. 다만 일군들이, 일부 일군들이 자기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인민을,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자신이 아니라 인민을 더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시다.》

겨우 여기까지 더듬거리고난 송현이는 갑자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야무진 결심으로 옹골차게 다잡고있던 울음이 출지에 터지고만것이다. 그의 울음속에는, 그의 함축된 말속에는, 열다섯해동안 시련속에서 낱과 달을 보내면서 느끼고 안타까와한 그 모든것이 포함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의자에서 일어나시여 무거운 걸음으로 방안을 거니시며 녀학자의 흐느낌을 들으시였다. 리규성이 보다 못해 송현이옆으로 다가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무거운 음성으로 만류하시였다.

《놔두시오, 그대로 두시오. 우리는 저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좀 격하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송현이는 리성을 되찾았다. 자신도 어쩔수 없는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울음이긴 했으나 그렇게도 억제하던 눈물을 어버이수령님께 보였다고 생각하니 자기를 용서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것은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요? 땅개암을 육종할데 대한 파업은 우리가 준것이 아니요. 그런데 왜 가슴속에 상처를 받으면서 가슴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이면서도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소? 난 열다섯해동안 동무같은 학자를 기다리면서 뜨락에 땅개암을 뿌렸소. 어디선가 먹는 기름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동무들을 생각했소. 그런데 육종을 끝내고서도 5 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소?》

방안의 숙연한 분위기를 뒤흔들며 울려퍼진 그이의 쇠소리나는 음성은 문득 물기에 젖어 그 무

게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도중에서 끊어졌다. 이윽고 몸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송현이앞에 다가오시였다.

《그런 보수주의자, 소극분자, 인민의 리익은 안중에 없는 관료주의자들과 왜 싸우지 못했소. 창조도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지는것이요. 인민을 위한 일인데 왜 투쟁하지 못했소. 싸우기 힘들면 우리를 찾아오기라도 해야 했을것이 아니요. 그랬더라면 가슴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패이지두 않았을것이구,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이지두 않았을게 아니요.》

그이께서는 송현이의 손을 더듬어주시였다. 거칠게 튼 손등을 쓸어대듬기도 하시고 수만알의 땅개암을 캐고 씻고 세느라고 올해도 벌써 터져서 피진 손가락끝을 눌러보시기도 하셨다. 그이께서는 길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동무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당이 있는데 왜 당을 찾아오지 않았소. 당을 찾아왔으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고생을 하지 않아두 했을게 아니요.》

그이께서 너무나 피로와하시여 외람된줄 알면서도 위로의 말씀을 올리려고 얼굴을 든 송현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심깊은 눈이 물기에 젖어 있는것을 보았다. 다감하시고 부드러우시며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그이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억이 막히고 심장이 뒤틀리듯 아팠다.

《수령님, 제 손이 이렇게 된것은 제가 손건을사를 잘못했기때문입니다. 건사를 잘했으면 손이 더 깨끗할수 있었습시다.》

송현이는 그이의 손은 모두어쥐고 그자리에 무너져내리며 흐느끼였다.

《내앞에 눈물을 다 쏟아버리라우... 입은 상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물겠나... 그렇지만 눈물은 내앞에서 다 흘러버리라우. 시대의 모범으로 내세워야 할 숨은 영웅이 가슴에 눈물이 있어서야 되겠나... 열다섯해나 고생을 한 동무인데 이제부터는 가슴에 눈물을 담고 살아선 안되지... 동무는 비록 당밖에서 과학사업을 한 동무였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해서 우리 당에 충실한 동무였소. 송현이동무, 당에 어떻게 충실해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준 동무가 계속 당밖에 있을수는 없지 않겠소. 내 동무의 입당을 보증할 생각이요.》

송현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에 이마를 비비며 부르짖였다.

《수령님,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자입니다.》

해빛이나 비바람만이 아니라 정신적고충으로 일찌기 청춘의 빛이 날아버린 녀학자의 머리를 눈썹에 눈물을 담으시고 내려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보면서 리규성도 울었다. 반생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한생을 받아안은 녀학자를 바라보며 어디에서나 행복을 창조하시는 불세출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기쁨으로 그도 울었다.

#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루이스 마누엘 데 아르우조

태양을 우러르네! 태양을 우러르네!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네  
누리에 솟아오른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네

혁명의 붉은 해발  
뿌려주는 그 태양  
광명을 주네  
전세계혁명가들에게  
나아갈 길 밝혀주네

혁명의 붉은 그 해발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고  
징벌을 내리며  
불태워버리네

태양을 우러르네! 태양을 우러르네!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네  
혁명의 기발로  
영웅적인민의 념원담아 붉게 타오르네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민들의 희망인양 붉게 타오르네

태양을 우러르네! 태양을 우러르네!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네!  
전진하는 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태양!  
그 태양이 있어 공장이 돌아가고  
씨앗이 움트며  
문화가 꽃피네

전세계 혁명가들에게  
빛을 주시고  
광명을 주시며  
앞길을 밝혀주시는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죽음을 안기시며  
징벌을 내리시는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태양을 우러르네! 태양을 우러르네!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네!  
누리에 솟아오른  
인류의 태양을 우러르네

(필자는 뽀르뚜갈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일성**, 그이는 우리의 시대의 위대한 태양

피엔드레베오고 장 가비

4. 15명절 만민의 명절날  
창공에는 오색풍선들  
땅우에는 아름다운 꽃들  
산천도 기쁨에 설레이는 날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의 동상앞으로 흘러드네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마음  
꽃바구니의 물결되어 끝없이 흘러드네  
인민들의 뜨거운 함모의 정 넘치는  
아름다운 꽃바다  
동상앞에 펼쳐지는데  
남녀로소, 사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주석, 그이께

만수무강 축원의 인사 드리네

자주의 위대한 기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 이룩하시고

자주의 길, 참된 삶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

휘황히 밝혀주신 그이께

전세계인민들은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리네

**김일성** 주석

그이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그이는 인민대중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이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리론실천가

그이는 온갖 원썩을 전멸케 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그 보편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불패의 위력을 지니었나니

주체사상-이는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여라

그이는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분

교매하고 인민적인 덕성을 지니신분

그이의 혁명업적은 거대하고 찬란하여라

위대한 수령님 탄생하신

4.15 명절, 이 경사로운 명절날

만수대언덕 그이의 동상앞에서

만민의 마음

존귀하신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네

우리 시대의 위대한 태양

그이께서 누리를 밝혀주시는

광휘로운 빛발을 받아안고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의 마음

가장 숭고한 경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네

우리 시대의 변명을 위하여

전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이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네

(필자는 상부불파 출판지도국 일간통신주필)

##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렘바 마피코

**김정일** 동지는

동방에 솟아오른 밝은 태양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그이는 영원히 빛을 뿌리는

진보적인류의 태양

그이는 **김일성** 주석의 체현자

그이께선 압박받는 세계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나니

오 그이는 위대하여라

그이의 사상은 **김일성** 주의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르네

주체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전진하시기를 축원하네

우리는 소리높이 부르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그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구현자

(필자는 짐바브웨종합대학 박사)



#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대백과전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발표 10 뉘에 즈음하여-

김하명

오늘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 년대속창조》 창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비서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발표 10 뉘을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과 인민들의 크나큰 경사로 일대 력사적사건으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영화예술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참다운 면모와 그 창작의 근본원리 및 방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힌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문학예술건설강령이며 불멸의 기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성격과 사명에서 그리고 그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기초에서 선행한 그 어떤 문학예술과도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더우기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새로운 문예사상과 리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로작은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나갈데 대한 기본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적문헌으로, 대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총서로 되고있다.

## 1

**《영화예술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예술건설의 대백과전서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영

화를 비롯하여 모든 예술형태들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문학의 본성과 그 창작의 기본원리와 방도, 이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로작의 **《생활과 문학》** 편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의 인간학적본성과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으로 체계화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공산주의사회건설에서 지니고있는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옳게 인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은 본성에 있어서 인간학이다. 바로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는것이다.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새로운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는 새로운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로작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산주의 문학예술, 새로운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만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시대의 인간문제를 진정한 인간학의 경지에서 옳바르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

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것을 말하며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이렇게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가 선 우리 시대의 참다운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야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문학에서는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을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문학작품에서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며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전형을 내세우는것이 그의 기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었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며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내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적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기들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한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것만큼 작가들은 창작에서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며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작품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으며 우리시대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과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는 혁명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로작에서는 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리는 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였다.

로작에서는 다음으로 문학이 산 인간과 그 생활을 잘 그려야 참다운 인간학이 된다는것을 밝히고 공산주의인간학의 형상방도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인간을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하게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리며 그들의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세부화하여 그리면서 언제나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는데 초점을 주며 오늘의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내야 한다는것이 로작에서 밝힌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내용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이처럼 력사상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과 참다운 면모, 그 형상화의 근본원리와 방도를 독창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

한 리론을 밝혀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의 《생활과 문학》 편에서는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 작용하는 그 원리의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고있으며 종자리론을 핵으로 하여 주체의 창작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로작의 이 부분에서는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의 본질과 기능, 창작에서 그것을 옳게 끌라잡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방도를 체계정연하게 밝혀주고 있다.

종자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형성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종자라는것을 밝히고 그 종자의 예술적 실현을 통하여 문학을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과학적방법론을 준 독창적인 리론이다.

이 로작에서 고전적으로 정식화하고있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이와 같이 예술적형상의 꽃을 피울수 있는 기본요소들을 자체내에 지니고 인간관계의 설정과 줄거리의 전개를 규제하며 생활의 탐구와 성격의 전형화에도 추동하는 작품의 기본핵이다.

작품이 훌륭하게 되자면 반드시 똑똑한 종자가 있어야 하고 그 종자로부터 이야기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어야 하며 그속에서 주제가 영글고 사상이 배겨야 한다. 이것이 비로 종자리론이 밝혀주는 작품의 생리이다.

그리하여 창작가가 종자를 바로 잡아쥐는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첫공정으로 되며 작품의 사상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조건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종자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의 생리에 맞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형상들을 거기에 복종시킴으로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게 되었다.

로작의 《생활과 문학》 편에서는 이와 함께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데 대한 리론,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리론, 혁명투쟁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릴데 대한 리론, 규모모씨가 아니라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의하여 대작을 만들데 대한 리론, 구성의 대를 바로세울데 대한 리론, 갈등을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데 대한 리론, 매 장면에 극이 있도록 극조직을 바로할데 대한 리론,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내는

원칙에서 줄거리조직을 생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할데 대한 리론, 그리고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를 쓰는 문제, 양상을 잘 살리는 문제, 문학예술창작의 본성적요구로 되는 독창성을 발휘할데 대한 문제 등 종자를 바로잡고 예술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힘으로써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성과 작품의 생리적과정에 맞게 창작사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리론들은 하나같이 형상의 모든 요소들과 창작의 모든 공정을 골라잡은 종자를 살리며 그 문학이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는데 북돋우기도록 지향되어있다.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푸는것은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로작에서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태도는 무엇보다먼저 생활에서 어떤 종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어떻게 형상으로 잘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런데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주제를 옹게 풀어야 한다.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이다.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작가는 종자를 잡아쥐었을 때 벌써 자기가 말하려고하는 기본문제를 확정하게 되며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하는것은 모든 인간문제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언제나 사회적성격을 띠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작품의 사상성을 강화할수 있을뿐아니라 예술성을 높일수 있다.

예술성은 일정한 사상적내용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그려내는 형상수준과 관련되는것만큼 의의 있고 뚜렷한 사상적내용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푸는것은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하며 작품에서 제기하는 인간문제를 옹게 밝혀내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서는 주요한 사상미학적요구이다.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나 혁명투쟁과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들도 결국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이 되게 하며 종자를 꽃피워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미학적요구이다.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은 우리 시대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의 기본과업을 문학예술에서 옹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그것은 새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산주의미래의 인간본보기로 되고있는 노동계급을 기본으로 내세우며 혁명가로 자라나는 보통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 때 그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의 혁명적교양에 더 잘 이바지할수있기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 바로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기도 하다.

생활이 있고서야 예술이 있는 법이다. 문학예술은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야만 사람들에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옹게 인식시킬수 있으며 높은 형상속에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절실한 문제를 밝혀내어 참다운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다.

로작에서는 주체의 관점에서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리기 위한 사실주의적요소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예술에서 의의있는 생활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의 투쟁속에서 생활을 찾고 그것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혁명적교양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대작의 본질적특징을 원리적으로 밝혀주는것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작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대작의 본질적특징은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중요한 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심도있게 풀어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큰 도움을 주는 작품이 바로 대작이다.

그러므로 대작을 창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는것이다.

로작에서는 작가는 종자의 요구와 생활소재의 특성에 따라 오랜시기에 걸치는 력사적사건을 줄거리로 하여 방대한 생활내용을 담은 다부작형식의 대작을 쓸수도 있고 투쟁의 한 단면을 가지고 쓸수도 있으나 대작의 규모와 형식은 언제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는것을 밝히었다.

대작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하며 인물들의 성격장성과정 특히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통하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밝혀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라야 대작은 사람들의 혁명적교양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다음으로 구성리론도 종자의 예술적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화에서는 구성을 똑바로 세워야 사상적내용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할수 있고 생활을 진

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이처럼 구성은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다. 작가가 현실속에서 아무리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알맞는 구성을 세우지 못하면 작품의 사상을 명백하게 드러낼수 없다.

로작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의 구성은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의 요구에 맞게 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힌 구성리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영화의 구성이 단순히 사건조작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감정조작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로작에서는 《영화와 연출》편에서도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것을 밝히면서 감정조직을 말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다.

예술에서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 필수적요구로 제기되는것은 인간의 감정을 떠나서는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기때문이며 또한 사상이 정서와 결합되는것은 예술형상의 본질적특성을 이루어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보는바와 같이 이 강령적로작에서는 구성을 바로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와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밝힘으로써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명백하고 깊이있게 전개하며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여줄수 있는 사실주의적형상화의 가장 옳은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당의 이 강령적로작에서는 갈등문제에 대해서도 문학의 인간학적본성과 변천된 사회주의현실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해명을 주었다.

문학예술창작에서의 갈등문제는 역사적으로 논의의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실천에서나 작품분석에서나 매우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생각되어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갈등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어야 한다는 명제를 내놓으시고 그 근거와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예술의 갈등은 생활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생활에서 보게 되는 서로 상반되는 계급적립장과 사상의 대립과 투쟁이 예술적갈등의 기초로 된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혁명투쟁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한것만큼 계급투쟁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

하여 반영하는 예술적갈등도 다양하지 않을수 없다.

로작에서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그 형식과 전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갈등문제를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정치성있게 푸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서 출발하여 로작에서는 창작실천에서 중요한 미학상문제로 나서고있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에서 갈등문제를 옳게 풀기 위한 근본방도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현실에서 보게 되는 공부정의 관계도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풀어야 한다.

사회주의현실에서 보게 되는 공부정의 관계는 비적대적갈등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넓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도 사회주의사상과 자본주의사상간의 심각한 계급투쟁인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풀어야 하는것이다.

로작에서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는 종자와 소재에 따라 긍정적사실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고 그 근거와 형상방도의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하였다.

실로 로작에서 밝힌 갈등을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데 대한 리론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혁명투쟁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뚜렷이 보여줄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 2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대백과전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문학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예술의 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로작은 《영화와 연출》, 《성격과 배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편들에서 영화문학에 기초하여 영화적형상을 창조하는데 참가하는 매개 부문예술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그 형상적과제와 실현방도를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영화예술의 형태상특성은 움직이는 화면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구체적이며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는 직관예술이라는데 있다.

관중은 영화화면을 통하여 다양한 성격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의 복잡하고 풍부한 내용을 눈앞에서 현실 그것처럼 볼수 있으며 인물들의 말과 노래소리, 비오고 바람불어 기체가 돌아가고

총포탄이 날아가 터지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영화적형상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연출가, 배우, 촬영가, 미술가, 음악가 등 각이한 부문의 예술가들이 참가하여 각각 자기의 형상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영화적형상의 창조에 참가하는 대개 부문예술의 특성과 임무, 그 예술가들이 자기의 예술적재능과 창조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여나갈수 있는 근본방도를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고전적로작은 우선 《영화와 연출》편에서 연출가를 창작단의 사령관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연출체계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혁명적영화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연출 원리와 방법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 연출가는 예술창조사업과 제작조직사업, 사상교양사업을 다 같이 틀어쥐고 창작단의 모든 성원들을 영화창작으로 이끌어나가는 사령관이다.》**

영화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문학을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게 하는것과 함께 영화창작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하며 여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연출분야에서 낡은 틀을 철저히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체제와 방법을 세우는것이다. 그것은 영화창작에서 중심을 이루는 연출예술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되며 지난 시기 연출예술의 체제와 방법에 자본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연출가를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과 자본가의 돈주머니에 매여있는 한갓 직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가부장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자본주의 영화체제를 철저히 배격하시고 영화창작뿐아니라 창조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책임지는 창작단의 사령관으로 규정하시으로써 당과 인민앞에 영화를 책임진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참다운 예술가로 내세워주시었다.

연출가를 창작단의 사령관으로 규정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연출이론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그것이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제도의 본성에 맞는것으로서 영화창조에 참가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그들의 창작을 사상예술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영화적형상의 창조에로 조

화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배우예술의 기초이며 출발점으로 되는 기본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영화창조에서 배우를 인간성격의 직접적이며 자립적인 창조자로, 화면과 관중사이의 산 련계를 실현하고 작품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로 규정하시었다.

배우예술이 력사적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론쟁을 거듭해온것의 하나는 창작에서 배우를 어떤 위치에 세우며 배우의 사상의식과 자연적조건에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보며 인물과 배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이였다.

력사적사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가 갈라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배우예술에서는 연기자의 자연적조건보다 그의 사상의식이 더 중요하며 인물형상을 창조하는 데서도 배우의 세계관이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사실주의적인 배우예술에서는 배우의 사상의식보다 그의 자연적조건을 더 내세우고 인물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배우의 세계관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거부하고있다.》**

지난날 각종 반사실주의적예술류파들은 이러저러한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결국 배우를 하나의 형상도로 보며 배우의 창조를 한갓 배우의 자연적조건에 의한 맹목적인 활동으로 보는데 귀착되였다. 그리고 배우와 인물과의 관계문제에 대해서도 반사실주의예술에서는 배우가 인물의 겉모습이나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형식주의와 인물의 생활과 성격과는 관계없이 배우자신의 자연적조건에만 인물을 복종시키는 자연주의가 판을 쳤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는 인물형상을 창조하는 원리로 보나, 배우예술의 요구로 보나 배우가 자신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물의 형상을 창조해나가는것은 당연할뿐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 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밝히였으며 사실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인물을 형상하는데서 배우의 세계관이 노는 역할을 무시하는 이러저러한 류파들의 그릇된 주장의 부당성도 예리하게 분석비판하였다.

우리 당은 촬영예술과 영화미술, 영화음악에 관한 문제들도 그것들이 한결같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미감에 맞게 형상하며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뚜렷이 밝혀내는데 복종되도록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주었다.

영화적형상의 창조에서 촬영예술의 기능과 역

할은 생동한 움직임속에서 인간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화면에 옮기는것이다.

영화문학에 의하여 규정되는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은 연출가의 구상에 따르는 배우연기를 통하여 형상되지만 그것은 화면에 옮겨질 때에라야 비로소 영화로 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는 촬영예술이 움직이는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있는 대상도 운동감이 나게 보여주어야 하며 대상의 움직임과 촬영기의 움직임을 결합하여 하나의 영화적움직임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촬영예술이 가지는 사실주의적본질이 있다.

로작에서는 영화미술의 본질과 기능이 분장, 의상, 소도구, 장치와 같은 여러가지 형식들을 통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시대를 뚜렷하게 특징지으며 생활의 복잡한 정형을 종합적으로 그려내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그것을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혁명적영화예술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하였다.

영화에서 뚜렷한 영상으로 살이 움직이는 생동한 화면들은 촬영과 함께 미술의 도움으로 얻어진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이나 옷차림, 현실에서 보는것과 같은 거리풍경 등이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의 실현에 어울리는 진실한것으로 되게 하는것은 모두 영화미술의 형상적 기능이다.

영화미술의 이러한 형성적기능은 그것이 철두철미 사실주의적원칙에 의하여 창조될것을 요구하며 또 어디까지나 영화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특성, 기술적조건에 복종되며 인민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게 형상될것을 요구하게 된다.

분장은 인물의 성격을 진실하고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가능성을 연기자에게 지여주는 고상한 예술이며 의상과 소도구를 만들어내는 영화미술은 배우가 형상하는 인물의 성격을 조형적으로 살려내는 정교한 예술이며 장치물은 인물들이 사는 시대와 생활환경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내는 미술이다. 우리 당은 이렇게 영화미술의 주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분장, 의상과 소도구, 장치물들이 다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과 형상적기능을 가진 고상한 예술로 되게 하는 미학적원칙과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체적영화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실현하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영화에서 음악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더욱 생동하게 둔구어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며 또한 시대와 사회제도의 본질,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는데서도 큰 역할을 논다.

로작에서는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

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고 높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어 울리는것이 훌륭한 음악과 노래의 특징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였으며 음악형상의 사상예술적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 되는 선율을 특색이 있게 창조하는 문제,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한 좋은 가사의 창작을 실행시킬데 대한 문제, 영화의 장면에 맞게 음악을 쓸데 대한 문제, 음악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편곡을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화예술론》은 이렇게 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영화예술창조의 합법칙적과정과 형상방도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연출예술로부터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술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

### 3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대백과전서로 되는것은 또한 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작가, 예술인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되는 공산주의문학예술의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어나가는 당적지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고전적로작의 《예술과 창작》편에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는 문학예술과 창작가와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로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미학적준비와 창작원칙에 관한 문제를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 작가, 예술인들을 높은 정치식직견과 예술적기량,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창조의 능수로 되게 할데 대한 방침,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곧바른 길을 열어주시였다.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높은 예술적기량의 소유자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작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객관세계와 인식, 인식과 실천의 변증법적관계를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 이러한 관계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것을 힘있게 증증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가도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자기가 아는것만큼 표현한다. 예술가가 얼마나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알고있는가 하는것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다.》**

로작에서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어떤 작품이든지 거기에는 예술가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이 그대로 반영된다. 문학예술작품에 반영된 모든것은 예술가의 사상예술적수준에 의하여 분석평가된것이며 작품의 형식도 예술가에 의하여 내용의 요구에 맞게 창조된것이다.

바로 이로부터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그 창조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에예술적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선차적요구로 나서게 되는것이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먼저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하며 높은 예술적기량을 갖추고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창조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로작은 예술가의 준비정도와 창작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생명과 예술가로서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말로써가 아니라 작품창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정치적신임을 받을뿐아니라 기술적신임도 받을수 있도록 높은 정치적식견과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예술적기량을 갖추게 될 때 어떠한 창작과업도 원만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실로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며 문학예술의 사상에 예술적 수준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예술과 창작》**권에서는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속도전의 본질과 요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선결조건과 방도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당사상사업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인 창작원칙이며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이다.

속도전은 바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온갖 침체와 담보를 불사르고 전진, 전진투쟁, 전진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것을 요구하는 계속혁명사상은 구현하고있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문학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제때에 옳은 해답을 주며 그 전투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정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해명하고 그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정도리론을 전개하고있는 **《창작과 지도》**편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결정적담보라는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서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제도 및 문학예술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창작지도체계, 창작지도방법, 창작총화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시였다.

로작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정도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작지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적문학예술창조사업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당의 지도밑에 문학예술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서 혁명적근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새로운 창작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7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새롭게 건설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혁명적영화예술창작의 근본원리와 형상방도,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에 대하여 체계정연하게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새롭게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총서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이시며 비서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신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며 인류문예사에 대서특필할 일대경사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0 년동안 이를 지침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1970 년대의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70 년대에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학습이 심화되고 이를 지침으로 문학예술혁명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실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창작에서는 료례없는 위대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었다.

종합적인 예술형태인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다른 문학예술분야에 일반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먼저 영화혁명이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 영화예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영화혁명에 뒤이어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문학예술혁명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를속에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관점이 극복되고 주체가 튼튼히 서게 됨으로써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모든 종류와 형태의 작품창작에서도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대전성기를 자랑하는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인간의 위대성과 존엄을 자랑차게 노래하고 생활의 진리와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며 자주적인간의 보람찬 삶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교양적힘으로 하여, 그 혁명적인 내용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민족적형식에 담은 더없이 고상한 예술적품위로 하여 싸우는 전세계인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는 공산주의 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이 이 모든 빛나는 창조적성과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 담겨진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내용들을 더욱 깊이 연구학습하여 그를 문예리론활동과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우리의 전체 작가, 예술인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가장 큰 영예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문예강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참다운 담당자라는 높은 궁지와 영예를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 해와 별 빛나라 나의 평양

송찬웅

금수산의 밝은 해빛 여기서 흘러가고  
남산의 찬란한 별빛 여기서 퍼져가네  
해와 별 빛나라 영광의 수도여  
사랑하는 조국의 심장아 나의 평양

너를 떠나 멀리 가도 만수대 솟아오고  
이 하늘 한끝에서도 룡남산 안겨오네

해와 별 빛나라 혁명의 수도여  
유서깊은 요람의 도시 아 나의 평양

해빛만리 별빛만리 누리에 비쳐가니  
은혜론 네 품을 찾아 온 세상 달려오네  
해와 별 빛나라 주체의 수도여  
번영하는 자주적 성새 아 나의 평양



련시

## 우리 수령님

누리에 온갖 꽃 피여  
화창한 4월의 봄날  
축원의 꽃바구니 엮어들고  
아버이수령님 우러르는 마음

오로지 인민을 위해 헤쳐오신  
불멸의 자옥자옥  
사랑의 자옥자옥  
로고많은 한평생을 더듬으며

뜨거움에 젖은 우리 인민

친근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만민이 안겨사는 태양의 품  
위대한 수령님께  
고르고고른 축원의 천만송이  
다듬고다듬은 영광의 천만송이를  
노래에 담아 인민은 삼가 드리노라

## 언제나 함께 계시며

김석주

이른새벽 버릇처럼  
창가에 조용히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이 아침에도  
우리 수령님  
여느날 다름없이  
그 어디 새벽길우에 계시리

낮익은 그 농립모를 쓰시고  
따스한 비닐박막속에서  
들판을 그리는 강냉이싹들의  
애된 꿈을 지켜주시는  
어느 발머리

허물없이 한식술이 되신듯  
마주앉으신 농장원과  
그 무슨 다정한 이야기로  
서로 웃으시기도 하시며

수수하고 소탈하신 모습  
그 어느 구내길에서  
그 어느 촌 길센에서  
이른새벽 안개낀 부두가에서

소문없이 오신 그이를  
문득 만나뵈울수 있어

누구나 뵈오면  
허물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달려가 안기며  
아버이앞에서처럼  
홍금을 다 털어놓게 되는 분  
우리 다는 몰라라  
한낮에 또 해저무는 저녁에  
우리 수령님 그 어디에 계시고  
그 어떤 행복을 마련하고계시는지  
그 봄날처럼

보통의자가 놓인 공원  
저마다 옷센에도 매여달리고  
무릎에 어깨에 기여오르며  
그이의 모자를 쓰고 좋아하는  
유치원아이들속에서  
만시름 놓으시고 기쁘게 웃으실수 있으리

그대와 나 우리모두와 다름없이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우리와 다름없이  
토장국의 구수한 맛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조밥을 먹을 때 조밥을 드시며  
생사와 교락을 함께 하시었나니

인민처럼 소박하시고  
인민처럼 평범하시여라  
이 땅우에 살았고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겸허하시고 친근하신  
그이는 가장 인민적인 위대한 인간

아, 인민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우리 수령님  
우리 아버지  
인민의 아픔 백배로 느끼시고  
인민의 행복 천배로 안으시며  
생각하시고 피로와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언제나 인민속에 계시나니

오늘도 함께 계시리  
밭머리에서 기대앞에서  
허물없이 주고받으시는  
소박한 인민의 말에서  
위대한 기적과 창조를 구상하시고  
크나큰 사랑과 행복을 마련하시는  
인민의 수령

이 저녁에도  
이름없는 길가  
한그루 가로수에 등을 기대앉으시고  
로인과 담배불을 나누실수도

아니면 용해공들을 보시고싶으시여  
아니면 나 어린 분조장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여  
몇백리 먼길을 가실수도 있으리  
한평생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인민을 찾으시여...

## 설맞이의 밤

구희철

은혜로운 사랑이  
밝은 불빛으로  
행복의 노래로 흐르는  
아버이수령님 모신  
설맞이의 밤

꽃다발을 안고 달려온  
어린 소녀를 높이 추켜올리며  
환히 웃으시는  
아버이수령님

항일의 간고한 나날  
수령님 모시고 싸워온 투사도  
토지개혁의 밭머리에서  
수령님을 처음 뵈왔던 농민도  
환희의 꽃물결속에  
우러러 목메이는데

밝게 웃는  
어린 소녀를 안으시고  
마주 웃으시는 수령님

불 밝은 창문가엔  
부러운듯 날아내리는  
함박눈 송이송이 ...

사랑만을 안겨주신  
그 고마움에 젖어  
아버이품에 안긴 어린 소녀는  
수령님 얼굴에 불을 부비고  
그 고운 손으로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것인가

그가 어떻게 알수 있으랴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를  
꽃눈이라 부르며 자랐으니  
아버이수령님 저 웃으시는 얼굴에  
기나긴 70여성상  
세월의 눈비가 다 스쳐지날것을...

한평생 그 어느 순간도  
따뜻한 별아래 머무름 모르시고  
인민의 머리우에 내리는

엄혹한 시련의 눈비  
한몸으로 다 가려주신것을...

우리 수령님  
피어린 그 자욱자욱  
일가분을 잃으신 아픔도  
그 길우에 쌓인 그 많은 시련도  
한가슴에 삭이시며  
인민이 누릴 행복과 바꾸셨으니  
한평생 겪으신 고생이  
우리 가슴에  
이처럼 아프게 자리잡아라

고난의 20 성상  
군복자락에 녹을줄 모르던  
그날의 눈인가  
백두산은 만리에 눈발 날리며  
고난의 천만사연 다 말하고

눈내리는 강선의 구내길  
만톤의 강재가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 하시던  
그날의 수령님 목소리  
나라가 허리 편 오늘에도  
마음속에 녹지 않는 그날의 눈발속에  
뜨겁게 울려오고

만퉁년의 농악소리 뒤에 두시고  
다음해 농사차비 걱정하시며  
진눈까비 내리는 산간의 작은 역에서  
북행렬차에 수령님 다시 오르실 때  
목메여 바래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것이 맺혔거니

우리 수령님  
혁명의 위기를 헤치신  
그 모든 날과 날들은  
불비로 쏟아지는 총탄을 헤치시던  
혈전의 나날이 아니었더냐

우리 수령님  
인민을 안으시고  
준엄한 난국을 헤치신  
그 모든 길과 길들은  
피로 열리고 목숨으로 이어진  
설원만리 백두의 령길이 아니었더냐

오, 수령님 한평생 맞으신 눈비  
우리 살아오며 맞은  
그런 눈비가 아니었구나

수령님 한평생 겪으신 고생  
우리 살아 한생 겪어온  
그런 고생이 아니었구나

세월의 모진 풍설이  
력력하신 그 모습  
어린것이 안기여 쓰다듬는  
어버이수령님 모습을  
감격에 목메여 우러르며  
조용히 아뢰이는 투사의 마음이어

-장군님!  
산에서 싸우신 흔적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았는데  
오늘도 현지도의 길에 눈을 맞으시고  
설맞이모임에 오시여 웃으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 한평생의 그 길이  
오늘로 오는 끝은길이였고  
때로는 십리길도  
몇백만리처럼 넘어오시였기에  
이처럼 가슴뜨거이  
수령님을 생각하는것이여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겪을수 없고  
인간이 힘으로 견딜수 없는  
그런 험악한 시련을 다 헤치시고  
그런 마음고생을 다 삭이시며 오신  
우리 수령님

눈이어 눈비여  
우리 수령님 한평생 고생을  
네가 다 말하여주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수령님 생각는 인민의 마음속에  
추워도 더워도 너는 뜨겁게 간직된것인가

한없는 감격을 안고  
눈물에 젖은 마음들  
수령님 우러러 모시고  
부르는 만세의 환호성  
그칠줄 모르는 설맞이의 밤

아, 세월의 찬눈 찬비 다 맞으시며  
오늘의 행복을 안아오신  
자애로운 어버이품에 안기여  
한껏 웃음짓는 소녀의 얼굴에  
행복한 조선이 웃고있어라

# 보통날에

변홍영

동넙창에 비쳐드는  
새날의 햇빛  
마당가 미루나무가지에  
까치가 유난스레 우짖는  
이른아침

문득 문밖에 울리는  
우렁우렁한 목소리  
귀에 익고 가슴에 젖어있어  
한없이 정다운 그 음성

이 어인 일이신가  
수령님께서 보시다니  
방금 당보에서  
서해기슭 들길에 계시는  
그 영상 보였는데

꿈속인듯 문을 열고 들어서시는  
자애로운 모습  
놀랍고도 반가움에  
할머니는 엎어질듯 달려갔네

만면에 환한 웃음 지으시며  
할머니의 두손을 잡으신 수령님  
오늘이 어머님 생일이 아닌가고  
그래서 간밤에 돌아오셨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남기실제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침에 문득  
수령님 오신 뜻을 아신 할머니  
눈물에 젖은 얼굴을  
그품에 묻고말았네

이런 날 좋은 날  
찾아보지 못하시던  
먼저 간 자식들 생각으로  
할머니 마음속에 그늘이 질가봐  
그리도 먼길을 달려오시고  
혁명전에 쓰러진  
아들딸 머느리  
그 어느 하나라도  
할머니앞에 세주지 못하시는것이

그도 가슴아프시여  
그 자식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우리 수령님

못내 잊지 못하시여  
먼 적후로  
할머니의 그 아들을 바래우시던  
백두밀영의 새벽을  
어제런듯 회상도 하시고

생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사령부를 우려했다  
눈가에 밝은 미소를 담고 간  
사랑하는 전사의 그 충성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이 그 마음

아, 그 마음이  
사랑의 달이 되고 해가 되어  
할머니도 보람높은 삶을 누려온  
근거지의 지붕밑에  
락원의 이 창가에  
세월은 몇몇해 흘렀더니

충을 들고 집을 떠나  
살아생전에  
아들이 다하지 못한 효성을  
전사앞에 지니신  
평생의 의무로 삼으시고  
오늘도 대신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이 하루도 수령님께선  
렬사의 어머니와  
다정한 한식술이 되신듯  
밝게 웃으시기도 하시고  
돌아보신 농촌이야기도 들려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나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채  
맞고 보낼수도 있는  
이 보통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전설이  
태어나는것이냐

아, 혁명이 동트는 하늘밑에서 시작되어  
 끝없는 행복이 굽이치는 이날까지  
 다름없으신 그 사랑  
 세대와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 누구나 그 품에 살고있구나

수령과 전사  
 전사와 수령  
 혁명의 길에서 맺어진  
 숭고한 그 의리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노래로 흘러라

## 세월은 흘러도

윤두만

버들숲에 묻힌  
 작은 마을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그렇듯 수수한 농촌마을

해비치는 창가마다  
 행복은 흐르고  
 나락이 설레는 들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낱알냄새

보여오는 그 모든것  
 수수한 저 동구길  
 몇잎의 샛자리가 깔린  
 이 작은집  
 세월은 가도  
 우리 수령님 못잊으시는곳

싸움터로 간 남정들을 대신해  
 어깨에 풀을 꼴고  
 보탑을 잡은 너인들이  
 불탄 밭이랑에 다시 씨를 묻던  
 참으로 간고한 나날이었다.

탐조등이 하늘에 엇갈리고  
 폭음이 머리우에 울어도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전선에 더 많은 원호미를 보내자고  
 당원들이 모여앉은  
 그날 그 밤

소문도 없이  
 동구밖 멀리에 차를 멈추시고  
 소박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싶으시여  
 마을 세포총회에 오신 수령님

흔들리는 등불

맨뒤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으시고  
 불같이 울리는  
 당원들의 그 목소리에  
 그이는 귀를 기울이기도 하시고

기총탄을 퍼붓는 한낮에도  
 밭이랑우에서  
 보탑을 놓지 않던 그 손으로  
 한 너인은 풍금을 타고  
 둘러선 너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수령님께선 그 노래를 뜨거이 들으시고

소박한 그 목소리  
 힘에 넘친 그 노래  
 어려운 날에  
 피로움도  
 가슴아픈 사연도  
 한가슴에 감추며 묻어두며  
 그 모든 시련을 이겨가는 사람들

기나긴 한평생  
 우리 수령님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잊지 못할 고장도 많으시련만  
 것처럼 못잊으시는 고장  
 못잊으시는 사람들

세월은 흘러  
 그날부터 멀리 흘러갔어도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다고  
 인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먼저 불러주시여라

그러하더라  
 우리 수령님  
 인민을 먼저 믿으시기에  
 전후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락원의 한 녀성당원이 올리던 그 말도  
우리는 수령님만을 믿는다는  
소박한 태성할머니의 그 말도  
어려운 날에 큰 힘이 되었다고  
어느때나 잊지 못하시고 자주 외우시는  
크나큰 믿음이어

어려운 날에  
인민을 믿고  
어려운 날에  
수령을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었기에

우리 수령님

세월이 가도 못잊으시고  
세월은 잊어도  
우리 수령님만은  
그날의 그들을 못잊으시여라

아, 수령님 오시였던  
그날의 저 동구길은  
수령과 인민을 하나로 이으며  
오늘도 이 땅우에 뻗어있고  
그날의 저 작은집은  
수령님과 인민이 믿음으로 오고가던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변함없이 서있어라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 크나큰 품

박세옥

일월이 시작되는  
저 하늘과 같아라  
만물을 키우는  
저 대지와 같아라

그이의 품은  
하늘과도 같아  
억만의 별들이 하늘의 품에 빛나듯  
그 품에 안긴 삶은 빛나고

그이의 품은  
대지와도 같아  
억만의 꽃들이 대지의 품에 만발하듯  
그 품에 안긴 삶은 만발하여라

넓고넓은 그 품에  
안기지 못하는것 없고  
은혜로운 그 품에  
피지 못하는 꽃에 없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태양과도 같이

이 세상을 다 안으신분

태양의 빛발이 만물을 비치듯이  
태양의 품에 만물이 다 안기듯이  
만민의 가슴에 빛을 주고  
만민이 다 안기는 그런분

만민의 힘은 한이 없어도  
만민이 자기의 세계를  
이 지구우에 들어올리기 위해선  
이 세상 모든 힘을 모아야 했거니

그이는  
너그러우신 그 포용력과  
그 크신 도량으로  
세계를 움직이시여라

인간중의 인간이시고  
크나큰 심장을 지니신  
그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것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분

사태와 굴종에 굳어진  
민족주의자들의 그 가슴에도  
고목에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랑으로  
참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한생 《반공》을 신념으로 삼으며  
얼어붙었던 그들의 심장도  
부드러운 손길로 따뜻이 녹여  
참된 인생의 봄을 안겨주시거니

그이는  
흠어진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크나큰 지구의 지축을  
인민을 위해 바로 세우신분

그이는  
인민을 버리였던  
어제날의 세계를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  
인민의 세계를 펼치신분

수천년 천만가지  
주의주장에 얹히고  
반목과 질시로  
수천년 얼어붙었던  
혼돈의 세계우에

인간이 바라고  
세계가 원하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락원을 안으시고 솟아오르신 이

한뉘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저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에게 기원하던 사람들도  
그이께 운명을 맡기고  
그이만을 따르고 믿어라

기나긴 세월  
한생의 소원을 안고  
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끝없는 순례의 발걸음들이  
오늘은 이 땅으로 찾아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만민이 모든것을 다 맡긴 몸  
지구도 우주도 세월도 모두다 맡긴  
그렇듯 크나큰 품

그이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수령  
만민의 태양

## 맺음시

부르고불러도 다함없는 노래  
수령님 처음으로 맞이하던  
그날에 시작된  
인민의 노래

행복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우리 한마음으로  
부르고부른 노래

기나긴 혁명의 성상을 넘어  
4 월의 이 아침을 맞으시는  
수령님 우러러

축원의 노래로 강산에 넘치나니

이 노래 부르며  
이 세상 한끝까지 따르고  
이 노래 부르며  
세월의 한끝까지 모시리라

영광의 노래  
만수축원의 노래  
흐르는 세기와 더불어 영원하리라

## 언제나 한마음

김희봉

### 설화

《가렬한 전쟁은 두해째 계속되고있었다. 전대미문의 파괴가 휩쓴 이 땅에는 재더미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속에서도 우리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키고 생산을 계속하였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적을 낳게 하였는가. 그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드팀없는 신념이었다.》

설화와 함께 미제의 공중비적들의 맹폭격속에서 용선로를 지켜싸우는 10 명당원들의 투쟁모습이 펼쳐진다.

급강하하는 적기, 일어나는 불기둥, 무너져내리는 벽체들...

당원들이 용선로주변에 모래가마니로 방탄벽을 쌓는다.

직장장 근삼이가 무너진 벽체에 올라서서 노동자들을 지휘한다.

너주인공 정순이가 모래가마니를 메고 달린다.

당원들이 뒤따른다.

또다시 급강하하는 적기들.

련속 솟구치는 불기둥, 불기둥...

근삼이가 가마니에 모래를 퍼담는 노동자들에게로 달려온다.

정순이가 모래가마니를 메고 일어선다.

근삼이가 받아메고 용선로쪽으로 돌아서다가 군어진다.

용선로가 적탄을 맞고 부서진다.

근삼이의 어깨에서 모래가마니가 맥없이 떨어진다.

정순이가 파괴된 용선로를 가슴아프게 바라본다.

근삼이가 파괴된 로앞으로 달려간다.

당세포위원장 송관일이 뒤따른다. 그는 근삼이를 부여잡고 절통해한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는 정순의 얼굴우에 영화의 제명이 떠오른다.

### 언제나 한마음

#### 직장휴게실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모여들다.

《왜 갑자기 모이래?》

《소개한다는것 같아.》

웅성거리는 노동자들속을 헤집고 기술부장 안

대식이와 부지배인 병수가 들어온다.

키썰이 장대한 안대식이 앞에 나서서

《다들 자리에 앉읍시다 자. 어서!》하며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을 진정시킨다.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자리를 정돈하고 앉자 병수가 그들에게 말한다.

《동무들, 성에서는 용선로가 파괴된 형편에서 주철직장이구 뭐구 다 소개지루 옮겨가라는겁니다. 그러니 빨리 소개할 준비를 서둘러야겠습시다.》

정순이와 송관일이 뜻밖의 말을 듣고 서로 마주본다.

안대식이 서두른다.

《거 생각할것없이 빨리 설비를 뜯읍시다.》

했건만 노동자들은 선뜻 일어서지 않는다.

《제격 합시다. 자, 빨리!》하는 대식의 재촉에 몇몇 노동자들이 일어선다.

《가만!》

세포위원장 송관일이 그들을 막아나서며 안대식에게 말한다.

《기술부장동무, 우리는 소개지가 건설되는 기간 수류탄생산을 중지하지 말자고 결정하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난관에 몰려앉아야겠소?》

그만 안대식이 마뜩지 않아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힘이 들어두 로를 복구해서 수류탄생산은 계속해야지요.》

《허허... 말이야 쉽지요. 하지만 내화벽돌 한장있소, 멀 천게 있소? 그래, 로를 손바닥으로 쌓겠소?》

잠자코 앉아 듣고만있던 시엽이가 정순이를 돌아보며 대식에게 툭 내준다.

《그래서 직장장동무가 구하러 가지 않았나요.》

안대식이 쓴웃음을 짓는다.

《그런 소린 하지두 마오. 직장장동무야 용선로를 마사먹구 그 체면에 못이겨서 떠나긴 했지만 지금 어데 가서 내화벽돌을 구해온단말이요? 공연히 직장장이 고집하는 바람에 모두가 이 고생을 사서 하지 않소?》

정순이 그 말을 피롭게 듣는다.

번대머리운전사가 자동차부속을 닦으며 정순의 기색을 훑쳐본다.

시엽이가 불부은 소리를 한다.

《직장장동무한테서 소식이 없으니 이렇다저렇



다 주장할수두 없구…》

안타까운 마음 달래며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연다.

《아무래두 제가 가봐야 할가봐요.》

《허허… 동무가 간다고 해결되겠소? 괜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마요.》

안대식의 면박에도 정순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다구 알아보지두 았구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동무가?》

송관일이 흐려지려는 분위기를 조절하며 병수에게 말한다.

《부지배인동무, 직장장동무를 좀 더 기다려봅시다.》

병수가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동요하는 기색을 보인다.

그러자 관일이 무게있게 오금을 박는다.

《그리구 우리가 모두 나서서 내화벽돌을 구해보겠수다.》

《정 그렇다면 다시 제기해봅시다.》

병수의 결단성없는 태도에 안대식이 마뜩잖아 한다.

### 강변길

배낭을 진 정순이가 강변길을 걸어온다. 먼길에 지친듯 땀배인 이마에 흘러내린 한두오리의 머리카락이 찰싹 달라붙었다.

위장을 한 류벌공들이 떼를 몰아가는 모습이 저멀리 보인다.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며 그들을 바라보던 정순은 문득 한곳에 시선을 멈춘다.

멀리 산언덕에 생석회를 굴던 소성로자리가 보인다.

정순이 기대를 가지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간다.

### 파괴된 소성로

둔덕에 오른 정순이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내화벽돌무지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온다.

소성로안에서 내화벽돌이 한장한장 날아나온다.

정순이가 가슴을 울렁거리며 바라본다.

이번에는 다 해어진 병어리장갑이 불쑥 날아나오더니 또 내화벽돌이 날아나온다. 정순이 피자육으로 얼룩진 장갑을 들고 보는데 뒤에서 《게 누구요?》 한다. 반사적으로 놀라며 고개를 돌리던 정순이 그만 굳어진다.

내화벽돌을 안은 근삼이가 휘청거리며 나오고 있는것이다.

순간 눈물이 글썽해지는 정순.

《아니, 당신이?!》

《여보!》

근삼이가 반가와하며 달려온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정말 수고했어요.》

《수고야 뭘…》

정순이 마디마디 붕대를 감은 근삼의 손을 보며 속이 좋지 않아하는데 근삼이 정순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들며 우정 밝게 웃는다.

《먼길을 오느라고 고생했소.》

정순이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마주 웃는다.

《전 당신이 내화벽돌을 못구했을가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

《야, 많이두 구해왔군요. 저… 그런데 우리 정식인 어데 갔어요?》

《떼 무을 나무 구하러 갔소.》

《어마나. 떼를 무어요?》

《물길로 가야 하니까.》

《그래요?》

《내화벽돌을 빨리 운반해야 로두 살리구 수류탄두 생산하지.》

그들은 함께 산언덕을 내려온다.

### 길

위장한 자동차가 달린다.

운전칸에서 뺨뺨마른 안경쟁이가 번대머리운전사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며 지껄인다.

《형님, 아 그렇게 폭격을 들이냈는데두 끝내 소개를 안한단말이요?》

《흥. 폭탄만 아깝게 됐지. 선너바위쪽으로 좀 돌아가자구.》

《거긴 왜요?》

《직장장이란놈이 내화벽돌을 구해왔다는데 수고를 했다구 인사를 전해야지.》

《예?》

《빨갱이들이란 그저 숨통을 끊어놔야 용을 못쓴단말이야.》

《예에- 알겠수다.》

번대머리는 살기를 띠고 차머리를 돌린다.

### 강변

맑은 물에 비낀 정순의 고운 얼굴, 정순이가 땀배인 근삼의 적삼을 빨래하고있다.

방치질소리에 놀란 물오리들이 젖빛안개를 헤치며 날아오른다.

결에 앉았던 근삼이가 주머니에서 편지한장을 꺼내들며 입을 연다.

《참. 근혁이한테서 편지가 왔더군. 우리두 다 소개해온줄 알구말이요.》

《아니, 철육이 삼촌이요?》

정순이가 비누물은 손으로 편지를 쥐려는것을 근삼이가 웃으며 막는다.

《이따 보오. 이걸 보면 우리가 수류탄생산을 중단하지 말자고 한게 백번 옳았다는것을 알게 되오. 근혁이네가 싸우는 고지에 장군님께서 오

셨답니다.》

《아니 장군님께서요?》

정순이 자못 놀라는데 근삼이 먼 산발너머 전선쪽을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고지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전호에 수류탄이 얼마 남지 않은것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며 온나라가 채더미속에 파묻혀있다보니 수류탄도 마음대로 보내주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하시면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수류탄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도록 호소해보시겠다고 하시었다오.》

《그래요?》

정순의 얼굴에 일순 자책의 빛이 어린다.

그의 다감한 마음인듯 아침노을이 붉게 떠오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떼무울 나무 구하러 갔던 정식이가 왔다. 건장 없는 군복차림인 정식은 강가에 근삼이와 나란히 앉은 정순이를 보고 절뚝거리며 달려온다.

《정식아!》

《누님!》

정순이 반기며 마주간다.

《아니, 누님이 어떻게 알구 벌써 왔소?》

《꿈에 네가 와서 알려주더구나.》

《허허... 꿈은 무슨 꿈, 매부가 벽돌을 구해왔구나 나 몰래 먼저 기별을 했겠지.》

하고 정식은 근삼이를 돌아보며 웃는다.

근삼이 마주 웃는다.

《그래, 떼목감은 구했나?》

《예.》

정순이 정식의 부상당한 다리를 보며 모래불에 앉는다.

《난 널 여기루 보내놓구 상처때문에 걱정만 했구나.》

정식이도 퍼더리고앉으며 부상당한 다리를 문지른다.

《에익. 내 그저 부상만 당하지 않았어도 한번 좀...》

《너두 어서 옷을 갈아입어라.》

정순이 배낭에서 속옷을 꺼내주는데 근삼이가 정식의 어깨를 툭 친다.

《정식이가 아픈 다리를 끌구 수꿀 했소.》

《그러잖음 수류탄을 못만들겠는데 보구만 있겠어요?》

정식이가 옷을 갈아입으며 강쪽으로 뛰어간다.

정순이 정식이가 벗어놓은 군복주머니에서 증명서와 수첩 등을 꺼내다가 처녀의 사진이 있는것을 보고 놀란다.

《여보! 이게 누구예요?》

근삼이 사진을 들여다본다.

고중학생복을 입은 처녀의 사진.

정순이 강쪽에 대고 소리친다.

《정식아!》

정식이가 고기를 잡느라고 돌쪼에 손더듬하고

있다.

《줄 가만 있으라요.》

《정식이, 빨리 오라구.》

근삼의 채촉에 고기를 놓쳐내린 정식이가 심드령해하며 다가온다.

《왜 그래요?》

《이게 누구니?》

하며 정순이가 손에 든 사진을 보이자 정식이 기 펴쩍 땀다.

《아니, 그건 언제... 가져오라요.》

정식이 사진을 나눠채려 하자 정순은 근삼에게 사진을 슬쩍 넘겨준다.

처녀의 사진을 쥐고 정식을 끌려주는 근삼.

《정식이가 고운 처녀하구 친했는데...》

《아니예요. 전선에 있을 때 위문편지속에 묻어온걸 하나 건사했던건데 이리 내요.》

정식이 기회를 노려 다시 덮치려 하자 사진은 다시 정순의 손으로 넘어간다.

《처녀가 낮이 익은데?...》

《글쎄, 나두 낮이 익다 했는데...》

《낮은 무슨 낮...》

《웁지!》

근삼이가 무릎을 친다.

《철공소집 딸이로구나?》

《맞았어요.》

이쯤 되자 정식은 쑥스러운듯 뒤머리를 긁으며 돌아앉는다.

근삼이 정식의 팔을 끌어당긴다.

《그래 어느새 친했어? 실토히라구.》

정식이 몸돌바를 몰라하다가

《까짓거, 다 드러난판에 얘기합시다.》 하며 털어놓는다.

《실은 전선중대에 위문편지들이 잔뜩 왔는데 이왕이면 제고장에서 온걸 받고싶더군요. 그렇게 돼서 편지거래를 시작했다가 사진까지 받았는데 부상당하구 와보니 철공소집 딸이 아니겠어요.》

정순이 재미있게 듣다가 묻는다.

《그래, 약속은 했니?》

《아니요. 괜히 누이랑 마음고생 시킬것 같아서...》

《별소릴 다 하는구나. 공장에 나오라구 하지?》

《로동계급은 못돼요. 부러지면 뽕안 눈물이나 흘릴 온실의 꽃같은 처녀데요뭬.》

정식의 말에 근삼이가 한수 더 뜬다.

《온실의 꽃이 싫으면 들판에 옮겨심으면 될게 아닌가. 사랑한다면야 뭐가 두려워서 주저하겠나?》

로동계급두 만들구 국수두 먹읍세! 하하...》

## 들길

떼목이 흐른다.

떼는 달빛이 부서지는 여울을 지나 기암괴석들로 절경을 이룬 협곡을 빠져나가며 수천만개의 은구슬을 뿌린다.

키를 잡은 근삼이가 기슭으로 흐르는 절경을 취한듯 바라본다.

내화벽돌을 불안고앓은 정순이가 근삼에게 나직이 묻는다.

《여보, 정식이가 그걸 다 해낼가요?》

《해내지 않구, 아마 사날후엔 남은 벽돌을 다 모아놓구 기별할게요.》

정순은 때목우에 돌가마를 건다.

미리 준비했던 삭정이를 꺾어 불을 지피고 남비를 올려놓는 정순.

남비속에는 큼직한 메기가 들어있다.

별빛 총총한 하늘에 불연기가 피어오른다.

남비가 끓는다.

정순이 불빛에 근혁의 편지를 읽고있다.

근삼이 남비뚜껑을 열어본다.

《여보, 어죽이 다 됐소.》

정순은 남비뚜껑을 도로 덮는다.

《아직 안됐어요. 급하게두 구네.》

《되젠 오래 끓누만.》

근삼이 구미가 당겨하는것을 보며 웃음짓던 정순이가 조용히 입을 연다.

《이 편지를 보니까 해방되던해 겨울에 장군님께서 공장에 오셨을 때 일이 생각나누만요.》

근삼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고한다.

《그날 장군님께서 왜놈들이 쇠물채 열구어놓고간 숨죽은 로를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다가 아무말씀도 없이 쇠장대루 철기둥만 짱짱 내리치셨지... 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두 얼굴이 뜨거워지군하오. 막상 복구해놓구 보니 아무것두 아닌걸 왜 그때 선뜻 복구할수 있다구 대답을 올리지 못했던지...》

정순이 그 말을 감회깊이 듣는다.

《그런데두 장군님께서 그 이듬해에 모범로동자회의에 참가한 나를 그토록 대견해하시며 이 동무가 바로 왜놈들이 마사놓고간 로에서 제일 먼저 쇠물을 뽑은 동무라고... 당은 이런 동무들을 믿구 첫 인민경제계획을 세웠다고 하실 때 난 정말...》

감회깊이 듣고있던 정순이 편지를 집어넣으며 근삼이를 다감하게 바라본다.

《여보! 우리가 그때 첫 인민경제계획을 끝마치고 저 술집으로 야유회 왔던 일이 생각나세요?》

《생각나구말구. 참, 그때두 당신은 어죽을 끓이다가 우리 잔치를 다시 하자는 바람에 저 술집으로 내뒀었겠지? 하하...》

### 선녀바위

번대머리운전사놀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나서 안경쟁이에게 이른다.

《여기서 잘 살피라구.》

《예. 단방에 요정내시우.》

### 여울목

때목이 여울목을 지나간다.

돌가마에 삭정이를 꺾어넣던 정순이가 《땡!》하는 총소리에 와들 놀란다.

근삼이가 총탄을 맞고 가슴을 움켜쥔다. 뜻밖의 사태에 한순간 굳어졌던 정순이가 근삼에게 매어달린다.

《여보!》

암초에 걸린 때가 강심쪽으로 기울어진다.

근삼이는 초인간적인 힘을 다해 기울어지는 때를 바로잡는다.

근삼의 시야에 갈숲에서 총을 겨누는 번대머리놈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순간 근삼은 정순이를 반대편으로 밀친다.

또 한방의 총탄이 근삼의 잔등에 박힌다.

암초에 부딪쳐 흩어진 때짬으로 내화벽돌이 쏟아진다.

근삼은 밀동 잘린 거목처럼 내화벽돌우에 쓰러진다.

《여보!》

정순이 피타게 부르짖는다.

번대머리놈이 선녀바위뒤로 꼬리를 감추는 때를 바라보며 씨벌인다.

《직장장이 꺼꾸러졌으니 용선로두 수류탄생산두 네놈들의 뜻대로는 안될게다.》

정적, 강물이 소리없이 흘러간다.

《여보! 여보!-》

부르고 또 불려도 대답없는 근삼.

돌가마우에서 남비만이 사정없이 끓고있다.

정순은 줄지에 백지장이 된 근삼의 얼굴을 지켜보며 억이 막혀 가슴만 쥐어뜯는다.

이윽고 근삼이가 눈을 뜨며 상처에 수건을 가져다대는 정순의 손을 꼭 잡는다.

정순의 얼굴에 한가닥 기적을 바라는 애타는 심정이 비껴있다.

하나 근삼은 최후를 의식하고 안해의 모습을 오래 새겨본다.

《여보, 철옥이가... 철옥이가 보고싶구만.》

울음을 삼키며 정순은 근삼의 손을 꼭 잡는다.

《울지 마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장군님만 반들어모시고 살아가오.》

정순이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끄덕인다. 근삼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여보! 여보!...》

피타게 부르짖는 정순.

때는 쓰러진 남편을 불안고 태질하는 정순이를 실은채 정처없이 흘러간다.

낮추 떠가는 구름장미에서 갈숲이 설레인다.

쫓각난 때가 물결에 흩어진다.

바람에 몸부림치는 나무.

세찬 바람을 맞받아 걸어가는 정순의 모습. 굵히고 피멍이 든 발을 꿇고 그는 갈밭속을 끝없이

걸어간다.

### 공장구내

모습이 전혀 판사람같이 되어버린 정순이가 직장앞으로 걸어온다.

화물자동차 기관을 살피고있던 반대머리놈이 독기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정순이 그결을 지나 직장으로 들어간다. 송풍기며 설비를 뜯다가만 어수선했던 분위기.

송관일리와 원너 등이 정순이를 발견하고 마주온다.

원너가 정순의 손을 부여잡는다.

《반장! 왔구만, 정말 수고를 했구만?》

《수고했네. 그래, 지금 오는길인가?》

반겨맞던 관일리와 당원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찢기고 떨어진 정순의 저고리고름. 피기없는 입술...

정순은 더 서있지 못하고 휴계실로 들어간다. 당원들이 그의 뒤를 따른다.

### 휴계실

휴계실에 들어선 정순은 실성한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는다.

송관일이 다그쳐 묻는다.

《반장! 왜 그러나?》

《.....》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알지?》

초점 잃은 눈으로 한점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순은 겨우 입을 연다.

《철옥이 아버지...》

《근삼이가 어떻게 됐단말인가?》

정순은 품속에 간수하고 온 근삼의 당원증을 꺼낸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바라보는 관일

정순이 흐느끼며 당원증을 내민다.

《철옥 아버지는 내화벽돌을 싣구 오다가 반동놈들의 총에...》

《뭐 반동놈들이?!》

송관일리와 당원들이 억이 막혀 굳어진다.

원너가 주저앉으며 정순과 손을 더듬어잡는다

《철옥 아버지가 잘못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응? 흑흑...》

근삼의 당원증이 당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진다.

파묵한 용하가 울분을 터뜨리며 묻는다.

《어데서 그렇게 됐소, 어데서?!》

《선녀바위, 선녀바위쪽이에요.》

《개놈들이!》

용하가 뛰어나가자 시엽이도 뒤따른다. 송관일이 억이 막혀 근삼의 당원증을 다시 본다.

백마디 말을 대신하여주는 근삼의 피물은 당원증

### 산언덕

아름드리나무가 비분에 몸부림친다.

선녀바위앞에 분묘가 솟아올랐다.

그앞에 그린듯이 앉아있는 정순.

쟁기를 든 관일리와 당원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 정순의 집안

책상우에 놓인 근삼의 사진이 웃고있다.

어린 딸 철옥이를 데리고 그앞에 앉아있는 정순.

관일리가 측은히 지켜보다가 움쭉 일어선다.

《몸조심하라우. 임자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리고는 술상앞에 마주앉은 병수와 안대식에게

《우린 먼저 가겠수다.》 하며 밖으로 나간다.

### 정순의 집앞

용하가 장작을 패고있다.

그 무엇에 화물이라도 하듯 도끼로 세판게 나무를 내리조기는 용하.

관일이 집안에서 나온다.

《용하, 가자구.》

이때 수색을 나갔던 당원이 뛰어온다.

《세포위원장동무, 잤다왔수다.》

《어떻게 됐나?》

토방에 앉아 비분에 울고있던 정식이가 머리를 든다. 당원이 고개를 떨군다.

《직장장동무가 잘못된 선녀바위 아래우를 다 흠어봤는데 중내...》

《그래, 내무원동무들두 다 돌아왔나?》

《아니요, 더 수색을 한다구 남더군요.》

정식이의 눈에 불이 일더니 벌떡 일어선다.

《에익! 개놈의 새끼들을 그저》

관일이 그의 팔을 붙든다.

《정식이, 어델 가려구 그래?》

《내 그놈들을 찾아 요정내구야말겠수다!》

《내무원들이 찾는다질 않나.》

《놓으랴요! 그렇다구 앉아만 있겠어요?》

《정식이, 이사람아!》

용하가 한사코 말리려는것을 관일리가 제지시킨다.

《놔두라구.》

### 집안

철옥이가 어머니를 뻔히 쳐다보다가 묻는다.

《엄마, 아버지 이제 안오나?》

정순은 불쭉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철옥이를 꼭 껴안는다.

병수가 피로운듯 들고있던 술잔을 놓는다.

원너가 소리 안나게 가마를 부시다가 철옥이를 측은히 본다.

병수가 조용히 입을 연다.

《우리가 여기 남자구 한전 근삼이를 믿구 그랬는데 이제야 손맥이 풀려서 어떻게 수류탄을 만들겠나? 정순동무, 근삼이 살불이라곤 철옥이 하나뿐인데 그 엘 데리구 우리 집사람이 가있는 촌으루 가든가 소개지루 먼저 가오. 어차피 다 떠나야할 길인데 그 애마저 잃는다면 누굴 믿구 살겠소?》

대식이 병수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 선다.

《부지배인동무, 갑시다. 어서요!》

《갑시다.》

함께 일어서던 병수가 정순에게 채삼 당부한다.

《만 생각 말구 어서 떠날 차비를 하오.》

정순은 병수가 고마왔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선했 대답할수 없는것이 피로왔다. 병수가 나간 뒤에도 정순은 점도록 그 자리에 앉아있다. 형클어진 마음을 다잡으려고 무진 애 쓰는 정순의 귀전에 근삼의 목소리가 되살아난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하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장군님만 받들어모시고 살아가오.》

### 강기숙

근삼이가 목숨으로 지켜낸 내화벽돌.

지금 송관일리와 당원들이 화불을 켜들고 내화벽돌을 부리운다.

현장에 나온 정순이가 녀인들 틈에 슬며시 끼여든다.

원녀가 그의 손을 부여잡는다.

《반장, 왜 나왔나? 그만두라구.》

《일없어요.》

관일이 그들앞에 벗어선다.

《머칠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구 나오라는데 왜 나왔나? 들어가라구.》

하나 정순은 일손을 놓지 않는다.

《일없다는데두요.》

용하가 성미 그대로 부러 어성을 높인다.

《우리 가슴이 터지는걸 보자구 이려시우?》

정순은 걱정을 삼키며 말한다.

《이러지 마세요. 전 세포동무들 곁에 있는것이 더 좋아요.》

그 말에 관일의 눈곱이 축축히 젖는다.

정순은 폐목우에서 내화벽돌을 한아름 안고 나온다.

뜨거움을 안고 바라보는 당원들.

벽돌을 쌓으며 눈물을 흘리는 원녀.

시엽이가 땅에 주저앉아 가슴을 친다

송관일이 그들을 질책한다.

《울긴 왜들 울어? 주철로동자의 령전엔 눈물이 아니라 쇠물루 불꽃을 피워올려야 해! 자. 일어나라구.》

어둠을 밝히는 화불.

시엽이와 원녀가 눈물을 씻고 일어선다.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내화벽돌을 나르는 관일리와 당원들.

그들의 마음을 담아 노래가 흐른다.

눈비속에 피는 꽃처럼

시련의 길 이겨가리

검은 구름이 앞을 막아도

밝은 해빛 안고 살리

언제나 한마음 당을 따르고

어데서나 하나의 생각

당을 받들어가리

### 주철직장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쓴 프랑카드가 기폭처럼 펴력인다.

로체조립과 내화벽돌 쌓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있는 현장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장을 방불케한다.

물탈을 이기는 정순의 손에 불이 일었다.

원녀가 물지게를 지고 오며 성수가 나서 웨친다.

《자. 물 받으라구.》

어디 갔던 시엽이가 헐썩거리며 달려온다.

《동무들! 반가운 소식이요. 경사요!》

처녀들이 모여든다.

《경사라니요?》

《희한한 소식이다.》

시엽은 벅글벅글 웃으며 정순에게 다가선다.

《반장동무, 철옥이 삼촌이 온대요.》

《네?! 철옥이 삼촌이 오다니요?》

《모범전투원회의에 참가했다 들린대요.》

《그게 정말예요?》

《자 이런... 내 말은 영 끝이들질 않으니...》

정순이 눈에 물기를 담는데 송관일이 흥분해서 말한다.

《아니, 철옥이 삼촌이 모범전투원으루 뽑혀오다니... 이런 경사라구야!...》

《우리 공장의 큰 자랑이웨다.》

《아니. 너희들은 뭇들하고있니? 꽃다발이라두 준비하지 않구...》

관일의 말에 한 처녀가

《알았습니다.》라고 거수경례까지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즐겁게 웃는다.

### 강변

락조가 비낀 강물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세수를 하며 머리를 빗으며 노래부르는 처녀들.

내 고향 언덕에 피는 꽃

누구에게 드릴까

공세우고 돌아오는

병사에게 드리지  
아-그 병사 오면  
고향의 들꽃 안기여주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안기고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리  
아-그 병사 오면  
고향의 들꽃 안기여주리

정순이가 꽃을 꺾는 처녀들을 보며 축을 뜯는다.

여기로 송관일리와 원녀가 다가온다.

《반장!》

《여기 와있었구만. 아니 축은 뭘하려구?》

《철옥이 삼촌이 축떡을 좋아했어요.》

송관일이 정순의 그 마음에 뜨거움을 금치 못한다.

이윽해서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연다.

《아바이, 어쩔가요? 장군님을 만나뵈구 떠나는  
적은이한테 그들을 주어보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 내색을 말자구.》

### 언덕길

앞가슴에 혼장을 가득 단 근혁이가 용하와 나란히 걸어온다.

처녀들이 달려가서 꽃뭉음을 안긴다.

근혁이가 처녀들에게서 받은 꽃뭉음을 용하에게 안겨주고 정순이앞에 마주선다.

《아주머니,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삼촌!》

정순은 착잡한 심정을 안고 근혁이를 맞이한다.

### 정순의 집

근혁이를 맞이하여 세포당원들이 다 모였다.

부엌에서는 정순이와 원녀가 음식을 차리고있다.

정순이가 상우에 떡그릇을 올려놓고 원녀를 방에 떠밀어 올려보낸다.

《이젠 그만하구 올라가시라요.》

이때 뒤늦게 온 시엽이가 불룩한 저고리앞섶을 불안고 들어와서

《철옥인 삼촌이 와서 좋겠다.》

하며 용하곁에 앉더니 감취가지고 온 술병을 슬쩍 보인다.

용하가 관일의 눈치를 본다.

《아니?》

송관일이 모르쇠를 하다가 던지시 말한다.

《내놓으라구. 오늘만은 허락해.》

시엽은 우정 시뻘뻘해하며 큼직한 되병을 상우에 내놓는다.

《난 밤일이 돼서 당초에 입에 대지 않을 생각을 하구 왔수다 원...》

관일이 빈정거린다.

《아이구, 참새가 방아간 그냥 지나가겠다구 할 때두 있구만.》

원녀가 맞장구친다.

《술때문에 혼나서 그러지요.》

당원들이 웃어대자 시엽이가 넉살 좋게 근혁이를 돌아본다.

《근혁이, 내 술때문에 말썽을 자꾸 부리는가 생각하겠는데 사실은 많이 고쳤네. 그저 보름에 한번 먹나마나야.》

당원 2가 익살을 부린다.

《그럼, 사흘에 한번보다야 적지, 적구 말구. 하하...》

정순이도 웃으며 원녀에게 축떡을 올려보낸다.

원녀가 근혁이앞에 축떡접시를 놓는다.

《야, 축떡!》

《자네가 좋아한다구 형수님이 따로 한줄 알구 먹으라구.》

《그래요? 아주머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관일도 한마디 한다.

《반장, 어서 들어오라구.》

《네.》

정순이 떡그릇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온다.

《아니, 왜 들지들 않구...》

원녀가 근혁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말한다.

《철옥이 삼촌은 정말 한이 없었구만?》

《왜요?》

《장군님을 두번씩이나 만나봤으니 말이네.》

《에- 이번에 우리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석단으로 나오시는 건강하신 모습을 뵈구 너무 기뻐서 막 울었습니다.》

관일이 의미있게 머리를 끄덕인다.

《암, 그랬을테지! 그래, 장군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던 미제의 야망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시면서 사기가 저락된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종국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우린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이 오래간다는 소리는 끝이듣지 않겠네.》

《그저 수류탄만 팡팡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건 넘려말게!》

신심에 넘쳐 듣고있던 정순이가 음식을 권한다.

《삼촌 어서 들라구요.》

근혁이가 그림던 정을 안고 마주본다.

시엽이가 앞에 놓인 술병을 보다가 근혁에게 말한다.

《이사람 근혁이! 우릴 만난걸 형을 보구 가는 셈치게.》

《그렇지 않구요.》

《암, 그래야지.》

시엽의 눈썹이 젖어드는것을 보고 송관일이 밑  
막을 심산으로 보시기에 술을 그득 부어준다.

시엽이가 잔을 받아 쪽 들이킨다.

《자, 그럼 난 가보겠네.》

《왜요?》

《밤일이 돼서...》

근혁이 일어서서 시엽이를 배려운다.

《어두운데 조심해가십시오.》

《내 걱정을 말라구.》

《잘 다녀가십시오.》

근혁이 자리에 앉자 송관일이 판이 식을것 같  
아서 한마디 한다.

《아니, 왜 조용들한가? 노래라도 부를것이지.》

《웁수다. 자 한마디 하라구.》

당원 2가 용하를 부추긴다.

용하가 뒤머리를 긁는것을 보고 근혁이도 조른  
다.

《어서 부르십시오.》

《하자구, 이런 기쁜 때 하지 않구 언제 해보겠  
나.》

용하가 석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당원 1, 2가 따라부른다.

정순이 눈에 물기를 닦고 고개를 떨군다. 그를  
측은히 바라보는 관일.

이때 문이 벌럭 열리며 정식이가 들어온다.

《여기선 노래를 부르고있군요.》

정식의 서리찬 목소리에 정순이와 당원들이 일  
시에 굳어진다.

《아니, 정식아!》

정식이 울분을 토한다.

《매부를 땅속에 묻어놓구 노래가 뭇니까. 노래  
가 나오는가말이요?! 예?》

그 말에 근혁이가 굳어진다.

형수를 돌아보는 근혁.

눈에 불이 인 정식은 근혁이가 온것을 보지 못  
한다.

당원들이 조마조마해한다.

《내 묘에 다시 갔다오는길입니다 부르면 당장  
무덤을 차고 일어날것만 같아서요. 흑...》

송관일이 정식을 보며 민망해한다.

마침내 근혁이 정식을 와락 부여잡는다.

《무슨 소리야?! 똑바루 말해!》

그제야 근혁이를 알아본 정식이가 한순간 굳어  
졌다가 그를 와락 끌어안는다.

《근혁아! ...반동놈들이 형님을 쫓는데... 원쑤  
놈들을 잡아낼 생각은 않구 여기선 노래를 부르

구있구나!》

《뭐라구?!》

순간 모든것을 알아차린 근혁이가 세웠던 기관  
단총을 와락 들고 나간다.

아연해서 바라보는 정순이와 당원들.

## 등성

아름드리 로송에 깃들었던 새들이 날아난다.

《어느놈이냐?!...》

근혁이가 허공에 대고 기관단총 한탄창을 다  
푼다.

《형님!-》

관일이와 당원들이 근혁에게로 다가온다.

근혁이가 총을 떨구고 세차게 어깨를 땀다.

관일이 근혁이를 위로한다.

《진정하라구. 자네 형은 당원의 훌륭한 모범으  
루 우리 로동계급의 굳센 신념을 심어주고 갔네.  
이전엔 우리 로동자들이 상가집 개만두 못하게  
천대받다가 길가의 조약돌처럼 값없이 죽어갔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에게 당이 있구 장군  
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살구 죽는것두 하나하나  
값이 생기구 빛이 나게 됐네. 그러기에 자네 형  
수는 생때같은 자네 형을 잃구두 아무 내색 없이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자구 애쓰구있네. 오  
늘 일만해두 그렇지. 장군님을 뵈구 떠나게 된  
자네한테 그늘을 주어보내지 않으려구 한 일이  
지.》

근혁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정순을 본  
다.

《형수님!》

정순이 조용히 다가선다.

《삼촌 마음을 크게 먹자요.》

새벽노을이 붉게 탄다.

## 용선로

붉은 쇠물이 쏟아져나온다.

정순이와 용하, 시엽이 등 당원들이 바가지에  
쇠물을 받아들고 주형장으로 달려간다.

현란한 불꽃을 날리며 부어지는 쇠물.

쇠물을 붓는 정순의 억센 모습에 장중한 음악  
이 흐른다.

## 의주집

《선술》, 《꼬치안주》 등을 써붙인 의주집 뒤  
골방에서 번대머리놈이 안경쟁이와 술을 마시고  
있다.

안경쟁이가 번대머리에게 술을 부으며 말한다.

《용선로에선 쇠물이 쏟아져나오는데 이거 야단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제집을 허술히 본탓이야. 그때 그  
놈과 함께 저승에 보내야 하는건데 놓쳤단말야.》

《아니. 치마두른 그년이 그렇게 용을 써요?》

《흠, 보통년이 아니야. 아무래두 그 안대식이한

테 말해서 그 계집년한테 올라미를 썬워야겠어.》  
거나하게 취기가 든 안경쟁이가 허꼬부라진 소리를 한다.

《그럼 도검찰소 경리과에 있는 허씨를 불러대지요?》

《음-》

《그런데 그 대식이란자가 믿을만한 사람인가요?》

《그자는 동경가서 공부할 때 내 신세를 단단히 진놈이야. 지금두 내 손아귀에서 살아.》

《예...》

### 용선로앞

정순이가 작업총화를 하고있다.

《그럼 오늘 작업총화를 이만하겠어요.》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웅성거리며 헤어진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정순이가 《평》 하고 쇠볼이 부딪치는 소리에 용선로쪽을 돌아본다.

송관일이 로앞에 널린 공구들을 치우고있다.

정순이가 그에게로 다가간다.

《세포위원장아버님, 오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나야 뭘 반장이 그동안 집에두 못가봤는데 일찍 들어가라구.》

《그럼 뒤거둬이나 같이 하구 우리 집으루 가시자요. 그전엔 아버님이 폭격에 가족을 잃구 이렇게 혼자 계시는걸 크게 생각 못했어요.》

《고마우이! 철옥 에미, 난 늘 직장에서 사는데 좋아. 내 입당할 때 처음 받은 분공이 아침저녁 공장을 한바퀴씩 돌아보는거라구 하지 않던가?》

《아버님두...》

정순은 새삼스러우면서도 존경어린 눈길로 판일이를 이윽히 바라본다.

로상대를 돌아보던 판일이 정순이를 돌아보며 말한다.

《아니. 왜 안들어가구 그래? 자, 어서 들어가라구.》

《로를 살려놓구 보니 가공이 걱정이군요.》

하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한다.

미구에 무거운 발길을 돌리는 정순.

판일이 그의 뒤모습을 측은히 바라보며 혼자소리를 한다.

《선반기가 한대 더 있으면 속을 안태울텐데...》

### 공장정문

정식의 손목에 이끌려오던 철옥이가 정문을 나오는 정순이를 보고 《엄마》 하며 마주 달려온다.

정순이 철옥이를 품에 안는다.

《삼촌 따라 왔니?》

총을 멘 정식이 뒤따라와서 싱글벙글 웃는다.

《누님. 쇠물을 뽑았대지요?》

《응, 두툼이나 뽑았단다.》

《야. 굉장하구나. 이젠 수류탄이 팡팡 나오겠구만요?》

《그럼!》

정순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정식아! 너 요즘 영혜를 만나군하니?》

《영혜말이요? 자위대일두 바쁜데 언제 만나 얘기할 새가 있어요? 아, 용선로를 지켜야지요. 하하...》

하고는 《삼촌!》 하고 부르는 철옥에게 정식은 잘가라고 손을 흔들어준다.

### 철공소집

영혜가 풍구질을 하며 소설책을 읽고있고 그의 아버지 상도가 불반에 말편자 구멍을 뚫고있다.

여기로 정순이가 철옥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우.》

상도는 기계가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으며 건승 대답한다.

정순이가 미소짓다가 불반자크를 손쉽게 바로 잡아준다.

상도가 정순의 능숙한 솜씨에 놀란다.

《색신 어디서 왔소?》

《기계공장에 있어요.》

《글쎄, 내 어쩐지 낮이 익다했지.》

그 말에 영혜가 책에서 눈길을 떼고 정순이를 유심히 본다.

정순이 말편자를 집어 들고 미소짓는다.

《말편자를 만드시누만요?》

《지금은 그거 하나 시세가 있수다. 전쟁판에 살아가자니 별수 있소?》

《이 일두 전쟁을 돕는 일인데 좋지요 뭐.》

《그래, 무슨 일루 왔소?》

정순은 영혜에게 눈길을 주다가 힘들게 입을 연다

《저 폭격에 기계들이 다 마사져서 댁에 여분이 하나 있는가 해서 왔더니 불반 한대밖에 없구만요.》

그 말에 태도가 일변하는 상도.

《미국놈들 폭격에 죄다 마사지구 이거 한대밖에 없수다. 영혜야, 점심이나 먹구 하자.》

하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정순이가 무안해하며 영혜쪽을 바라본다.

아버지를 민망해하며 영혜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순이가 미소지으며 다가선다.

《저... 영혜동무지?》

《아니, 어떻게 저를?》

《나 정식이 누이야.》

《어마나!》

몸둘바를 몰라하던 영혜가 얼른 정순에게 자리를 권한다.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 무슨 책을 읽나?》  
 《<인간문제>예요.》  
 영혜가 철옥의 볼을 쓰다듬으며 묻는다.  
 《이름이 뭐지?》  
 《철옥이에요.》  
 《그래, 용구나.》  
 이때 적비행기소리가 들린다.  
 상도가 집안에서 나오며 소리친다.  
 《애, 영혜야! 빨리 대피하자.》  
 영혜가 철옥이를 업고 앞선다.  
 《공습경보예요.》  
 적폭격기편대가 날아간다.

### 방공호

뒤늦게 들어와 밖을 내다보던 상도가 가슴을 친다.  
 《어이구, 저 미국놈의 새끼들을 그저...>  
 어린애를 달래는 녀인을 바라보던 영혜가 정순에게 말한다.  
 《저... 저두 공장에 나갈수 없을까요? 남들은 전쟁을 이기겠다고 애쓰는데... 전 집안에서만 정말 부끄러워요.》  
 《나올수 있지 않구.》  
 《그래요? 그럼 저두 공장에 좀 나갈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하구 잘 의논해보라구.》  
 《네.》  
 《우리 공장에두 영혜와 같은 처녀들이 많아.》  
 《야!...》  
 영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린다.

### 강기슭

저녁노을에 보라빛으로 물든 강물.  
 영혜가 정식을 따라 강기슭에 나왔다.  
 《글쎄, 처음엔 누님인줄 몰랐지요 뭐.》  
 《그래?》  
 하고 웃던 정식이 밀도 끝도 없이 한마디 한다.  
 《영혜동무, 내가 도와줄게 아예 들판의 꽃이 돼보라우.》  
 《들판의 꽃이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기계들을 다 내다 바치구 나하구 진짜 프로레타리아가 되잔말야.》  
 《선반기요?》  
 《선반기면 선반기, 있는데루...》  
 《실은 집에 아버지가 선반기를 한대 감춰둔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 됐어! 그러지 않아두 두톤로를 살려 놓구보니 가공이 팔려서 그러했는데 마침 잘됐소.》  
 《그래요? 저...공장에 나오면 제가 일을 꽤 해낼수 있을까요?》  
 《걱정두... 내가 있잖아.》

### 부지배인실

정순이가 병수에게 찾아왔다.  
 《다름이 아니라 영혜를 공장에 나오라구 했는데 일없겠는지 해서...》  
 《영혜라니?》  
 《철공소집 딸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처녀 뫼하려?》  
 《주형공을 늘여서 교대작업을 시켜두 좋겠구 또...》  
 《다른 공장두 아니구 군수품을 생산하는데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쟁을 이기는데 적은 힘이라두 합치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 처녀가 정식이하구 말이 있다구 뒤소리들두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자구 그러오?》  
 정순이 다소 놀랍게 바라보는데 병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내 근삼이하구 의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 처녀를 정식이하구 짝을 무어주는것두 생각해 보오. 근삼인 내 입당보증인으로서 내가 마음고생하는걸 너무도 잘 알고있었소. 난 그저 정식이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거요.》  
 《그거야 본인에게 달렸지요 뭐.》  
 《말이야 다 그렇게 하지.》  
 《그건 다 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구 생각해요.》  
 《뭐라구?》  
 《전 해방되던 해 겨울에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다. 바루 그날밤에 부지배인동무두 당에 들수 있다구 얼마나 기뻐했나요. 그때 진심으로 당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배인동무를 괴롭혔다구 얼마나 애기들을 했어요?》  
 병수가 정순이를 새삼스럽게 바라본다.

**가공작업실**  
 영혜가 일하고있는곳으로 안대식이가 걸어온다.  
 《수고하누만.》  
 《나오셨습니까?》  
 시업의 인사에는 아랑곳없이 대식이가 영혜를 보며 그에게 묻는다.  
 《선반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동무요?》  
 《예, 로동계급이 되겠다고 결심이 보통 아닙니다.》  
 《그렇다구 철심같은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는데...》  
 《예, 반장동무한테 이르겠습니다.》  
 영혜가 무심히 듣다가 입술을 깨문다.  
 이때 상도가 직장밖에 와서 두리번거리는것이 보인다.  
 《이 애가 어딜 갔나?》

상도의 기상이 험해진것을 보고 주저하던 영혜가 단호한 결심을 안고 아버지앞에 다가간다.

《아버지, 왜 왔어요?》

상도가 성이 똑같이 나서 따진다.

《너 방공호에 감춰두었던 선반기를 어떻게 했어? 말해라! 그건 너하구 나밖어 모르는데…말안 할테나, 응?》

《제가 내왔어요.》

《뭐? 이 쓸개빠진년!》

상도가 영혜의 뺨을 후려친다.

《너 그 선반기를 어떻게 했니? 내 당장 실어가야겠다.》

영혜가 흐느낀다. 하나 영혜는 호락호락 물리설 기세가 아니다.

《아버지, 선반기를 실어만 가보라요. 난 우물에 빠져죽고말겠어요!》

《뭐 이 길들지 않은 망아지새끼같은년!》

이때 물지개를 진 정순이가 그들에게 온다.

《영혜 왜 그러니?》

상도가 불쑥 정순이앞을 막아선다.

《마침 잘 만났소. 그래, 선반기가 필요하면 주인인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옳지 저 철없는것을 피여가지구 선반기를 도적질해가는 법이 어디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허, 낮가죽두 두렵다. 개인기업이나 해먹는다구 사람을 그렇게 업수이보지 마시우! 나두 해방직후 경기가 좋을 땐 수십만금을 건국사업에 희사한 사람이요.》

영혜가 바빠서 아버지에게 매달린다.

《아버지, 제발 그만 그만해요. 이 언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 승낙을 받았다고 하구서…》

《듣기 싫다!》

상도가 영혜를 부리치며 게두덜거린다.

《까마귀두 안날았는데 배 떨어졌을가. 흥, 어린것을 피여가지구선…》

아연해서 굳어졌던 정순이가 상도앞에 사죄하려한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구 뭐구 선반기를 되돌려주겠소 못돌려주겠소?》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님하구 다 의논한줄 알구…》

《흥, 내 다시 오지 않도록 하시오!》

《정말 안됐어요.》

상도는 인사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버린다.

영혜가 몸둘라바를 몰라한다.

《언니, 용서해요. 저때문에…》

이때 사태를 관망하고있던 안대식이 그들에게로 온다.

《반장동무, 이게 무슨 망신이요? 국가적으로 공인된 사유재산을 침범하구… 오늘중으루 당장

돌려보내시오!》

영혜가 얼른 끼여든다.

《그건 안돼요! 다 제탓이에요. 하지만…》

《처녀동문 가만 있소. 우리 국영공장이 동무의 개인문제에 룡락돼서야 되겠소?》

《네?》

영혜는 온몸에 모닥불을 뒤집어쓴것 같아서 얼굴을 싸쥐고 뛰쳐간다.

정순은 분을 안은채 안대식에게 한마디 한다.

《부장동무, 그건 너무합니다.》

《에?! 그건 무슨 소리요?》

정순은 격한 심정을 누르고 모두에게 말한다.

《하던 일들을 마저 끝내자요.》

로동자들이 하나 둘 흠어져간다.

안대식이 정순이를 꼭지 않게 흘겨본다.

《그래, 무슨 의견이 있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어요? 그래두 영혜는 우릴 믿구 나왔는데…》

《우리가 아니라 정식이겠지.》

《그렇다구 나쁠거야 없지 않아요. 너자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의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안대식이 쓴웃음을 짓는다.

《뭐요? 동문 마치 내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모욕한것처럼 말하는데…그래, 동무에게두 도대체 감정이 있소?》

정순은 억이 막혀 말을 못한다.

안대식은 그때라는듯 또 지절인다.

《사람들이 욕합디다. 제 남편을 잃구두 눈물 한방울 없는 천하에 매정한 너자라구…》

정순은 가슴을 에이는 그 말에 북받쳐오르는 오열을 가까스로 참는다.

《그래요, 전 남편을 잃구두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원썩놈들이 제 가슴을 이렇게 모질게 찢어냈는데 눈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독하군!》

하고는 대식이놈이 꼬리를 사린다.

정순은 현기증을 일으키며 철기둥에 이마를 댄다.

번개불이 가로질러간다.

## 물웅덩이

밤이다.

물지개를 진 정순이가 물웅덩이에 들어서서 초롱에 물을 퍼담는다.

힘겹게 옮겨딘는 밭, 진창에 밭이 미끄러져 물을 었지르는 정순, 다시 기슭에 내려가서 물을 퍼담아가지고 온다.

그의 눈에서 비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것이 끝없이 흘러내린다.

노래가 흐른다.

버림받던 이 몸을 안아

꽃으로 피워준 은혜  
세월은 가도 이지 못할  
그 품을 믿고 살리  
언제나 한마음 당을 따르고  
어데서나 하나의 생각  
당을 받들어가리

### 공사장

정순이 물지게를 내려놓는다.  
초롱의 물을 물탱크에 쏟는 정순.  
겉싸게 혼합물을 이겨가는 정순의 얼굴에 땀이  
흐른다.  
이때 휴게실에서 보꾸레미를 싸들고 나오던 영  
혜가 그 광경을 보고 무춤 밤걸음을 멈춘다.  
정순은 땀을 흘리며 계속 일손을 놀린다.  
그앞에 굳어져있던 영혜가 걱정을 삼키며 가까  
이 온다.  
《언니!》  
정순이 의아하게 바라본다.  
영혜가 고개를 떨군다.  
《언니, 절 욕하지 마세요. 공장에서 나간다  
구...》  
《진 무슨 소리야?》  
《선반기두 도루 가져갔는데 제가 이제 무슨 낙  
을 들구 공장에 나오겠어요. 누굴 믿구 살아요?》  
《누굴 믿구 살다니... 너 공부를 헛했구나.》  
《전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원망하기전에 누굴 믿구 살아야 할  
지두 모르는 자기를 원망해야 해!》  
정순의 목소리는 노기를 띠었다.  
《저두 언니처럼 살자구 공장에 나왔댔어요. 흑  
흑...》  
《그렇다면 마음을 든든히 먹어야지.  
지금은 전쟁이야. 판가리싸움이란말이야. 누가  
누구를 하는 이 마당에서 마음의 기둥이 든든하  
지 않구선 한시도 못살아!》  
푹어진 천정 구멍에서 떨어지는 비방울이 바닥  
을 흥건히 적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순이와 영혜가 주  
형틀우에 나란히 앉는다.  
정순이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입을 연다.  
《사람이 의리를 몰라서는 절대로 안된다. 나두  
힘한 세상에 정식이 하나 데리구 해매다가 해방  
을 맞아 장군님 품속에 안겨서야 제이름 석자를  
배웠구 당원이 돼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보람  
도 알았다. 행복이 뭔지두 알구... 그래서 남편을  
잃구두 눈물없이 살아간다. 자나깨나 천대받던  
이 몸을 당원으루 키워주신 그 은덕에 의리루  
보답해야겠다는 한가지 생각으 모진 고통도 슬  
픔두 다 이겨가며 이렇게 살아간다.  
마침내 영혜가 더 참아내지 못하고 정순의 가  
슴에 얼굴을 묻는다.  
《언니! 제가 언니를 미쳐 물렸어요.》

### 파철더미

안대식의 지휘밑에 시업이와 농기구작업반 너  
인들이 질통에 파철을 담고있다.  
정식이가 총을 메고 지나가다가 눈을 홑뜨며  
달려온다.  
《서시오. 서시오! 이걸 왜 다치오?》  
《보습을 붓는대요.》  
《안됩니다. 도로 가져다놓으시오! 이걸 수류탄  
을 붓자구 따루 모아둔건데...》  
안대식이 다가온다.  
《아, 이달 로임을 해결한 다음에 수류탄은 붓  
기루 했소.》  
《로임이요?》  
《로임때문에 말들이 많은걸 모르누만. 자, 빨리  
나릅시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식은 총을 벗겨들며 파철무지우에 올라선다.  
  
《못가져가오! 도로 가져다놓으시오, 이걸 가져  
가면 안됩니다.》  
사태를 일별한 대식이 타협조로 나온다 .  
《이 동무가? 여보! 부지배인동무 지신데 집행  
하구 봐야 할게 아니요?》  
《글쎄 안됩니다. 수류탄을 못만들게 하는건 반  
동입니다.》  
《뭐 요? 그럼, 부지배인동무두 반동이라는건  
가?》  
《알게 뭐요?》  
너인들이 웃는다.  
정식이 버럭 소리친다.  
《웃을 일이 아니예요! 수류탄을 못만들게 해서  
미국놈들을 도와주면 그게 반동이지... 반동이라  
구 이마에 써붙이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는줄  
아오?》  
너인들이 심중해진다.  
《그 말은 옳소. 하지만》  
씨벌이는 대식의 말을 중동무이하고 그에게  
따지는 정식.  
《그리구 전시에 로임타령을 하구 다니는게 대  
체 누구란말입니까. 예?》  
《나한테 물을게 있소? 앞에 서있는데...》  
그제서야 정식은 머쓱해서 서있는 시업을 발견  
하고 놀란다.  
격해서 말하는 정식.  
《아니?! 당원이 그게 뭐 예요? ... 총  
알이 떨어지구 수류탄이 모자라서 육박전을 하다  
죽은 전우를 제손으로 물어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예요. 정말 너무해요. 시시해요!》  
《뭐라구?!...》  
《아니. 거 뭐...》  
대식이 편역을 드는 말에 시업이가 온몸을 부  
들부들 떨다가 질통을 와락 벗어던진다.

《에익, 혼자 다 해먹어라.》

### 상도의 집마당

영혜가 보꾸레미를 들고 대문안에 들어선다. 집안일을 하던 상도가 다소 서먹해하며 마주온다.

《영혜야, 어델 갔다 이제야 오느냐? 공장에서 선반기를 실어왔더구나.》

《어떻게 그 선반기를 도로 받을수 있어요? 너 무해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나?》

영혜가 울분을 안고 들이댄다.

《아버지! 그래, 우리가 그것 없이는 못사나요? 해방후에 우리가 누구 덕에 잘살았나요?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 못하구 의리를 저버리구요! 정순언니랑 보세요. 당원들은 지금 목숨까지 바치는 때에 선반기 하나가 도대체 뭐길래... 어려운 때 일수록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나가야 전쟁을 이기구 잘살수 있다는걸 아버지는 왜 모르시나요. 예?》

상도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 휴계실

정순이가 저고리를 뜯어 철옥의 책가방을 만들고있다.

정식이가 볼부는 소리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구 빌어요?》

《너 정말 내 속을 태우겠니, 시엽아저씨보구 반동이라는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만한것 두 삭이지 못하는게 무슨 당원이예요?》

《제혼자 당성이 있는것처럼 큰소리치면서 다니는게 당원의 행실인줄 아니?》

《그럼 속이 뒤집히는것두 참아야 돼요?》

《배심이 든든한 사람은 너처럼 큰소리치면서 다니지 않아.》

이때 안대식이가 들어와서 그들앞에 숟가락이며 밥주걱같은것들을 와르르 쏟아놓는다. 뒤따라 들어온 용하, 관일 등이 그것을 본다.

《자, 보시우. 로임없이 산다는 당원들이 이런 구멍수나 본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소?》

안대식의 말에 아연해지는 정순.

《시엽동무가 장마당에 들구 나간걸 회수해왔수다.》

용하가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뛰쳐나간다.

말없이 흐린 낯으로 마주보는 정순이와 관일.

정식이가 보라는듯 정순을 쳐다본다.

### 주형장

풀이 죽은 시엽이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다.

이때 난데없이 술뚜껑같은 손이 무작정 시엽의 덜미를 끌어올린다.

《에익, 가자구!》

《아니, 왜 이러슈?》

용하에게 덜미를 잡히워가며 언제 주먹이 날아들지 몰라 자라목이 되는 시엽.

휴계실에서 나온 안대식이 흥물스럽게 바라본다.

### 휴계실

용하가 시엽이를 확 밀치고 들어온다.

《임자두 당원인가?! 내 임자 입당할 때 세포앞에 그놈의 골통에 배긴 리기주의를 떼줄걸 맹세하구 보증을 썼는데 아직도 못했으니 임자두 나두 당원증을 내놓자구!》

《집에 건사했던 비행기날개루 만들었는데 뭘 잘못했다구 이 야단이요?》

《뭘 잘했다구 대꾸질이야!》

관일의 추상같은 호령에 더 말을 못하는 시엽.

정식이 승기가 나서 팔을 걷고 나선다.

《이거야 어디 참아내겠소? 당원들 닳에 침을 뱉어두 분수가 있지, 당장 조직문제를 봅시다.》

《정식아!》

정순의 엄한 눈총에 정식은 가슴을 쥐어뜯는다.

용하가 더 욱한다.

《문젤 봅시다. 찍하면 저따위짓을 해서 술이나 마시구...》

그러자 시엽이가 더 참지 못하고 털어놓는다.

《동무들! 내 죽을 죄를 졌수다. 허지만 내가 먹지구 한짓은 아니웨다. 철옥이가 애비두 없는게 책가방두 없이 학교에 가는걸 보구 내 이 속이 너무 알찌근해서 한번만 더 하자고 하던 노릇이 그만... 에익. 내가 이제 그 말을 해선 뭘하겠소?!》

그 말에 누구보다 심한 자책에 잠기는 정식.

바위돌같은 용하의 눈에 대뜸 물기가 번뜩인다.

뜨겁게 시엽을 바라보는 정순의 뇌리에 문득 전날에 있었던 일이 되살아난다.

.....

### 시엽의 집앞

학교에 갔다 돌아오던 철옥이가 같은 포레의 사내애가 멘 책가방을 보며 떼를 쓴다.

《엄마, 나 책가방 사달라.》

《엄마가 말귀만놓구 미쳐 만들지 못했구나.》

《실어, 나 저런거...》

철옥은 사내애가 멘 책가방을 가리킨다.

《엄마가 인차 만들어줘.》

시엽이가 그러는 철옥이를 측은히 바라보다가 덤실 안고 불을 비빈다.

《철옥아!》

《아저씨!》

.....

정순이 뜨거운것을 삼킨다.

송관일이 갈린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그렇다구 진작 말을 했어야지, 서로 위하는 마음이야 누가 나쁘다구 하겠나? 하지만 우린 당원들이 아닌가. 백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해서는 안되는게 우리들이야!》

시엽이가 복받쳐오르는 자책감을 누르지 못하고 흐느낀다.

《세포위원장동무! 절 처벌해주시우.》

마침내 정식이 더 참지 못하고 시엽의 손을 와락 움켜잡는다.

《아저씨! 날 욕해주시우. 내가... 내가 삼촌구실을 못한 탓이에요!》

《정식이!》

정순이와 관일이든 뜨거운 마음을 안고 마주본다.

### 직장앞

오작난 수류탄이 더미로 쏟아져 쌓인다. 때를 만난듯 안대식이 득의양양해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지껄인다.

《부대에서 당장 수류탄을 실으러 오겠는데 이렇게 오작을 내면 어떡하는가말이요? 헛참!...》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정순이가 굳어진다.

관일이 안타까와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깨진 수류탄을 들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정순. 대식이 빈정댄다.

《깨진 수류탄을 보시오. 이거야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수 없겠는데...》

관일이 언짢아 한마디 쏘아붙인다.

《부장동무,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요?》

《이걸 보시오. 이래가지구야 어떻게 수류탄이 제대로 터질수 있습니까? 이젠 영혜가 불먹은 철사를 쓴게 분명합니다.》

영혜가 가슴이 떨려 반박한다.

《전 불먹은 철사를 자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귀신이 곡할노릇이 아니요?》

정순이 대식앞으로 한발 나선다.

《부장동무, 철심은 제가 가져다주었는데요.》

이때라는듯 안대식이 정순에게 오금을 막는다.

《그렇다면 동무가 원인을 밝히시오!》

병수가 정순이와 영혜를 번갈아보더니 쓴입을 다신다.

《하는짓들을 보니 안되겠소. 원인이 해명될 때까지 수류탄이구 뭐구 다 걸어치우시오!》

정순은 얼굴이 흠뻑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한다. 남당이같은 침묵속에 얼굴을 찡찡 영혜의 흐느낌소리만 들린다.

### 부지배인실

병수가 정순이를 한창 나무람하고있다.

《내가 뭐랬소? 철공소집 팔때문에 아무때건 화를 입는다구 그만큼 말했는데... 뭇때문에 제발로 가는것까지 붙들어놓고 이 말쟁이요?》

《그럼 부지배인동무두 영혜를 의심하세요?》

《달리 해명할길이 없지 않소? 검찰소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공연히 남의 죄까지 뒤집어쓸 생각을 안하는게 좋겠소.》

놀랍게 병수를 바라보는 정순.

《아니. 그럼 저더러 영혜한테 책임을 전가하라는겁니까? 어찌면 그런 말씀을...》

《내 말을 명심하오. 지금은 보통때가 아니라 전쟁이요. 그 누구든 군사재판에서 단단히 책임지게 될거요! 어서 나가보오. 왜. 할 말이 있소?》

《전 책임지는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옳게 밝혀야 한다고 봐요. 그 어떤 편견때문에 진실이 외곡되고 진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사고를 면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를 의심하는거요? 누구를!...》

이때 적기의 요란한 동음이 들려온다.

공장부근에서 연거퍼 작렬하는 폭탄.

병수가 모자를 쥐고 황급히 나간다.

《또 폭격이군, 빨리 대피하오.》하나 정순은 꼼짝 않고 그대로 서있다.

### 공장밖

폭탄들이 터진다.

적기들이 꼬리를 물고 급강하한다.

정순이가 흠가마니를 메고 용선로앞으로 달려간다.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뒤따른다.

관일이 등이 방탄벽을 보강하고있다.

폭격속에서 방탄벽을 보강하던 당원들이 일손을 멈춘다.

적폭격기편대들이 시가지쪽으로 날아간다. 증오에 찬 눈길로 바라보는 정순.

갑자기 《시한탄이요!》하는 웨침소리에 정순이 그쪽에 얼굴을 돌린다.

대식이가 시한탄앞에서 계걸음치며 소리친다.

《시한탄이 쑥 깔렸소!》

정순이가 그쪽으로 달려간다.

관일, 용하들도...

피물같이 사방에 박혀있는 시한탄들.

### 부지배인실

병수가 송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을 급히 찾는다.

《여보시오! 교환. 교환이요? 지배인실에 대주시오. 안계신다구요?》

송수화기를 맥없이 떨구는 병수에게 안대식이 다가선다.

《본공장에 물어보구말구 할게 있습니까? 이젠 부지배인동무가 결심을 잘해야지요》

병수가 짜증을 낸다.  
 《이 동무가 정말...》  
 하는 병수에게 오금을 박는 안대식.  
 독기가 어려있다.  
 《검찰소에서 눈을 감아주는것두 한두번이지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날에는 용서 안할겁니다!》  
 하고는 안대식이 횡하니 나가버린다.

## 공장구내

시한탄들이 박힌곳에 새끼줄을 둘러치고 《위험!》 표말을 막았다.  
 급히 걸어가는 병수.  
 노동자들이 시한탄둘레에 흙가마니를 쌓고있다.  
 그들속에 병수가 뛰어든다.  
 《모두 죽자구 이러오? 어서 물러서시오!》  
 《방탄 가마니를 높이 쌓았으니 일없을거우다.》  
 관일의 말에 병수가  
 《이 방탄가마니가 무슨 맥을 춘다구 그럼니까. 어서 물러가시오!》 하며 방탄가마니를 둘러메친다.  
 《부지배인동무, 우리가 물러서면 이 로가 또 죽수다!》  
 《답답합니다. 로가 마사지는건 내가 책임질테니 모두 집을 돌아가시오!》  
 《부지배인동무!》  
 《얘기는 후에 합시다. 한사람도 남아서는 안되겠소!》  
 병수는 사정하듯 웨치고 사무실쪽으로 간다.  
 정순이가 말라드는 입술을 깨물며 병수를 뒤따른다.  
 《부지배인동무!》  
 병수가 폐허속에 맥을 잃고 벗어선다.  
 《부대에서 당장 수류탄을 실으러 오겠는데 로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리가 있소?》  
 《부지배인동무만 승인해주시면 해낼수 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서 좋겠소. 수류탄오작때문에 당장 검열을 붙이겠다는데 또 무슨 사고를 치자구 그러오?》  
 《방비대책을 세우면서 하겠어요.》  
 《하여든 상급기관의 결론을 받구 봅시다.》  
 《야, 참!》  
 《내가 결심할 문제가 못돼서 그러니 제발 헤쳐가게 하시오.》  
 《부지배인동무!》  
 그만 병수가 자제력을 잃고 버럭 짜증을 낸다.  
 《정 이러겠소?!》  
 그리고고는 마음을 녹잡히느라고 담배를 꺼내문다.  
 정순이 흥분을 누르며 말한다.

《우리 세포당원들이 여기 남자구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지지해주시고 함께 남아주신 부지배인동무가 왜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두 몰라주시나요?! 같이 도와서 고난을 이겨나갈 대신에 얼굴에 그늘을 짓구 책임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상급에만 의존하구...》  
 병수가 새삼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볼뿐 응대가 없다.  
 《전 부지배인동무가 이렇게 살아가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신념도 없이...》  
 《뭐 신념?》  
 《절 꾸짖어두 좋아요. 하지만 언제이건 꼭 하고 싶었던 말이였어요.》  
 병수가 얼굴에 경련을 일으킨다.  
 《정순동무 말대로 나는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래, 신념이 있는 동무들이 하자는대루 해서 잘된 일이 뭐요? 설비는 다 마사먹었지, 근삼이는 잃었지... 그래두 교훈을 찾지 못하구 또 무슨 불상사를 내야 좋겠소?》  
 정순이 쓰린 가슴을 안은채 조용히 입을 연다.  
 《지금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들만이 아니지요. 전쟁인데 어떻게 희생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이겨가는 우리모두의 마음의 기둥이 뒹이겠어요? 우리에게엔 장군님께서 계시고 당이 있기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불행은 다 순간의것이고 이 순간만 이겨내면 장군님을 모시구 다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난앞에서도 시련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거예요!》  
 병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런데 부지배인동무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신을 속이고있어요. 정말 섭섭해요, 분해요!》  
 정순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 간다.  
 병수가 생각깊이 바라보다가 자리를 뜬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공장 구내길로 정순이가 걸어간다.  
 나들이웃차림을 한 원녀가 달려와서 정순의 손목을 잡는다.  
 《반장! 한참 찾았구만. 글쎄 어제밤에 장군님께서 장산마을을 다녀가셨대!》  
 《장군님께서요?!》  
 《응.》  
 정순이 두주먹을 부르쥐고 장산마을이 보이는 언덕으로 달려올라간다.  
 산너머 마을쪽에 초연이 자욱히 서려있다.  
 정순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마을을 이윽히 바라본다.  
 함께 바라보던 원녀가 조용히 입을 연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제 시가지가 폭격당하는걸 직접 보셨대!》  
 《아니, 그 폭격속에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시가지가 폭격당하는걸 오래오래 보고계셨다누만.》

《장군님께서?! 얼마나 피로우셨으면...》  
 《그러시구는 온밤 주무시지 못하시구 첫새벽에  
 도 영예군인공장으로 가셨대.》  
 《아니, 그럼 장군님께서 우리 도를 지도하고계  
 시는군요? 이 불비속에...》  
 정순은 머리를 비다듬어 올리며 간단없이 폭음  
 이 들려오는 들판과 그너머 포연 자욱한 도시쪽  
 을 근심스럽게 바라본다.

### 용선로앞

《위험!》 표식을 한 방탄벽사이로 정순이가 천천  
 히 들어선다.  
 숨죽은 로, 공구들이 되는대로 널려있다.  
 정순은 그것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본다.  
 강기슭에 새벽노을이 붉게 탄다.

### 정순의 집

비여있는 정순의 곁에서 철옥이가 자고있다.

### 언덕

정순이가 새벽노을을 등지고 숨죽은 공장을 바  
 라보고있다.  
 정식이 다가선다.  
 《누님, 그만 들어가자요.》  
 정순이 나직이 입을 연다.  
 《정식아, 어쩐지 장군님께서 꼭 우리 공장을  
 찾아주실것만 같구나. 그런데 저렇게 불빛 하나  
 없이 숨죽어있으니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가  
 슴아파하시겠니? 현장에는 시한탄이 깔리구...》  
 이때 중앙방송의 개시음악이 은은히 들려온다.

### 공장구내

정순이와 정식이가 공장구내로 들어온다. 그들  
 은 땅속에 박힌 시한탄앞에 걸음을 멈춘다.  
 말없는 약속을 안고 방탄가마니를 들어내기 시  
 작하는 그들.  
 《누구요?》  
 공장을 돌아보던 관일이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  
 가온다.  
 《왜들 나왔나?》  
 《.....》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바라보던 관일이 타이르듯  
 말한다.  
 《들어들 가라구.》  
 정식이가 단호하게 말한다.  
 《아바이. 저것들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시한탄을 해제해야 용선로를 살릴게 아닙니  
 까?》  
 정순의 드림없는 목소리다.  
 이때 인기척소리가 들린다.  
 정순, 관일, 정식이가 그쪽을 돌아본다.  
 용하, 시엽 등 당원들이 목고채며 바줄 등을  
 들고 마주온다.

가슴이 뭉클해서 바라보는 정순이와 정식, 말  
 없는 속에 당원들의 뜨거운 눈길이 오간다.  
 용하와 당원이 시한탄표식앞으로 걸어간다.  
 뜨거운것을 삼키던 관일이가 당원들을 둘러보  
 며 말한다.  
 《동무들, 우리 쏙담배라두 한대 피우구 하자  
 구.》  
 방탄벽앞에 적당히 앉는 당원들.  
 관일이가 그들에게 담배를 나눠준다.

### 설화

《순간에도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여기로 누가  
 그들을 불렀는가.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었다. 그  
 들은 당원이였기에 죽음도 웃음으로 맞받아나갈  
 용기를 가지고 말없이 여기에 모인것이였다.》  
 각이한 표정으로 말없이 담배를 피우는 당원  
 들.  
 노래가 울린다.

싸움의 앞길 준엄해도  
 에돌아갈 길 없어라  
 천만산악이 막아서도  
 두려움없이 가리라  
 청춘도 운명도 다 말기고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정순이가 제일먼저 방탄가마니를 제긴다. 당원  
 1, 2가 시한탄날개에 바줄을 걸고 당긴다.  
 시한탄을 안고 일어서는 정순에게로 시엽이가  
 다가온다.  
 정순이 그를 뿌리치고 무거운 걸음을 옮겨간다.  
 뒤따라 시한탄을 안고 언덕을 오르는 정식.

당이 준 심장 지냈기에  
 우리 신념 변함없네  
 수령님 만세 부르면서  
 세상끝까지 가리라  
 청춘도 운명도 다 말기고  
 오직 한길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시한탄을 안은 정순이와 정식이가 언덕을 넘어  
 간다.  
 구내길로 달려오는 병수와 영혜, 원너.  
 시한탄을 안은 관일리와 용하 등이 또 언덕을  
 넘어간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바라보는 병수와 노동자들.  
 공장일대를 들었다놓는 폭파음. 불기둥...  
 읍제지에 었드렸던 관일, 용하, 당원 1,2가 흠  
 먼지를 털며 일어선다.  
 정순이와 정식이가 고개를 번쩍 든다.  
 당원들이 달려와 서로 얼싸안는다.

### 의주집 뒤골방

번대머리운전사들과 아마를 맞대고 앉아있던 안경쟁이가 문기척소리에 방공막을 들치고 내다 본다.

《왔수다.》

《들어오라구 해.》

안대식이놈이 들어온다.

《어서 오라구.》

안경쟁이가 밖에 나가서 주위를 경계한다.

번대머리가 안대식을 마뜩지않게 본다.

《빨갱이들이 시한탄까지 다 해체하구 다시 수류탄을 만들어 내구있는데 그렇게 손털구 앉아있면 어찌자는거야?》

《그러기말웨다. 이젠 놈들의 변전소를 폭파하구 여기를 뜯시다.》

《한다는 소리가, 그건 막다른 때에 하는 최후 수단이야.》

《그러잖음 별도리가 있습니까?》

《임자. 그 오작사고는 왜 만들어냈나? 이봐, 내가 허씨를 불렀어.》

《에- 그래서 검찰소에서 내려온다는 기별이 왔됐구만요.》

대식이놈은 알겠다는듯 헤벌쭙이 웃는다.

### 공장구내

화물차가 와서 멎는다.

안대식놈이 마중한다.

운전칸에서 허씨와 검열원으로 가장한 안경쟁이가 내린다.

### 직장앞

정순이와 녀인들이 폭탄웅덩이를 메우고있다.

처녀 1 이 달려와서 정순이를 한옆으로 끌고간다.

《반장동무! 큰일났어요. 영혜를 데려갔어요. 도에서 <검열원>이 와서 찾는다고 하면서...》

《뭐?》

처녀 1 이 겁먹은 소리를 한다.

《모두 무섭다구 철심작업두 가공두 못하겠대요. 사락작업만 하게 해달래요.》

《무슨 소리예요, 량심에 티가 없는데야 뭐가 무서울게 있어요? 자, 가서 하던 작업을 마저 하라구 해요.》

정순은 처녀를 떠밀어보내고 결심한듯 사무실쪽으로 걸음을 옮겨간다.

### 사무실복도

정순이 깊은 생각에 잠겨 걸어 오는데 정식이 기다리고있다가 마주선다.

《누님!》

《영혜는 어떻게 됐니?》

《점심두 안먹이구 탁달하더니 저녁두 안먹일

작정이야요.》

《그럼 갖다라두 줘야지.》

정순은 풀이 죽은 정식이가 민망스러웠다.

정식이 몸돌바를 몰라한다.

《내가 누님을 돕는다는게 되려 큰 화근을 만들어 났군요.》

《무슨 소리냐?》

《누님은 나때문에...》

《너두 영혜를 믿지 못하니? 그렇게 믿지 못할 건 사랑은 왜 했니? 큰 소릴 치며 다니길래 배심이 있어 그러는줄 알았더니 천하에 졸장부로구나!

철옥이 아버지한테 충질을 하구 오작을 내게 한 그놈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니?》

정식이 고개를 떨군다.

### 사무실

영혜가 《검열원》들앞에 앉아 울고있다.

안경쟁이놈이 책상을 짹 친다.

《빨리 말하란말야, 이거야 답답해서 어디...》

허씨놈이 부러 부드럽게 입을 연다.

《동무! 그렇게 울기만 하겠소?》

《.....》

이번에는 대식이놈이 일어서서 영혜곁에 다가선다.

《대답해보오. 누가 시켰는가, 누가?!》

이때 문기척소리.

《에...》

하며 제자리에 가 앉은 대식이가 들어선 정순이를 보고 《검열원》들에게 말한다.

《그 반장입니다.》

정순은 침착하게 《검열원》들을 마주본다.

영혜가 오열을 터치며 정순의 품에 안긴다.

《언니!》

《울지 말아, 울지 말라는데두...》

안대식놈의 눈이 랭기를 뿜는다.

《동문 뭐요?》

그놈을 보는 정순의 눈에도 불이 인다. 자제하며 허씨놈을 돌아보는 정순.

《영혜동무를 내보내구 얘기하면 안되겠나요?》

《동무가 책임지겠소?》

《책임지겠어요.》

그 말에 안경쟁이가 뇌까린다.

《중소! 우리두 진짜 계산은 동무하고 하려던 참이요.》

정순이 영혜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앉는다.

허씨놈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지껄인다.

《동무가 자신의 입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조서에 수표만 받으면 되겠지만... 한가지만 묻겠소. 동문 책임지지 못할 녀자를 끌어들여 오작을 내게한 사실을 인정하오?》

《.....》

《왜 대답이 없소?》

《.....》



악의에 차 게거품을 무는 안대식이놈.  
 《다른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어준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철공소집 재물이 탐나서 그러는거지요!》  
 병수가 안대식놈을 마뜩지 않게 돌아본다.  
 《부장동무, 그런 말은 삼가하는게 좋겠소.》  
 《부지배인 동무는 직장장하구 친분관계때문에 그러는거요?》  
 《동무는 문제를 이상한데로 끌고가기에 하는 말이요.》  
 《동문 뭐요?》  
 허씨놈이 위협조로 올려메자 안경쟁이가 인츰 말을 단다.  
 《동무두 공장에 무질서를 조성한 책임을 져야 하오!》  
 병수는 기분이 언짢아 더 말을 안한다.  
 마침내 정순이가 침착하게 일어선다.  
 《이젠 제가 말해두 되겠나요?》  
 《말하오.》  
 《소개지가 건설되는동안에 여기 남아서 수류탄 생산을 중단하지 말자는 우리를 그렇게도 방해하더니 갑자기 오작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까닭은 뭐예요?》  
 《뭐라구?》  
 《이건 결국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류탄 생산을 못하게 하자는게 아닙니까?》  
 대식이놈이 짹 소리를 진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우린 어떻게 하나 전쟁을 이기자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오작을 낼수 있겠어요?》  
 바빠맞은 대식이놈이 허씨놈에게 주어쉽진다.  
 《속지 마시오. 난 저 동무보구 철공소집 딸한테 철심을 다루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러번 얘기했는데두 끝내 고집하면서 그 여자에게만 철심을 다루게 했습니다.》  
 《이거야말루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구만.》  
 정순은 침착하게 들이댄다.  
 《전 영혜를 믿어요! 지금도 다름없습니다. 다만 전쟁을 이기는데 적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그 깨끗한 마음을 믿는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부장동무의 립장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허씨놈이 버럭 소리친다.  
 《누굴 함부로 걸고드는가. 응? 이 동문 우리가 믿는 일군이요.》  
 《전 그걸 묻고싶었어요. 수류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미국놈들을 쳐엎애자고 애쓰는 우리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믿어주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대식이놈이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쓴다.  
 《동무! 날 모욕한데 대해선 참을수 있지만 이분들을 모욕한데 대해선 참을수 없단말이야!》  
 이때 관일, 용하, 시엽, 당원 1,2 가 문안에 들

어선다.  
 당황해하던 허씨놈이 자기를 수습하며 점잖은 체한다.  
 《동무들은 뭐요? 나가오!》  
 하나 바위처럼 뻥 버티고서있는 당원들.  
 용하가 입을 연다.  
 《우리 세포 당원의 문제를 취급하는데 못들어 올건 뭐요?》  
 《세포당원문제? 좋소. 동무들의 의견을 참작할테니깐 나갔다 찾을 때 한사람씩 들어오오.》  
 관일이 사태를 예감하고 놈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이건 대체 누굴 어떻게 하자는거요? 당신들은 정순반장이 영혜와 공모해서 의식적으로 오작을 냈다구하는데 그건 당치않은 소리요! 당신들이 걸고드는 우리 반장은 용선로를 살리자구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내화벽돌을 구해오다가 남편까지 잃었소. 이런 당원에게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가만히 보구만 있을줄 알았소?!》  
 시엽이와 당원 2, 용하가 호응한다.  
 《옳수다!》  
 《이건 참을수 없소!》  
 《흑백을 가릅시다! 우리도 이 사고의 내막을 밝히고있소.》  
 병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안경쟁이가 악을 쓴다.  
 《좋소. 그따위 가족주의루 엄중한 죄행을 감싸려고 하는 당신들도 다같이 책임질줄 아오!》  
 궁지에 빠진 허씨놈이 안대식을 돌아본다.  
 《안되겠소. 당장 내무서에 넘겨야겠소. 여기 전화가 어디 있소?》  
 《부지배인동무 방에 있습니다.》  
 《안동문 내무서에 연락해서 저 녀자를 빨리 데려가게 하오.》  
 《예.》  
 안대식이놈이 김빠진 소리를 하며 일어서 나간다.

## 차고

도적이고양이마냥 겁먹은 두눈을 데굴거리며 대식이놈이 다가온다.  
 번대머리가 마주선다.  
 《어떻게 됐어?》  
 《판이 다 기울어져갑니다.》  
 번대머리가 대뜸 대식의 멱살을 틀어잡는다.  
 《뭐라구?! 예익 머저리같은 자식 폭파해치워!》

## 사무실

안경쟁이가 정순이앞에 《조서》를 내대고 강박한다.  
 《조서요, 읽어보구 수표하오!》  
 이때 《짱!》 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등불이

꺼진다.

《아니, 변전소가?》

정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어떻게 할까요? 용선로의 불이…》

관일이 서두른다.

《빨리 대책을 세우자구. 내 자동차를 끌구 갈테니 송풍기에 피대를 걸어주게나.》

《알겠어요.》

정순이와 당원들이 급히 나가려는데 허씨놈이 발악한다.

《가만! … 너동문 좀 앉아있소.》

정순은 놈을 불붙는 시선으로 쏘아보다가 《로부터 살려야겠어요!》하고 태연히 나간다.

### 공장구내

영혜가 안대식놈의 팔허벅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소리친다.

《저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안대식놈이 도망쳐요!》

안대식이 주먹으로 영혜를 힘껏 친다.

영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겁어 질려 허둥지둥 달아나는 안대식놈. 관일이 쓰러져있는 영혜에게 달려온다.

《영혜야, 영혜야!》

《저기》

안대식이 화물자동차에 오른다.

관앞이 앞뒤를 가림없이 뛰어들어 안대식놈의 뒤다리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친다.

차안에서 번대머리놈이 권총을 뽑아들고 나온다.

옆치락뒤치락거리는 관일리와 대식, 누가 누구를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번대머리가 권총손잡이로 관일의 머리를 내려친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관일.

그 광경을 몽롱한 의식속에 바라보던 영혜가 《앗!》 하고 놀라며 배밀이로 다가간다.

번대머리가 대식이놈과 함께 차에 오른다. 속력을 내며 달아나는 차.

이때 정순이가 차를 맞받아 달려오며 손을 흔든다.

《세우세요!》

와플 놀라는 번대머리, 안대식이 뇌까린다.

《알아몽갓시다.》

번대머리가 이를 사러물고 차에 속력을 가하다가 총을 들고 달려오는 정식이를 보고 급히 조향륜을 꺾는다.

《세우세요!》

세우지 않고 최속력으로 달아나는 차.

이때 영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언니!》

정순이와 정식이 그쪽으로 뛰어간다.

영혜가 머리에 상처 입은 관일을 부축하고 어쩔 줄 몰라한다.

정순이 놀라서 관일을 불안한다.

《세포위원장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아바이!》

정식이라도 다급히 부른다.

관일이 정신을 차리며 달아나는 자동차를 가리킨다.

《쏘라구! 안대식이 저놈을…》

어둠속으로 뺑소니를 치는 자동차.

정식이 총을 들고 겨냥하여 쏜다.

뒤창을 뚫고나가는 두발의 총탄.

자동차가 갈지자로 가다가 기우뚱 뒹는다.

안대식놈이 뛰어내린다.

물웅덩이로 허둥지둥 도망치는 안대식이놈.

총을 쏜 정식이가 달려온다.

뒤따르는 정순.

안대식놈이 물속으로 뒤걸음친다.

정식이 《서라!》하고 웨치며 총을 겨누어쏜다.

안대식놈이 총탄을 맞고 몸을 비틀다가 수류탄을 꺼낸다.

련속 쏘는 정식.

대식이놈의 손에서 수류탄이 떨어진다.

중오심을 안고 정식이 더 가까이 다가선다.

대식이놈이 게걸음 치며 발악한다.

《짜라, 짜! 죽여라! 날 죽여두 로는 못살린다!》

정순이 정식의 손에서 총을 앗아들더니 여적서리고서린 피땀한 복수의 총탄을 놈에게 안긴다.

사람들과 함께 달려온 병수가 자책에 모대긴다.

한편 허씨놈과 안경쟁이가 내무원들의 추격을 받고있다.

### 송풍기실

시엽이 손으로 피대를 돌리고있는데 용하가 뛰어온다.

《바람이 안나와. 더 빨리!》

《알았수다. 자동차는 안왔소?》

땀을 흘리며 계속 피대를 돌리는 시엽.

용선로앞에 선 용하와 로동자들이 맥을 놓고 빛을 잃어가는 용선로를 가슴아프게 바라본다.

정순이 머리에 붕대를 한 송관일리와 정식등과 함께 들어온다.

마치 자기 육체가 굳어지는듯 식어가는 로를 가슴아프게 바라보는 정순.

용하가 고개를 떨군다.

《끝내 로를 살려내지 못했수다.》

시엽이가 한마디 한다.

《세 포위원장아바이!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꺼렇게 식어가는 쇠물.

관일이 《로가 죽는구나.》 한숨을 쉰다.

정순이 안타깝게 바라본다.

《세 포위원장아바이. 빨리 쇠물을 뽑아야 하지

않을가요?)

《채 나오기전에 식어버릴거우다.》

용하의 말에 송관일이 용단을 내리며 쇠장대를 집어든다.

《그래두 쇠물은 뽑아야 돼. 출선준비!》

당원들과 노동자들 출선준비를 한다.

《빨리! 자...》

관일이 출선구를 터뜨린다.

흘러내리던 쇠물이 얼마 못가서 꺼렇게 식으며 굳어진다.

침통하게 바라보는 당원들과 노동자들.

정순이 피로운 마음을 안고 고개를 떨군다.

## 강변

근삼의 피가 스며있는 때가 아직도 가슴에 떠 있다.

그앞에 와서 생각깊이 서있는 정순.

송관일이 등뒤에 다가와서 조용히 입을 연다.

《반장, 부지배인동무가 심한 자책의 글을 남겨 놓구 북성공장에 갔구만.》

《북성공장엔 왜요?》

《송충기열에 예비루 발동기를 설치하겠다고 그 결 얻으러 갔어.》

《그래요?》

《그리구 내무서에서 여기 와 날치던 간첩일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왔네.》

《간첩일당이요?》

《응... 안대식이놈은 왜정때 만주에서 왜놈의 거질을 하다가 변성명을 하구 온 놈이라는데 밝혀졌다는만.》

《어쩐지 미라한놈인줄 알면서도 우린 너무나도 경각성이 없었어요. 저... 세포위원장아바이, 경각성문제두 그렇구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구 빨리 로를 복구하자면 세포회의를 하는게 어떨가요?》

《그게 좋겠네.》

## 공장구내

폐해속에 자그마한 민주선전실이 자리잡고있다.

## 선전실안

10명 당원들의 세포회의가 열렸다.

정순이 토론하고있다.

《장군님께서는 이 불비속에서도 지금 우리 도를 지도하고계십니다. 장군님께서 혹시 우리 공장열을 지나가시더라도 저렇게 숨죽은 로를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로에 불은 꺼지고 쇠물은 얼어버어서 불을 지피지 못하고있으니... 전 해방이 되던 해 겨울에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시어 왜놈들이 쇠물채 열구어놓고 간 숨죽은 로를 오래오래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씌도 없이 쇠장대루 철기둥만 광광 내리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감회깊이 듣는 당원들.

용하가 걱정을 안고 일어선다.

《웁소다, 우린 죽으나사나 당장 로를 살려내야 합니다.》

시엽이와 당원들이 호응한다.

《불을 지피기전에 현장을 뜨지 맙시다.》

《웁소, 떠나지 맙시다.》

《합시다.》

정식이가 일어서서 말한다.

《동무들! 저는 직장보위두 잘하구 용선로를 복구하는데서도 앞장서겠습니다.》

정순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바라본다.

이때 차광막을 열고 부관이 호위병들과 함께 들어선다.

송관일이 마주간다.

《아니, 어떻게?...》

《회의중에 안됐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금 동무들을 찾아오십니다.》

《예?!》

《장군님께서요?》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한순간 굳어졌다가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선다.

차광막을 헤치고 달려나가는 당원들.

정순이도 허둥지둥 따라선다.

## 길

지평선 저멀리 이 시각도 하늘과 땅은 화염속에 잠겨있다.

어디선가 지심을 울리는 폭음이 들려오고 지평선 한끝에서는 탐조등들이 서서히 교차되고있다.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전조등을 켜고 달려온다.

감격하여 바라보던 당원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간다.

폐허속을 누비며 달려오는 승용차.

달려오던 당원들이 걸음을 멈춘다.

시한탄이 해제된 구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

걱정을 안고 지켜보던 당원들이 《만세!》를 부른다. 마침내 정순의 입에서 《장군님!》하는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고통과 실패와 오뇌로 엮혔던 그 모든것들이 일시에 풀리면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피여 솟구친다.

그들의 마음담아 노래가 흐른다.

수령님 마음속엔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엔 수령님 계시네

태양의 두리에 별무리같이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 설레이는 군중

눈굽을 적시는 녀인들.

영혜가 상도의 손목을 이끌고 사람들속을 헤치고 나온다.

민주선전실앞에 멎어있는 소박한 승용차 한대.  
호위병들이 숙연히 서있다.

### 설화

《위대한 력사가 창조되는 순간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보통날에 아지는 누구도 그 의의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고들 한다. 후날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수놓아진 우리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평범한 날에 마련되고있었다.》

### 선전실안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한자한자 적어나가는 당원들.

정순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붉은 태양이 온 누리를 비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회의록.  
노래가 계속된다.

수령님 높은 뜻을 인민이 받들고  
인민의 소원을 수령님 푸시네  
은혜론 품속에 안아주시는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 길

화물자동차가 전속으로 달려온다.  
운전칸에 앉아오는 병수의 심정은 초조하다.  
《만세!》의 환호성이 들려온다.

### 선전실마당

《만세!》의 환호성이 오래도록 계속되다가 그친다.

관일이 장군들에게 말한다.

《동무들! 장군님께서는 다 마사지고 불타버린 이 자리에 우리가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시었소.》

차에서 내린 병수가 군중들속을 헤집고 앞으로 나온다.

《그러시면서 계급적원썬들과 암해분자들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전쟁의 장래가 막연한것처럼 역선전을 거듭해왔지만 동무들이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당과 운명을 같이한것이 지금보다 귀중하다고 치하하시었소.》

궁지에 넘쳐있는 당원들.

정식외와 영혜가 기쁨에 넘쳐 마주본다.

《그러신뒤에 정순동무가 놈들의 박해속에서 남편까지 잃고도 신념을 잃지 않고 잘 싸웠다고 하시면서 놈들이 정순동무를 박해한것은 정순동무가 당에 충실한 당원이기때문이라고 거듭 치하하시었소.》

병수가 격정에 넘쳐 듣고있다. 관일이 계속 말

한다.

《계속하여 장군님께서는 나는 동무들과 같은 당원들을 믿기때문에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과 맞서 싸우면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설레이는 군중들.

로동자들이 다우쳐 묻는다.

《그리구 또 뭐라구 말씀을 하셨나요?》

《장군님께서는 한가지만은 동무들과 의논해봐야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해방되어 좀 잘 살만하니까 미국놈들이 달려들어 다 마사놓았는데 이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울수 있겠는가고... 글썽 우리들에게 물으시는게 아니겠소.》

감격에 목메이는 관일.

병수가 눈물을 머금고 다가와서 관일의 손을 짚 잡는다.

《세포위원장동무!》

《부지배인동무!》

《그래 뭐라구 말씀을했습니까?》

《정순반장이 이렇게 말씀을했수다.》

### 선전실안

정순이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고있다.

관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장군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전쟁만 이겨주십시오.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 간것도 우리는 2, 3 년안에 다 복구해가지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 살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함없는 함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던 정순이가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의자를 쓸어만진다.

관일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정순동무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의 안광에 눈이슬이 번뜩이시었소.

장군님께서는 <웁소! 바로 그거요. 내가 오늘 동무들을 찾아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소.

동무가 전쟁 3 년동안에 내내 품고오던 나의 믿음을 확인해주었소.> 하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린 모두 같이 울었수다.》

병수가 차광막을 열고 선전실안으로 들어온다.

정순이 눈굽을 닦으며 돌아선다.

《아니. 부지배인동무가?》

병수가 걱정을 안고 다가온다.

《정순동무! 잘 말씀을했소. 정말 잘 말씀을했소!》

자책으로 고개를 숙이는 정순.

《장군님께 숨죽은 로를 보여드린게 가슴이 아파요. 재더미에 쑥대만 자란 우리 공장을 보시고 그렇게두 가슴아파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쓰

게 못해서...》 병수가 고개를 떨군다.

《내 잘못이요. 난 용서받지 못할놈이요.》

《아니에요. 장군님께서서는 부지배인들무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장군님께서는 <그 동무가 신념이 없다보니 계급적원썬들과 잘 싸우지 못한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 동무를 믿어줄 사람은 동무들밖에 없습니다. 동무들이 그 동무를 믿는다면 나도 믿겠소.>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마침내 병수가 걱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흐느낀다.

《장군님!》

정순의 얼굴에도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회의록우에 떨어지는 병수의 맑은 눈물.

관일리와 당원들, 노동자들이 문안으로 들어온다.

노래가 계속된다.

수령님 받드는 끝없는 충성

인민을 아끼는 한없는 사랑

세월은 흘러도 변함이 없이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아-

아- 수령님 우러러 인민은 사네

### 주철직장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로복구에 떨쳐나섰다.

용선로

정순의 붉은 마음인가!

온 직장 한가득 붉은 쇠물이 현란한 불꽃을 날린다.

마치 큰 붓으로 글을 쓰듯 바가지에 쇠물을 받아다 주형에 붓는 정순리와 당원들의 모습이 교차된다.

행진곡이 힘차게 들려온다.

불보다도 뜨거운 사랑

가슴마다 흘러드네

그 사랑에 불타는 마음

붉은 쇠물 끓여가네

### 공장구내

병수와 정순, 관일이 설계도를 펼쳐들고 공장 복구전망을 토론한다.

위장한 군용차우에 수류탄상자를 싣는 노동자들과 군인들.

호송군관이 정순에게 다가와 인사한다.

정순리와 관일리가 그들과 뜨겁게 악수한다,

희열에 넘쳐 바라보는 관일리와 시엽.

수류탄상자를 가득 싣은 군용차들이 줄지어 떠나간다.

정순리와 당원들, 노동자들이 손저어 바래운다.

행진곡이 계속된다.

혁명을 지키는 길에

삶의 보람 있고

당을 따라 가는 길에

우리 한생 빛나리라

떠난 기슭은 천리런가

가야 할 길은 멀어라

수령님 만세 부르면서

세상끝까지 가리라

지평선에 붉은 태양이 솟는다.

정순리와 10 명 당원들이 태양을 향해 끝없이 걸어간다.

### 설화

《걸음마다 준엄한 시련이 앞을 막던 그 시기에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승리와 미래를 위해 싸운 그들의 충성심은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있다.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하는것은 우리모두의 의지로 드팀없는 신념으로 되었다.》

- 끝 -

# 백두산의 눈석이

-삼지연대기념비앞에서-

서봉제

세월은 흘렀건만  
백두의 장군바위우에  
오늘도 흰눈을 밝고 서계시는  
그날의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

고산의 철쭉꽃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여도  
어찌하여 저 흰눈이  
가슴에 젖어 내리는것이나

우리러 다가서면  
지금도 군화밑엔  
그날의 눈석임물  
소리없이 흐르는듯

말해다오 말해다오  
장군님의 어깨너머  
말없이 다가오는  
너 백두의 눈덮인 산발이여

조국의 이 산천  
이 기슭에 기어이 피워야 할  
인민의 봄을 안으시고  
광막한 밀림을  
뜨락처럼 걸으셨던 그 걸음

넘어야 할  
혈전은 앞에 있고  
광야에 달빛도 얼며 부서지던  
밀림속의 겨울은 엄혹하였건만  
장군님 이끄시는 대오앞엔  
그리도 가까웠던 조국에로의 길

울울창창 천고의 밀림  
눈보라치던 행군길우에  
지펴오신 우등불 천이던가 만이던가

동토대의 언가슴을 녹이며  
끝내야 터져온 백두의 눈석이

아, 어버이수령님  
안아오신 조국의 봄  
인민이 기다리던 광복의 봄  
소리치며 전하며 흘렀나니

그 눈석이 따라  
봄물이 흐르고  
그 눈석이 따라  
봄꽃은 강산에 피건만  
오늘도 우리 가슴에 뜨겁게 굽이치는  
그날의 눈석이, 백두의 눈석이여!

아, 피끓는 한시절에  
밀림의 창설을 다 녹이시며  
조선의 봄  
인류의 새봄을 꽃피워오신  
20 대의 청년장군  
위대한 우리의 수령님!

우리러 우리르며  
수령님동상앞에 다가서니  
백두의 그 눈석이  
거세찬 흐름을 안고  
내마음도 함께 흐르는가

이 땅우에  
자주화의 시대를 펼치는  
혁명의 봄노래를 싣고  
누리를 적시며 더웁히며  
끝없는 대하로 굽이쳐흘러라!  
아, 눈석이, 백두의 눈석이여!

# 나는 이 땅의 정의로운 수호자

백의선

기대앞에서 땀흘린 어깨우에  
충을 메고 나서니  
정든 거리여  
너의 창문 하나 나무 한그루  
내 가슴에 얼마나 더 소중한가

구슬땀 뿌리며 건설한  
나의 공장 지붕을 향해  
미제의 핵탄두가 겨누어지고  
내 행복 뿌리내린 집을 노리며  
침략의 포차들이 달려드는 이 시각

쇠물빛 노을도 증오로 붉어지고  
불어오는 바람결도 분노를 터뜨린다  
오, 가슴에 우뢰울고  
충도 몸부림친다

이 거리에  
로동의 기쁨으로 가슴 채워주는  
나의 기대와 작업반이 있고  
한생을 혁명을 언약한  
나의 당세포가 있다

이 거리에  
딩굴며 자란 모래불 있고  
우리 아이들이 글배우는 학교가 있다  
명절이면 꽃배 떠가는  
아름다운 강이 있다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 바치시어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시는  
아름다운 생활의 모든것을  
내 여기서 신성한 조국으로 받아안았거니  
정든 거리여  
행복해도 너는 나와 한 운명  
준엄해도 너는 나와 한 운명

용서할수 있으랴

세발자전거 굴러가는 저 트랙을  
원썬들의 무한궤도가 짓이기는것을  
용서할수 있으랴, 용서할수 있으랴  
사철 꽃이 붉은 저 창가에  
원썬들의 포탄이 날아드는것을

미제침략자들아  
네놈들이 남녘의 하늘과 땅을  
화약연기로 가득채운 오늘도  
나는 기대에 만족의 불바람을 일कु며  
네놈들의 머리와 수자로는 못 헤아릴  
심장의 화력을 준비한 이 땅의 공민

네놈들이 작전대우에 지도를 펼치고  
우리 땅을 넘겨다 볼 때  
조성너머 네놈들을 주시하며  
뜨거운 가슴을 사격좌지에 대고있는  
나는 이 땅의 정의로운 수호자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리와 조국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량심을 위하여  
조선의 로동자 나는  
정의의 총검을 높이 들었거니

총이여  
달랠길없는 이 마음을  
너만이 풀어주리라

뽑어도 뽑어도  
진함모를 분노가 재워진 이 총  
방아쇠를 당기고 당기여도  
내려가지 않을 증오로 만탄창한 이 총

만약 미제와 전두환피뢰들이  
분별없이 우리에게 덤벼들어  
이 총이 한번 불을 뿜는 그날은  
원썬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리라  
원썬들의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리라

## 우뢰소리

한웅빈

나는 벌써 세시간째 도면 두장을 놓고 앉아있었다. 두장 다 래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2 호반응탑조립공정도였다. 첫번째 도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벽돌쌓듯 차례차례 조심하게 된 공정도였고 두번째의것은 10 메터에 달하는 반응탑을 땅에서 조립하여 통채로 일으켜세우게 된 묶음식확대조립공정도였다.

나는 벌써 며칠째 적지 않은 시간을 두번째 도면의 검토에 바쳤다. 조립은 래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었다. 더는 결론을 지체할수 없었다.

허나 그 도면에 수표하기 위하여서는 자그마한의혹도 없는 굳은 확신이 필요했다.

반쯤 열어놓은 창문으로 단조로운 매미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나는 방안이 숨막힐 지경으로 무덥다는것을 느꼈다.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서늘한 바람 한점 불어들어오지 않았다.

석양이 가까와오는 서쪽 산마루에는 불길한 검은 구름이 겹겹이 쌓여 숨쉬듯이 부풀어오르고있었다.

나는 어제밤에 먼 우뢰소리를 들었던것을 상기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안해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주무세요. 우뢰소리가 아니예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나는 그 말을 믿는척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고서도 우뢰소리가 다시 울려올듯만싶어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나에게는 우뢰우는 밤이면 잠들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경의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구내기관차의 날카로운 기적소리와 혼잡기, 쇠석기의 소란만 음향속에서도 꿈없는 깊은 잠에 취할수 있는 사람이다. 지어는 발파의 폭음도 나를 깨우지 못할 때가 있다. 요즘 사람들은 무슨 탈이든 신경으로 인한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나의 안해는 의사이지만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왜 우뢰우는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서 떠나지 못하는가를 알고있다.

한때는 그 역시 신경의 탓이거나 건설장에 대한 걱정때문이라고 생각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있다. 때문에 우뢰우는 밤이면 그도 잠들지 못하며 제나름의 추억에 잠긴다. 아마 오늘 밤도 창문을 빈틈없이 눌러닫고 고성기소리를 높여놓을것이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턱을 짚고 돌아섰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기술 혁신돌격대성원들이었다.

그들중에는 처녀도 한명 끼여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빨간 수건이 신호기발처럼 팔락거리었다. 바람 한점 없는 방에서 머리수건이 팔락거리는것이 이상스러웠다. 빨간 수건은 곧 넓은 어깨와 등뒤에 숨어버렸다.

나는 그들이 온 목적을 묻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그들은 2 호반응탑을 통채로 조립하여 일으켜 세우자는 모험적인 발기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었고 래일부터 직접 시공하게 될 주인들이었다.

아닐세라 대장의 눈길은 책상우에 펼쳐져있는 도면부터 스쳐보았다.

《기사장동지,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곧 《결론을 내려주시오.》하는 말이다.

매미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온다. 여름철 풀벌레들의 소리는 무더움의 선물인듯하다. 그놈은 무더위에 즐거움조차 느끼는듯하다. 창밖으로 무엇인지 팔매질한 돌맹이처럼 휙 날아가는것이 유리창에 얼른거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제비 한마리가 땅을 스칠듯이 낮추며서 잠자리를 쫓아가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돌리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한소나기 쏟아지겠구만.》

빨간 수건이 청년들의 어깨사이로 내다보며 웅성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나기가 올거예요, 일기에보가 있었어요.》

두눈은 소나기가 오는것을 기뻐하는듯 반짝거렸다. 그는 겨우 갓스물에 잡혔으나 2 호반응탑조립에서 한몫할 대형권양기의 책임운정공이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알려주었어요.》하고는 그는 당황한듯 인차 얼굴을 붉혔다.

대장은 몸을 움직여 그의 얼굴을 막아버렸다.

《걱정마십시오, 기사장동지 방지대책은 다 세웠습니다.》

결론이나 빨리 내려달라는 독촉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와 불안이 어리기 시작하는듯했다.

나는 책상우를 내려다보았다. 두번째도면대로 하면 속도는 4 배로, 시간은 4 분의 일로 충분하다.

건설자들에게 속도와 시간만큼 유혹적인것은



없다. 나는 이제까지 두번째도면에 열중해왔었다.  
여러명의 기사들을 더 인입하여 조립도면을 완성하였다.

도면은 벌써 몇차례의 검토를 거쳤다. 매개의 선들과 수자들을 나는 뜬금으로도 외울수 있었다.

모든것이 원만한듯해보였다.

그러나 정확하다는것이 명백해질수록 의혹과 불안은 커지기만 했다.

만일 하나의 착오라도 발견하였더라면 불안감은 덜어졌을는지도 모른다.

몇달전 전해직장의 대형트라스를 통채로 올릴 때도 바로 이러했었다. 시공에서는 실패하고말았다. 트라스가 땅에 떨어져 두겹절의 시간과 로력을 들여서야 회복할수 있었다.

착오란 실패한 뒤에야 발견되는것이다. 트라스 확대조립의 실패원인도 후에야 도면에서 찾아냈다.

만일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결과는 상상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과묵적일것이다. 반응탑은 트라스처럼 고쳐서 쓸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나는 책상우의 첫번째 도면에 수표를 하여 내밀었다.

대장은 얼른 받아들고 도면을 욕심스레 들여다보았다. 다른 청년들도 도면우에 머리를 모았다.

처녀는 그들의 어깨사이로 들여다보려고 애쓰다가 대장의 앞으로 돌아나와 들여다보았다. 대장은 머리를 쳐들었다.

《이건 그전 도면이구만요.》

모두들 의혹에 찬 눈길을 쳐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산마루에 쌓였던 검은 구름장들은 벌써 거의 하늘절반까지 자라났다. 겹겹이 쌓인 구름장들 사이에서 햇빛이 위협적인 사선으로 비껴내리고있었다.

처녀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도면을 헛갈리게 아닐까요?》

나는 돌아섰다. 될수록 랭정하게 말했다.

《그 도면대로 하시오.》

《예?!》

침묵이 흘렀다. 대장의 손에서 도면이 바스락대는 소리만이 방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 도면대로 하는게 좋겠소.》

정적속에서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건 전해직장의 트라스정도가 아니라 30 메터의 탑이요. 트라스는 다시 고쳐 쓸수 있지만 반응탑은 실패하면 끝장이요.》

구내기관차가 예리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나는 언성을 높였다.

《대형트라스 올리던 때를 잊지 마오.》

대장이 반박했다.

《그 실패원인은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찾았지.》

《두번째에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구내기관차소리는 멀어졌다. 그러자 대장의 목소리는 방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우리는 서로 싸우듯이 소리쳐 말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조용히 긍정했다.

《했지.》

《그런데 왜 이 도면대로 하자는겁니까? 반응탑이 트라스와 다른 점이라면 크다는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소. 그러나 의학부문에서는 소아과의사들에게 첫강의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오? <어린애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고 말하오.》

나는 언제인가 안해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읊겼음을 깨달았다.

그때 처녀가 내 말에 반박해나섰다.

그는 아까부터 하고싶은 말이 많은듯 마른침을 연신 삼키고있었다.

《하여튼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되겠지요? 또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같을수가 있어요?》

《뭐요?》

처녀는 어느사이 눈물이 글썽해졌다.

《야 정말 기사장동진 왜 실패할 경우만 생각합니까?》

론리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를 론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키기는 어려웠다. 그에게는 감정과 흥분만이 있었다. 한가지 수단 밖에는 없었다. 하여 나는 그 수단을 썼다.

《동문 뭐요? 중뿔나게!》

처녀는 입을 다물고 청년들의 뒤로 물러섰다.

우는것 같았다. 한 청년이 돌아보며 뭐라구 말해주는것이 보였다.

달래는것 같았다.

대장은 쥐고있던 도면을 도로 내밀었다.

《이 도면은 받을수 없습니다. 기사장동지의 도면을 주십시오.》

나는 애써 랭정하려고 했다.

《나는 거기에는 수표를 못하겠소.》

《예?》

원망에 찬 눈길로 나를 지켜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사장동지가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래일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도면을 책상우에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다.

청년들은 분개한 시선을 나에게 던지고 그를 따라 나갔다. 처녀는 머리를 숙인채 맨뒤에서 나갔다. 이때는 그의 머리가 손이 팔락거리지 않았다. 문을 닫을 때에야 약간 팔락거리리는듯했다. 아까 팔락거린것도 문을 여닫는 바람때문이었었던것이다.

나는 결상에 앉았다. 가슴은 허전하였고 마음

은 무거워지기만 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은 듯 몸이 불안했다.

전화종이 울렸다.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가 취재하러 왔는데 만날수 있겠는가 하는 지도원의 전화였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은 시간이 없소. 현장에 나가봐야겠소. 저녁 시간에 만나잔다고 하오.》

《알겠습니다. 기사장동지의 방에서 기다리게 할가요?》

《좋소. 그렇게 하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나는 저녁시간까지 사무실로 돌아갈수 없었다. 가는곳마다에서 발목을 잡히었다. 건설장이란 원래 그런곳이었다.

어느사이 날이 어둡기 시작했으나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있었다. 모든 대상을 돌아보려고 서둘렀을뿐이었다.

3 호뿔프장에서 또 지체되었다. 나이지숙한 뿔프온전공녀인이 나를 보고는 길다란 하소연을 시작한것이었다. 그는 물을 쓰는 사람들의 물배관관리를 잘 하지 않아 수압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고도 뿔프장만 욕합네다그러. 물이 채구멍처럼 빠져나가는데 뿔프공인들 어찌겠나요?》

《대책을 세웁시다.》

그때 뿔프장문이 열렸다.

《어머니!》

나는 돌아보았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가 문간에 서있었다. 아까 내 방에 왔던 권양기운전공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금시 돌아설듯 주춤거리었다.

《어마나 기사장동지가...》

녀인은 그에게 눈을 흘겼다.

《인사할줄도 모르냐? 지금 애들이라는게... 내 딸입네다.》

하고 그는 처음의 화제에로 또 되돌아갔다.

《물쓰는데선 하루종일 물을 열어놓고있지요. 혼합장에선 발브아래에 물도랑이 더 패웠습데다.》

처녀는 녀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어머니!》

녀인은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딸을 돌아보았다

《내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했냐? 난 그저...》

《어머닌 정말... 기사장동지는 바빠요.》

나는 아직 2 호반응답현장에 못가보았다는것을 생각했다. 처녀는 그것을 암시하라는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뿔프장에서 나와 2 호반응답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몇발자국 못갔을 때 어둠속에서 아까 전화를 걸었던 지도원이 불쑥 솟아나왔다.

《아니? 기사장동지 아직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사동무가 사무실에서 아까부터 기다리는데요.》

《아뿔사!》

그때야야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이 생각났다.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기자는 젊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보다 많은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일꾼들이란 자기의 일터, 자기의 사람들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연신 번저지는 취재수첩에서 부지런히 사각저리는 기자의 만년필을 만족스레 지켜보며 이야기했다. 때때로 그는 요령있는 질문으로 나의 이야기를 더 풍부해지게 했다.

얼마후에 그는 이렇게 청했다.

《기술혁신돌격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십시오.》

나는 그들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할 이야기는 무척 많았다. 그런데 얼마후에 보니 기자는 쓰고있지 않았다.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얼마간 더 이야기했으나 그는 역시 쓰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대장동무를 만났습니다. 2 호반응답조립전망에 대하여 듣고싶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대장동무가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기사장동지한테서 들으라더구만요.》

《전혀 못들었습니다까?》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요.》

《그렇다면...이야기 합시다.》

나는 채털이를 앞으로 끌어당겨놓았다. 조립공정에 대한 두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묶음식확대조립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시공자인 돌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나도 역시 그렇게 하고싶다. 그러나 새롭고 대답하라고 하여 충동대로 지지할수 없는것이 일꾼의 고충이다. 그것은 다감한 젊은 이들에게나 알맞을 기질이다. 말로 듣기에는 이만저만 매혹적이 아닌 발기들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나는 불현듯 입을 다물었다. 변명하듯 중언부언하는 자신을 발견했던것이다. 나는 성급히 담배를 빨았다. 찬김만이 빨려들어왔다. 담배불은 이미 꺼진지 오래다.

《그 방법을 발기한 동무는 어떤 동무입니까?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기자의 말에 나는 빠른 말씨로 대답했다, 빨라지는 말씨에서 나는 점점 초조감에 싸여가는 자신을 느꼈다.

《만나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할겁니다.》

《예?》

기자는 나를 쳐다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리해되지 않는데요.》  
 나는 대답 대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집어들었다가 도로 놓았다.  
 《발기한 사람이야 왜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수밖에 없지요. 발기한 사람은 나니까요.》  
 《예?!》  
 밤나비가 방안으로 날아들어와 전등결에서 푸드득거렸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기자는 잠시후 수첩을 털고 일어났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반응답을 통채로 조립하여 일으켜세우자는것은 내가 착안한것이였다. 그리고 술한 지지와 반대속에서 계속 내밀어왔다.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 오자 나는 자신을 잃어버렸다. 불안과 의혹, 못미더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실패한 전해직장의 대형트라스가 뇌리속에 되살아났다. 시간이 갈수록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있는듯한 예감이 커가기만 했다. 이제는 그것이 명백한 불안으로 되어 나를 짓눌렀다.

밤길은 캄캄했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얼마앞에서 외등불빛이 보였다. 2 호반응탑조립이 시작될 현장이였다. 나는 반응답현장으로 걸고 있었다. 걸으면서도 망각한것이냐 없는지 부족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것만 알게된다면 나는 두번째 도면에 주저없이 수표할 것이다. 무엇을 놓쳤을가.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알아낼수 없었다.

나는 반응답기조부근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등 아래까지는 가지 못했다. 퇴근하는 길인듯한 돌격대원들이 그 밑에서 떠돌고있는것이였다.

《하여튼 기사장동지는 늙었어. 소심하구 겁이 많아 지구...》

하는 말에 뒤이어 대장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만두오. 기사장동지도 생각되는 바가 많아서 그러는게요. 이게 보통일이요?》

《큰일일수록 담이 커야지요. 기사장동지만 믿다가 우리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동기를 밝힌셈이지요.》

나는 얼굴으로 뜨거운 피가 왈칵 거슬러오름을 느꼈다. 참기 어려운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동무들이 하려는 일을 언제 내가 반대한 적이 있소? 지지하지 않은것이 있소? 동무들의 발기가 목살된것이 뭐가 있소? 말해보란말이요!》

아까의 그 목소리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내 웨침을 듣기라도 한듯 언성을 돋구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발기에는 적극적이던 기사장동지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요? 자기가 발기한것이기때문이 아닙니까. 이건 보신주의란말입니다!》

대장이 그의 말을 막았다.

《동무넌 아직 모르오. 대형트라스를 두번만에 해놓고 우리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사장동무는 총국사고심의에서 경고책벌을 받았소.》

조용해졌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것 같았다. 그 일에 대해서는 건설장에 아는 사람이 극히 적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자신이 어텐가 수난자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게 투덜거렸다.

《책벌을 받았어도 그렇지요. 자라한데 놀라고는 술뚜껑 보구도 놀란다더니...》

나는 대장의 노한 꾸중이 터져나올줄 알았다. 그러나 조용했다. 그들은 묵묵히 외등밑을 떠나 어둠속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침묵은 긍정과도 같은것이다.

나는 숨이 가빠움을 느꼈다. 이런 비난과 모욕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옆은 반응답의 기초자리였다. 갑자기 머리우에 찬물벼락이 쏟아져내렸다. 나는 채찍이라도 맞은듯하여 후닥닥 물러섰다. 터진 물배관에서 물줄기가 뿜어나오고있는것이였다. 얼굴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때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고 나왔음을 깨달았다.

물줄기는 계속 뿜어 나오고있었다. 뿜프공녀인의 말이 떠올랐다. 확실히 물배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터진 배관을 막을만한 물건들을 주위에서 찾아보았다. 옆에는 반응답의 부분들이 길게 놓여있었다. 한옆으로 빼어져나온 쇠줄꼬트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부분들을 고정시킨것이 빠진듯 철관 부딪치는 소리가 소란스레 울렸다. 그 소리는 메아리를 지르며 밤 대기를 흔들어놓았다.

나는 무슨 몸쓸 장난이라도 하다가 들킨듯하여 당황했다. 게다가 외등 근처에서 너자의 예리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누구예요?》

그것은 틀림없이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의 목소리였다. 그가 이쪽으로 오는것 같았다. 뒤에 돌격대원들이 물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그날밤 나의 심리는 이상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것이 싫었다. 두려웠다. 그 누구에 대한 노여움이였다고 할가 자신에 대한 환멸이였다고 할가 굳이 말한다면 패배자의 심리와 비슷했다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반응답현장의 뒤산등성이 소로길에 서있었다. 주력지구로 가는 그 지름길을 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아침 출근시간이 늦은 사람이나 사정 급한 사람들이 다닐뿐이였다. 밤에 이 지름길을 걷는다는것은 벌써 어떤 비상한 사건을 의미했다.

그러나 나는 그 길로 들어섰다. 내려가면 돌격대원들과 마주칠것이기때문이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날밤 나의 심리는 이상했다. 나는 혼자 걷고싶었다. 혼자 있고싶었다.

흙덩굴이 때때로 발을 걸어챘다. 너무도 어두워서 소로길을 제대로 가려내기 어려웠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소나무와 떡갈나무, 때때로 오리나무섞인 혼성림이 시작되었다. 흰 봇나무도 있을것이지만 어둠속에서 나무들은 죄다 한가지 색채로만 보였다. 밤새가 우는 소리도 없었고 나무 설레는 소리도 없었다. 숲은 답답하고 숨막힐듯한 정적으로 포화되어있었다. 나무가지들이 얼굴을 때렸고 거미줄이 껌진껌진하게 달라붙었다.

왜 두번째도면이 그토록 못미덥게 느껴지기만 할까. 도면에서는 아무 부족점도 못찾지 않았는가. 그것은 일종의 예감이였다. 생활에서는 예감이 적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처럼 나이든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도 예감을 무시하고 일을 내밀다가는... 실패에서 얻는 교훈이란 언제나 값비싼것이다. 건설장이란 교훈을 값비싸게 얻기 위한 실험실이 아니다.

나는 무슨 나무엔지 호되게 부딪치고 멈춰섰다.

숨이 가빠왔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지어 흘렀다. 옷은 물에 젖은듯 철떡철떡 몸에 달라붙었고 현기증이 났다. 나는 나무에 기대어 숨을 돌렸다. 넓은 나무잎이 얼굴에 와닿았다. 오리나무잎사귀였다. 치워버리고싶었으나 손을 올리기가 힘들었다. 어느 사이 이렇게 늙고 허약해졌는가.

《기사장동지는 늙었어...》하는 말이 다시 현실적으로 안겨왔다. 가슴이 아파왔다.

대기는 달아오른 납덩이처럼 무겁게 숨길을 틀어막았다. 지독한 더위였다. 나는 한결음도 움직일수 없음을 느꼈다.

순간 푸른 섬팡이 번쩍 하고 머리위로 줄달음쳐갔다. 뒤이어 파르릉 하는 우뢰소리와 썩-하는 바람소리가 숲을 휩쓸었다. 굶다란 비방울이 우박처럼 투박투박 나무잎을 두드리며 떨어졌다. 몇초가 지나자 비발은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소낙비였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무더위는 대기중의 먼지와 함께 비에 씻겨 땅속으로 잦아드는듯했다.

비소리는 양철지붕아래에 섰을 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술한 나무잎과 풀잎들이 비방울을 맞으며 제 나름의 소리를 질러댔다. 비줄기는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듯하다. 비물이 목덜미를 타고 잔등으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철벽철벽 걸었다.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병긋 번개가 친다. 나무사이에서 사람의 모습 같은것이 불쑥 드러났다가 꺼져버린다. 마치 머리수건과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너자의 모습 같았다.

밤의 불빛은 여러가지 환상을 끝잘 만들어낸

다.

바위를 도사리고 앉은 짐승으로, 나무그루터기를 웅크린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나는 계속 걸었다. 미끄러져 비틀거리며 얼굴로 흐르는 비물을 뿌려던지며...

이런 밤에는 나는 안정을 잃으며 잠들지 못한다. 추억의 오솔길을 따라 끝없이 걷는다. 번개치고 우뢰우는 밤에는...

그밤도 무더운 여름밤이였었다. 하늘도 땅도 칠혹같은 어둠속에 한덩어리로 버무려진것 같았다.

락동강가의 한 여름밤이였다.

적진을 돌파하고 한치한치 교두보를 넓혀나갈때 나는 세찬 타격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다. 밀려드는 적들에게 던지려고 수류탄을 뽑아들던것이 마지막 기억이다.

얼마후 정신이 들었을 때는 누구의 잔등엔지 업혀워가고있었다. 어린 소년에게 업힌듯했다. 좁다란 어깨와 힘겹게 들리는 잦은 숨소리, 가느다란 팔...

얼굴에 무엇인가 계속 스쳤다. 치워버리고싶었으나 손이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거기에는 나팔꽃향기 비슷한 냄새가 풍겼다. 나는 나팔꽃이 휘감긴 나무들밀을 걷는것으로 알았었다. 얼마후에야 그것이 머리칼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귀밑까지 드리운 너자의 머리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떻게 되어 처녀의 등에 업혀가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 아무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토록 그때 나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군하였으나 그것도 일종의 허탈상태에 가까웠다.

숨막힐듯한 대기속에서 눈부신 섬팡이 번쩍거렸고 우뢰소리가 머리위로 흘러갔다. 나에게는 탄광에서 밀고다니던 버력실은 광차가 정수리위로 와르릉거리며 굴러가는것 같았다. 그날밤의 대기가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로 이루어져있었던듯 회상된다.

우리는 숲속을 걷고있었다. 한발자국한발자국의 진동이 참을수없이 고통스러웠다. 잠시라도 안정하고싶었다. 땅은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그우에서라면 편안할것이다. 굳은 대지와 축축한 흙냄새가 그리웠다.

《동무 날 좀 내려와주요.》

처녀는 못들은듯 그냥 걷기만 했다.

《날 내려와주요. 처녀동무!》

《상등병이예요. 간호원이예요.》

《상등병... 나와 같구만 그런데 왜 그냥 가기만 하오? 동문 힘들지 않소?》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내려와주지 않소?》

《다시 못일어날것 같아서요.》

나는 의식을 잃었다. 모든것이... 고통조차도 망각속에 흐려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의식을 들이켰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가고있었다. 고통은 몇배로 되어 돌아왔다.

《간호원동무, 날 좀 내려봐주오.》

《……》

《부탁이요. 잠깐만이라도…》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서 내려봐주오.》

나는 그때 희망을 잃고있었다. 그러한 고통의 뒤에 삶이 있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러한 고통의련속이 삶이라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다. 나는 나의 삶을 믿지 않았다.

허나 처녀는 계속 걸기만 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 총소리에야 나는 정신을 똑똑히 차렸다. 적들의 총소리였다. 숲속에 숨어있던 패잔병들의 무리일것이다. 우리에게 향한 총소리라는것을 나는 즉시로 깨달았다.

나는 다시금 처녀에게 내려놓아달라고 요구했다. 빌어도 보고 소리도 쳐보았으나 그는 한가지 대답밖에는 몰랐다.

《참으세요. 참…》

털썩 그는 앞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나를 잡은 두손만은 늦춰지지 않았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고 애쓰던 그는 또 쓰러졌다.

《간호원동무!》

《참으세요. 조금만… 조금만…》

그는 마침내 일어섰다. 앞으로 꼬꾸라질듯 몇걸음 비칠거리며 나가다가 탁 밟어섰다.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나무에 부딪친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말만 계속 중얼거렸다.

《참으세요… 참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처녀는 헛소리를 하는것 같았다. 우리 둘중에서 누가 헛소리를 하는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얼마후에 총소리가 또 울렸다. 머리우에서 총탄에 갈라진 나무가지들이 떨어져내렸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총소리를 잔등으로 들으며 전투한적은 아직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직 이 몸에서 흐르고있는 피를 복수에 바치자, 그리고 처녀에게서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주자, 가다가 죽느니보다 싸우다가 죽으리라.

나는 몸부림쳤다. 처녀는 비칠거리다가 맥없이 푹 쓰러졌다. 목은 나무잎들속에 얼굴이 묻혔으나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잠들어버린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쳐들었다, 놀란듯 일어나 나의 팔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나를 이대로 뒤투오. 더는 가지 않겠소. 동무가 먼저 가오.》

《안돼요. 난 간호원이예요.》

《나를 여기에 가만 뒤투오.》

두그루의 어린 단풍나무가 내앞에 솟아있었다. 나는 그 가느다란 밑둥을 움켜쥐었다. 꺼실꺼실한 줄기가 부드럽고 싸늘하던것을 기억한다.

처녀는 헛되이 나의 손을 물어보려고 애썼다.

그 손은 너무도 작고 연약했다.

그는 어쩔바를 모르고 허둥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도움을 청할곳이란 없었다. 그는 나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왜 그러세요? 빨리 가야잖겠어요?》

《어서 떠나주오. 부탁이요.》

나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빨리 떠나주오. 적들이 더 오기전에 어서 가오. 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용하세요.》

그는 내 머리를 조심스레 쳐들고 무릎을 배워주었다. 얼굴의 땀을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은 고통스러울만큼 부드럽고 서늘해왔다.

《어서 가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날 이대로 뒤투오. 저놈들과 마지막 결산을 해야겠소.》

《안돼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동무도 나도 조금앞에 죄를 짓는거예요.》

나는 그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나도… 알고있소… 그렇지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단풍나무잎사귀들이 까만 별처럼 처녀의 머리우에 떠있었다. 그 잎사귀들사이로 번개섬광이 번쩍거리는 붉은 하늘이 올려다보였다.

《나는… 못가요.》

처녀의 손이 내 얼굴에서 미끄러져 축 늘어졌다. 내 목소리가 하도 조용하고 태연스레 울린 때문이었을것이다. 얼마후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물었다.

《왜 못가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나는… 죽을 사람이요.》

《에?!》

하늘이 다시 섬광으로 붉게 물들었다. 하얗게 질린 처녀의 얼굴주위에 떠있는 까만 《별》들이 바르르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자그마한 손 역시 떨리고있었다.

《총을 이리 주고 어서 떠나오. 내가 바래주지, 자 어서.》

처녀는 화석으로 변한듯했다. 다시한번 되뇌여서야 목에 걸렸던 총을 벗어놓았고 수류탄을 꺼내놓았다. 다음은 녀자의 본능적인 동작으로 머리를 숙유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듯했다.

나는 독촉했다.

《어서!》

그는 멍한 눈길로 나를 지켜보더니 수류탄을 도로 집어들었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았다. 미소를 지어보였다.

《잘 가요. 간호원동무!》

그는 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은채 한걸음 두걸음 천천히 물러갔다. 그러나 세발자국만에는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는 울기 시작하였다.

나는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떨리며 오르내리는 소년같은 좁다란 어깨를 눈앞에서 지워버릴수 없었다. 억제된 흐느낌소리는 나의 가슴속에 송곳처럼 예리하게 들어박히었다. 그가 단 한마디 말이라도 입밖에 내였더라면 나는 차라리 편했을 것이다. 굴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흐느껴울기만 했다. 나는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헛된 일이었다. 심장의 귀는 막을수 없었다...

나는 굴복하고말았다.

《가가요! 마지막까지 가보지요.》

다시 떠났다.

혹심한 갈증에 시달렸던것을 기억한다. 가슴속에서는 땀결게 단 쇠덩어리가 들어박혀 내장을 송두리채 태워버리는것 같았다. 나는 물을 찾았다. 의식을 잃었을 때는 헛소리로 물을 찾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강력하게 요구했다.

《물을... 물을 주오!》

《참으세요... 물이 없어요. 참으세요.》

나는 바삭거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데선가 가까이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선명하게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저게 물소리구만, 왜 물이 없다고 하요? 동문 들리지 않소?》

처녀는 멈칫거렸다. 나는 출렁-하는 물소리를 방불히 들었다. 그리고 쇠-하는 물흐름소리... 발 밑에도 대기중에도 온통 물소리만이 서렸다. 처녀는 대답했다.

《바람소리에요. 황철나무속을 바람이 지나갈 때면 저런 소리가 나요.》

나는 갈증으로 몸부림쳤다.

《물 물을!》

《물소리가 아니에요.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서서히 혼수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무엇이 가 차거운것이 발을 적셨다. 그후의 일을 나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시내물을 건느고있다는것을 깨달았을뿐이었다.

여기에서 나의 회상은 중단되였다. 번개불빛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가 사라지는것을 똑똑히 보았기때문이었다. 나는 멈춰섰다.

착각이라고 단정했다. 소나기내리는 사나운 밤

숲속으로 들어올 사람이란 있음직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다시 번개가 지나갔다. 그때 나는 얼마 옆의 나무에 붙어서서 이쪽을 지켜보는 한 처녀

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밤의 숲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나는 소리쳤다.

《거 누구요?》

《.....》

혹시 길을 잘못들어서 헤매는 처녀가 아닐가, 십중팔구는 그럴수도 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요? 내 기사장이요!》

《어마나 기사장동지!》

처녀는 안길듯이 마주 달려왔다. 뜻밖에 빨간 머리수건의 그 처녀였다.

《동무가 웬일이요?》

그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는 소낙비내리는 밤의 숲으로 들어설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처녀는 내 손에 매달려 가쁜 숨결을 뿔으며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다. 나는 불안한 예감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얼마후에야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음성은 겨우 들리리만큼 낮았다.

《기사장동진 이상한 사람을 못봤어요?》

《응?》

《웬 사람이 우리 건설장에서 머물거리다가 여기로 들어왔어요!》

나는 아까 착각으로만 여겼던 사람의 모습의 생각났다. 숲속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비는 시작될때처럼 갑자기 멎은것이였다. 처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기사장동지두 보셨나요?》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아이 그럼 기사장동지도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셨구만요.》

그는 숨도 돌려주지 않고 소곤거렸다.

《모자도 안쓰고 머리칼이 푸시시하게 일어나구...시켜면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자 물배관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물배관?》

나는 가슴이 섬찍하는것 같았다.

《반응탑조립준비 해놓은것도 헛클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예요?> 라고 소리치니까 얼른 이 쪽으로...》

《응?》

나는 연신 꼭 쥐었다놓았다하는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뺏으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는 나에게 나를 고발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바로 나를 따라왔다. 내가 아까 착각으로 여겼던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처녀였던것이다.

그는 아직 나의 이상한 태도를 느끼지 못한듯 계속 말했다.

《정말 별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요.》

나는 기계적으로 그의 말을 반복했다.

《그래? 알아봐야지.》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처녀는 무척 놀란듯했다.  
 《왜 그쪽으로 가나요? 이쪽이에요.》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목  
 소리가 목안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웅글고 공허하  
 게 울리는것을 느꼈다.  
 《이쪽이요. 집으로 가가요.》  
 《예?》  
 처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오도카니  
 서있기만 했다. 자세는 의문부호처럼 보였다.  
 물소리가 끝안을 흔들며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서있었다.  
 처녀는 잠시후에야 주춤주춤 따라왔다. 그러더  
 니 나의 모습을 다시 눈여겨보고는 놀란 소리를  
 질렀다.  
 《어마나!》  
 나는 웃으려 했으나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처  
 녀는 자신없이 떠듬거리었다.  
 《그... 그럼기사장동지가...》  
 비뚤은 하늘에서는 구름장들이 툭툭 갈라지며  
 달빛이 한두줄기 쏟아져나왔다. 우뢰소리는 지평  
 선으로 물려가고있었다.  
 처녀는 어느 사이 떨어질세라 내옆에서 바싹  
 따라왔다. 나무잎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똑똑히 들렸다.  
 《저-그런데 기사장동지는 왜 여기로 혼자 들어  
 왔나요?》  
 《알고싶소?》  
 《예.》  
 나는 눈앞을 막는 나무가지를 옆으로 밀어놓았  
 다.  
 《그건 내가 아마 보신주의자기때문인지도 모르  
 지.》  
 처녀는 당황한듯 잠시 침묵한채 따라오더니 가  
 늘게 한숨을 쉬었다.  
 《다 들으셨구만요.》  
 《들었소.》  
 《.....》  
 말없이 걸었다. 나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다.  
 이 처녀가 내 말을 이해했을까. 내가 얼마나 피  
 로운지를 알수 있을까.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라  
 는 의혹을 가지고있지 않을까?  
 나는 축축한 얼굴을 힘껏 문질렀다.  
 《이상스러울테지.》  
 《기사장동지 그 말때문에 너무 피로와하지 마  
 세요.》  
 처녀의 말은 쟁쟁하게 울렸다. 그는 나를 리해  
 한것이었다.  
 《우리 대장동무는 기사장동지가 일에 빈틈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나는 허거프게 웃었다.  
 《동무가 나를 위안하는구만.》

마치도 자그마한 새가 앞에 나타나 연약한 나  
 래를 펴고 먼 하늘가로 실어다주겠다고 하는것  
 같았다.  
 《아니예요. 위안이 아니예요.》  
 처녀의 말씨는 무척 빨랐다.  
 《제가 뭐길래 기사장동지를 모욕하겠어요?》  
 《!》  
 위안하는것이 나를 모욕하는것임을 알고있다는  
 것이 놀라왔다. 새로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  
 다. 결코 자그마한 새가 아닌듯도 했다. 하기는  
 우리울고 번개치는 밤에 숲으로 혼자 들어온 그  
 였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에 고유한, 특히 처녀들  
 에게서 선천적인듯한 자연과 어둠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는듯했다. 사람의 심장은 그 사람의 주  
 먹만하다지만 그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다.  
 《왜 그렇게 보세요. 전 진정을 말했어요. 우리  
 대장동문 래일아침이면 기사장동지가 두번째 도  
 면에 수표하실거라구 말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정말이요?》  
 《예, 정말이에요.》  
 《동무도 그렇게 믿소?》  
 《...저도 믿고싶어요.》  
 《고맙소.》  
 무엇때문에 고맙다고 했는지 나도 알수 없었  
 다.  
 《아이 이젠 다 왔어요.》  
 하고 처녀는 부르짖었다. 그는 분명 나와 헤어  
 지게 된것을 기뻐하고있었다.  
 우리는 숲언저리에 서있었다. 처녀의 집은 잡  
 관목이 듬성듬성한 공지너머에 있었다. 저 멀리  
 2 층집의 창문들이 보였다. 구름장사이로 흘러나  
 온 달빛아래서 비에 젖은 지붕이 옷칠을 한듯 번  
 쩍거렸다. 우리는 헤어졌다.  
 달빛이 내 그림자를 발밑에 던져놓았다. 그림  
 자는 나보다 키가 어방없이 작고 앙바름하여 머  
 리에 발이 붙어있는 난쟁이처럼 보였다. 나는 쓰  
 겹게 중얼거렸다.  
 《별래 보인단말이지... 그런데도 믿고싶다?...》  
 우르릉-지평선에서 먼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소나기는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다. 여름소  
 나기는 세번을 내리고야 멎는 법이라고 한다. 먼  
 우뢰소리는 부드러운 파도소리처럼 들려온다.  
 락동강반의 그 여름밤... 그 밤에 소나기는 오  
 지 않았다. 번개와 우뢰는 땅에서 일어나는 전선  
 의 불타는 화광과 포성이였었다. 허나 우뢰소리는  
 항상 잠못들게 하며 잊지 못할 그 시절어로  
 나를 이끌어간다. 아마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것  
 이다. 나는 다시금 추억으로 빠져들어갔다.  
 ...의식을 들이켰을 때 나는 담가에 실려있었다.  
 아침노을속으로 누런빛 천막지붕들이 바라보였  
 다. 야전병원이었다.  
 한 처녀가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처음 보는 처

너였다. 랑볼로 흘러내린 머리칼로 하여 얼굴은 무척 좁아보였다. 처녀의 눈은 끝없는 깊이를 가진 호수처럼 안겨왔다. 이상스럽게도 나는 그 눈속에 들어가보았던 듯한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눈속의 비밀을 죄다 알고있는듯했다.

그 눈이 나의 얼굴로 가까와왔다.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 처녀의 온몸이 두눈만으로 이루어진듯하였다. 그 눈속에서 나는 설레는 황철나무숲의 푸른 우듬지들을 보았다.

《고마와요. 상등병동지...》

나는 그가 무엇을 고맙다고 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입을 열자 짙은 어둠속에 잠겨들고 말았다.

그 어둠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해냈다. 담가에서 수술대로 몇차례나 오르내리며 그 어둠과 싸워야했다. 눈부시게 흰 백포와 위생복들에 둘러싸여 죽음의 고개를 몇차례나 넘었다.

그 고개가 각각으로 높아가고 군의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선고를 입을 때마다 나는 창밖에서 설레는 나무가지들과 푸른 하늘 그리고 지나가는 바람의 속삭이는 소리를 유난히 똑똑하게 느끼곤 했다. 그때는 나무가지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분간해들었다. 마음의 눈과 귀가 한껏 열리는듯했다.

밤이면 차광막잠으로 흘러드는 한조각 달빛에서 별이 찬란한 밤의 우주를 느꼈고 그 무변광대한 우주의 뿔수 없는 한부분이 곧 나자신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곤했다. 그 모든것은 나의 내부에서 숨쉬며 살아왔고 자라난것인듯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내가 없는 미래에도 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할것이었고 아름다와질것이었다.

나는 죽는것이 무서웠다. 아니 무서움이상으로 뻘저리도록 애석했다. 이제껏 품어오고 키워왔던 희망과 미래가 백분의 일이라도 현실로 되었다면! 왜 더 일하지 못했고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는가.

천막피창을 건드리는 어린 떡갈나무잎사귀에서 나는 미래에 우거지게 될 울울창창한 숲의 설레임소리를 들었고 지켜보는 간호원의 눈물고인 눈에서 내가 없는 미래에 살게 될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킨 사랑스러운 조국의 한부분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더많은것을 바치지 못했고 더 열렬히 사랑해주지 못한것이 가슴아웠다. 가장 아름다운것, 생의 대부분을 자기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것이 한스러웠다!...

그 어둠속에서 헤어나왔을 때 나는 야전병원에 온 날 보았던 그 눈동자를 회상했다. 그 사이 한번도 보지 못한것이 이상스러웠다. 나는 주위 사람들속에서 그 눈동자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종시 찾지 못했다.

담담간호원은 이렇게 말했다.

《혹시 동무를 후송해온 동무가 아닐가요? 동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곁에 있었을거예요.》

나의 귀전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는 붉은 하늘을 끊임없이 진동시키던 우뢰소리가 되살아났다. 나팔꽃향기를 느꼈고 가느다란 두그루의 단풍나무를 눈앞에 보았다.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간호원은 천천히 봉대를 감기 시작하였다.

《얼마전에... 전사했어요.》

나는 머리를 돌렸다. 천막문밖으로 푸른 하늘의 한조각이 비쳐들었다. 그리고 불길처럼 빨강게 타는 단풍나무의 별모양 잎사귀가 보였다. 잎사귀에서는 작은 이슬이 불꽃처럼 반짝거렸다. 아침이었다. 나는 이슬방울에 비낀 가을의 아침노을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고맙다고 했을까?》

《동무가 의식을 돌이키게 기뻐서 그랬을거예요.》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침병-! 나는 겨우 몸을 가누었다. 새로 생긴 물도랑에 빠진것이였다.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오늘의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자 심한 의혹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곳에 서있는가. 방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순간 나는 자기를 제 삼자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돌격대원들에게는 보신주의자로 보인 나, 그 처녀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 나, 이것이 바로 나였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기껏해야. 보수주의분자, 소극분자라는 비난으로 그칠뿐이지만 묶음식확대조립이 실패하는 경우에 나를 기다리는것이 파멸이라는 생각이다. 더우기 그것은 내가 발기한것이다. 모든 책임을 누구와 나눌것없이 혼자서 걸머져야 한다. 이것이 두번째도면 앞에서 물러선 나였다. 자기 보존의 울타리속에 움츠려든 인간이였다. 처녀에게는 이러한 내가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무관심하고 뻔뻔해진 내가 별나게 보일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무관심과 뻔뻔이란 참으로 리해할수 없는 피물이였을것이다.

물도랑은 나의 다리를 휘감으며 세차게 흘러갔다. 도랑기슭으로 올라서려던 나는 그우에서 웬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올려다보자 깜짝 놀랐다. 이제는 집에 다 갔을줄 알았던 처녀였기때문이다. 그는 내 뒤를 소리없이 따라온것이였다.

《웬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소?》

《아닙니다.》

《그럼 무얼 잃어버렸소?》

처녀는 머리를 숙이며 비에 젖은 옷자락을 꼬깃꼬깃 비틀어댔다. 물방울이 하나둘 소리내며



떨어졌다.

《그럼 웬일이요?》

《…………》

공연히 따라온것은 아닐것이다. 무엇때문일까?  
내가 걱정스러워서가 아니였을가? 늙고 지쳐버린 기사장… 나는 사품치며 흘러가는 도랑물을 서글프게 내려다보았다. 실상은 자신의 내부를 서글프게 보고있었다.

《걱정되어서 따라왔소?》

처녀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는 잠시후 나를 애원하듯 바라보며 더듬더듬 말했다.

《무서워서… 못가겠어요!》 하고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숲속 어데선가 소란하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황철나무우듬지들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일수도 있다.

바람이 불 때 황철나무숲은 저런 소리를 내는 법이다.

나는 처녀에게 말했다.

《가가요. 나도 그쪽으로 가겠소.》

처녀는 얼굴에서 손을 뗐다. 비에 젖어 흘러내린 머리칼은 얼굴을 무척 좁아보이게 했다. 류달리 커보이는 두눈, 그의 얼굴에는 두눈밖에 없는 듯했다. 심장은 점점 세차게 뛰놀았다. 나의 청춘 시절, 불타던 열정의 시절… 우뢰소리는 점점 가까와오고있었다.

그러자 아득한 지평선너머로 사라졌던 음성이 귀가에서 뜨겁게 속삭였다.

《고마와요. 상등병동지…》

그 말은 내가 의식을 돌이켰다는 기쁨에서만 아니였다. 내가 있음으로 하여 자기가 수습리질을 헤쳐올수 있었다는 뜨거운 감사였다.

자기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발자국을 걸을 용기조차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것을 위해서라면 두려움을 잊는 뜨거운 심장…바로 두번째도면에 수표하기에 부족했던것은 이것이 아니였을가, 그렇다. 부족한것은 도면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다.

《아이 기사장동지! 물에 빠졌구만요.》

하고 처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등에는 눈물방울이 떨어져 구슬처럼 달빛에 반짝거렸다. 비에 젖어 흘러내린 머리칼로 하여 좁아진 얼굴에 가득찬듯한 류달리 큰 두눈, 가슴아플 정도로 낮익은 눈이었다. 또다시 우뢰소리… 나는 그와 함께 걸으며 조여드는 가슴으로 물었다.

《집에 누가 있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년세는 어떻게 됐소?》

《마흔아홉입니다.》

가슴은 더 아프게 조여들었다. 그 간호원역시

살아있다면 이만한 나이였으리라. 나는 그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다. 만일 보았다라면 우뢰우는 밤이 그토록 안정할수 없는 밤으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 어데서 일하오?》

처녀는 멈칫했다.

《아까 만나보시지 않았어요? 뽕프장에서》

《아-그렇지!》

뽕프장에서 만났던 녀인, 처음 보는 평범한 중년의 녀인이였었다.

나는 묵묵히 걸었다. 나 역시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던듯했다. 그러나 래일이라도 이런 처녀를 만난다면 나는 또 물을것이다. 그리고 믿으려할것이다.

2층창문의 불빛이 우리의 발에 밟혔다.

《다 왔구만! 어서 들어가보오.》

《기사장동진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현장으로 가야겠소.》

《아니?! 이제 또요?》

《…………》

나는 처녀에게 두번째도면에 수표하기 위하여 간다는것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기만 하면 처녀는 환성을 지르며 아마도 눈물이 글썽하여 30년전의 그날에 내가 들었던 그 말을 할것이다. 나는 잘 안다.

허나 이번에는 내가 말할 차례이다. 나는 이 처녀와 돌격대원들 그리고 건설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높이 말하고싶었다.

《고맙소. 동무들!》 하고…

30여년전 가냘픈 어깨에 실려 삶으로 돌아온 내가 오늘은 저 사람들의 손길에 이끌려 80년대의 부름에 응할수 있었다. 허나… 아니다. 그것은 아직 나의 말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의무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그들을 이끌고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었을 때에야 나는 말할수 있다. 조용하게 자기의 심장과 이야기하듯이 《고맙소. 동무들》 하고…

우뢰소리가 또 울렸다. 이미 지척에서였다. 그러자 긴 기적소리가 울렸고 렬차의 차창들이 등성이 아래로 언뜻언뜻 지나갔다. 아까부터 들려온것은 우뢰소리가 아니라 차바퀴굴음소리였던것이다. 그 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뒤따라 건설장소음이 또 우뢰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날밤 나에게서 모든 소리들이 멀고 가까운 우뢰소리처럼 들렸다. 건설장의 상공에서는 용접불빛이 번개섬광처럼 번쩍거리고있었다. …

우뢰울고 번개치는 밤 그런 밤이면 나는 잠들지못하며 안정하지 못한다. 불타던 그 시절과 오늘 80년대를 이어보며 창가를 거닐거나 건설장의 구내길을 끝없이 걷군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을것이다. 그것은 그 시절에로 나를 부르는 소리이다.

##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박세영

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기념일을 맞으며 당의 문예전선에서 평범한 한 시인으로 오래동안 일해오면서 겪은 수많은 추억들을 회고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늘 가슴속에서 잊은적 없는 사연이 하나있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대한 생각이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 노래는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들의 긍지를 한없이 돋구어주고있다.

이 노래는 이 순간순간에도 지구를 수없이 돌고 돌며 울려 퍼져갈것이다. 5 대양 6 대주로 자주와 존엄과 행복으로 일로매진하는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이 이 시각에도 주체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를것이라고 생각하니 흥분을 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는 아무때나 나올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혁명하는 인민이 진정한 자기의 수령을 높이 모셨을 때만이 나올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20 여성상에 걸치는 준엄한 항일혈전으로 해방의 봄을 안으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였을 때 우리 인민은 평양을 위시한 전국각지에서 눈시울 뜨겁게 열광적으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불렀다.

남반부전역에서도 북으로 평양을 향하여 심장의 환영을 올렸다.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노래가 나온 뒤 환경부터 흥분되고 격동적인 역사적대 전환기였다.

1946년 4월 19일 저녁, 함흥호텔에서 김일성장군환영연회가 열리였을 때 이 연회에 참석했던 시인 리찬은 오매에도 그림던 김일성장군님을 처음 뵈옵는 감격으로 하여 즉흥시를 류창하게 읊었다.

.....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의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틀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한다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 비쳐야 할  
아, 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시랑송이 끝났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폭풍같은 만세소리로 연회가 끝났을 때 참가자들은 시인-리찬을 둘러쌌고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충성의 혁명송가를 창작할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결국 시인 리찬은 인민적요청에 고무되어 불멸의 혁명송가 창작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게 되었다.

그후 김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좋은 혁명송가가 속히 나오게 하기 위하여 푸른 표지를 씌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부르던 혁명가요 100 곡집을 리찬에게 보여주면서 참고하라고 하였으며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할데 대하여 고무해주었던것이다.

1946년 4월 하순 《북조선문화련맹》이 결성되자 리찬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에 의하여 이 조직의 서기장사업을 하게 되었었다.

이때는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구상하여 창작하기 시작하던 때였으나 김책동지는 가끔 시인 리찬을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이야기해주며 걸린 고리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하루는 리찬이 열정적으로 창작중에 있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초고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보여주는 초고를 보고도 감탄해마지 않았다. 가사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안반침되어있었다.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시인 리찬이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그대로의 충성심의 높이라는것을 나는 느끼었다.

시인 리찬이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결작으로 창작하여 인민들의 열광적인 념원에  
그처럼 훌륭하게 대답을 주게 된데는 그로서의  
남다른 감흥이 있었다.

무엇보다먼저 우리는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화같은 마  
음이 그대로 옮겨져 불멸의 송가로 되었다는데  
방점을 두고 말할수 있다. 그와 아울러 시인 리  
찬 자신이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위업  
을 깊이 체험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  
다.

시인 리찬은 일찌기 1936년 9월 대덕수와 소  
덕수에서 장백지구 왜놈들에게 첫 타격을 안겨준  
조선인민혁명군을 목격하였다. 그해 11월에는  
곰의골어귀에서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주어 적들  
을 당황망조케 하는것도 목격하였다.

그리하여 리찬은 그해 겨울에는 《결빙기》라는  
시를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의 소원을 다소나마  
풀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것이였다. 오로지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는 불멸의 송가를 지어올  
리는것이 최대의 념원으로 되었다.

우리들이 시인 리찬에게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물으면 그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주었다.

《...내가 삼수, 혜산에 있을 때에 그곳 사람들  
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야밤에 자주 주막집에 모  
여앉아 화토불을 쪼이면서 이야기판을 벌려놓곤  
하였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불  
을 피우고 집안에서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지만 지  
금 저 강건너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군사  
를 거느리시고 내 나라를 찾으시려고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싸우고계시오.

이 압록강기슭에는 그들이 흘린 피가 스며있소.  
> 하면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  
로 꽃을 피우며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고있었소.

나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시로 읊고싶었소.  
그러나 일제시기에는 내놓고 말할수 없어서 압  
록강 국경연안에 대한 시를 썼소.

해방후 1946년 4월 19일 비로소 오매에도 그  
립던 **김일성**장군님을 함흥호텔에서 처음으로 몸  
가까이 모시고 즉흥시 <**김일성**장군 찬가>를 격조  
높이 읊었소.

그해 7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썼소. 노래  
는 내가 썼다기보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인민들  
의 폭풍같은 념원을 그대로 읊은거라고 해야 옳

을것이고 그것은 썼다기보다 장백산 즐기즐기 압  
록강 굽이굽이에 찍혀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피어린 자옥자옥이 그대로 노래로 옮겨진것이라  
고 해야 옳을것ियो...》

리찬은 지금 우리의 곁을 떠났어도 그가 하던  
말은 나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사실 그랬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이것은 어느 한 시인이 쓴것이 아니였다. 3천  
만겨레가 심장으로 쓴것이며 반만년 유구한 력사  
가 환희와 걱정애 넘쳐 기록한것이였다.

장백산 즐기즐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간고한 혁명의 언덕  
을 넘고넘어 오늘에도 달려왔다. 포화의 불비속  
을 이 노래를 부르며 헤쳤고 어려운 복구의 나날  
도, 공업화의 높은 령마루도 이 노래를 부르며  
넘어왔다.

실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 인민의 혁  
명의 진군길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충성의  
노래,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였다.

지금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는 우리의 심장을 걱정의 우뢰마냥 광광 울리며  
충성의 한길로 불러주고있다.

뿐만이 아니다. 그 장중한 선율은 대양과 대륙  
을 넘어 온 세상에 울려가고 있으며 혁명하는 인  
민들의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로 높이 불리우  
고있다.

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  
래》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감격과 더불어 당의  
문예전사의 긍지를 더 높이 느끼며 오늘의 영광  
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다함없  
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 단호한 징벌을 안기리라!

김석

화약처럼 다져진 마음을 안고 나는 지금 조국 보위초소에 서있다.

낮이나 밤이나 눈비를 맞으며 오고간 초소길은 그 얼마이던가.

은 조국땅에 울려퍼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들으며 나의 가슴은 미제와 그 주구 전두환피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적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2월 1일부터 4일중순까지의 기간중전시상태에 들어갈데 대한 명령 제 001호를 하달하였다.

명령을 받아안은 내 심장속에서는 피가 아니라 복수의 불물이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제아무리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가지고 발악한다 하여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기개는 꺾지 못할것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진장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지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반드시 알게 될것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이 시각 내가 지켜선 초소뒤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피난 행복의 거리와 마을들이 펼쳐져있고 흰김이 피어오르는 강철지구에선 쇠물 폭포가 축복의 꽃보라로 훔날린다.

어디 가나 글있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되어 강산에 울려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인가!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볼수 없고 소홀히 할수 없는 목숨보다 귀중한 이 땅의 모든것을 나는 지켜서있는것이다.

지금도 분노의 총창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는 나의 눈앞에는 원한의 분계선 철조망너머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조작을 촉진하는 하나의 고리로서 《팀 스피리트83》이라는 사상최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남조선 전역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제의 그 피뢰들의 가증스러운 몰골이 보여온다.

미제침략자들과 전두환피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하에 살인장비들을 끌어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들췌우고 있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준 불타는 맹세를 안고사는 나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피의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 서리고 영킨 원한이 간직되어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어느 한 감방취조실에서 있던 일이다.

《빨갱이명단을 내놓으라!》

《공장기계부속을 내놓으라!》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어느 한 공장의 당위원장이었던 나의 아버지를 고문하던 미제침략자놈들은 이제 더는 굳게 닫힌 입을 열수 없음을 알았는지 책상우에 도마도와 사과를 놓고 나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느것이 속까지 빨강느냐고 방안에 땀도는 담배연기속으로 어머니의 속심을 놈들이 떠보는데 어머니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도마도라고 순간 《이년은 속까지 빨갱이이야!》라고 미쳐날뛰면서 무푸리 룽모방망이로 사정없이 가슴과 허리를 비롯하여 아무데나 닥치는대로 내리쳤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은채 쓰러지고야말았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은 원썬놈들은 나를 책상우에 올려놓고 그 징그러운 손으로 빨갱이는 씨종자까지 없애야 한다고 지껄이면서 연약한 나의 두다리를 좌우로 비틀기 시작하였다.

나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며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피물을 떨구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들의 애처로운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웨쳤다.

《애야, 울지 말고 원쑤를 똑똑히 보아라!》

검은 구름 몰려오는 남녘의 하늘을 쳐다보는  
나의 귀전에는 아직도 원한 맺힌 그날의 어머니  
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씨를 뿌리고 행  
복의 열매를 가꾸어 소방울소리 울리며 곡식을  
거두어들이던 탈곡장마당에서 달려드는 원쑤놈들  
과 맞서 싸우면서 《위대한 **김일성**장군 만세!》,  
《인민군대여러분! 이 원쑤를 꼭 갚아주소!》라  
고 절절한 념원을 남긴채 쓰러진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이의 피맺힌 웨침이 들려온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듯 아파나고 분노의  
불꽃이 용암처럼 이글이글 끓어번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그 어떤 원쑤도 때려눕힐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만약 침략자들이 오만무례하게 덤벼든다면 우  
리는 강철을 녹이듯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단 한  
놈의 원쑤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할것이다.

그렇다.

단호한 징벌 - 이는 우리 인민의 자위적조치이  
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2월 1일부 명령 제00  
1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체 부대들, 조선인민경비대, 로  
농적위대,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과 전체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도 제때에 짓부셔  
버릴수 있는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자기의 초소를 철옹성같

이 지킬것이며 적들이 끝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  
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즉시 맞받아나가 단  
호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일단 미제  
침략자들이 무모한 불장난을 일으켜 사랑하는 조  
국강토우에 또다시 참화를 들뜨운다면 정의의 총  
검을 비껴들고 맞받아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있  
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전두환피뢰도당은 이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  
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  
같이 통일단결 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  
며 그 어떤 침략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

우리에게는 일제의 백만대군을 꺼꾸러뜨린 빛  
나는 혁명전통이 있으며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  
에 몰아넣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변천된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과대망상증에 걸려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나의 심장  
속엔 원쑤 미제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사랑하는 조국을 피로써 사수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나와 우리 인  
민모두의 혁명적기개이며 침략의 검은 구름을 몰  
아오고있는 미제에게 안겨주는 하나의 대답이다!

## 가사

# 향도와 해발따라 통일의 한길 가네

오상홍

동해의 파도너머 밝은 해빛 넘쳐오네  
향도의 그 해발 가슴마다 안고사네  
행복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긴 우리  
풍랑인들 두려우랴 통일의 한길을 가네

조국의 락원에서 노래소리 울려오네

그 노래 펼치며 우리모두 나아가네  
살아도 죽어도 오로지 한마음  
향도의 해발따라 통일의 한길을 가네

아 당중앙 해발을 따라서  
칠십만 우리 동포 통일의 한길을 가네

## 충성으로 불라는 심장들

-삼신탄광을 찾아서-

리석

넓은 젖빛안개가 서서히 사라지자 솟아오르는 아침해발에 매봉의 들쭉날쭉한 자태가 드러났다.

안개가 덮였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더니 안개가 대동강쪽으로 서서히 걷히자 눈앞에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밤을 새운 굴착기들이 용을 쓰며 거인같은 팔을 쉼 없이 휘젓는다.

바가지마다 첩첩 넘쳐나게 석탄을 담아가지고 다투는 굴착기들의 동음에 화답하듯 대형화물 자동차들이 안개가 감도는 매봉허리를 에돌아 저 탄장으로, 박토장으로 기운차게 달린다.

매봉마루에 올라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전투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벅차오른다.

마치 온 로천강이 그대로 살아서 석탄산이 통채로 움썽움썽 움직이는것만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중요한 원료이며 연료이다.

석탄이 없이는 제강소와 제철소는 물론 모든 공장들을 움직일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올해에도 우리 탄부들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있다.

우리가 들끓는 전투장의 모습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있음을 알아차렸던지 어느새 이 탄광지배인 리중순동무가 곁에 와서 자랑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80년대속도>창조에 펼쳐나선 우리 탄광 탄부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려면 여기 매봉로천강에 와보면 한순간에 다 알수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심장에 받아안은 탄부들이 굴착기와 자동차의 보수정비를 잘하여 그 가동률을 높인 결과 박토를 선행시킴으로써 일별, 주별, 월별 계획을 넘쳐

끝내고있는 사실들을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해 첫달에 들어와서 일기 조건이 그 어느해보다도 나쁘다고 한다.

눈비가 내려 매봉허리를 가로질러간 자동차길이 더 미끄럽게 되었고 내리는 비에 사태가 무시로 쏟아져내려 뜻밖의 정황이 조성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불라는 충성심을 간직한 탄부들은 일기조건이 나쁘지만 전진속도를 순간도 멈출수 없다고 하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헤쳐나갔다.

2호굴착기 책임운전공 김춘범. 리영립동무들은 어떠한 정황이 맞다든다 해도 거기에 대처할수 있게끔 예비부속품과 공구준비를 잘하여 굴착기의 가동시간을 1,2배로 늘임으로써 지난 1.4분기만도 매달 2만립방메터의 박토를 밀어제끼었던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지난 1월말에는 김순희, 허도빈동무들 앞에 7호굴착기를 새로운 막장으로 5일동안에 옮길데 대한 전투과업이 떨어졌었다.

이 굴착기를 계획된 시간안에 옮기는가 옮기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탄광적인 첫달계획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달려있었다.

그런데 굴착기를 옮기기 시작하여 3일째되던 날, 진창길을 한치한치 뚫어나가던 굴착기가 그만 덜컥 엎어버렸다.

어떻게 할것인가. 온 탄광의 눈길이 거기에 쏠려있었던것이다. 전투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순간 김순희, 허도빈동무들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다진 맹세를 어길수 없다.》고 하면서 벗겨지는 무한궤도의 사슬을 통나무로 의지해 떠받들고 24시간동안의 긴장한 전투를 벌인 결과 끝내 계획대로 5일동안에 1분 1초도 어김없이 굴착기를 다른 막장으로 옮겨놓을수가 있었던것이다.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어느새 7호굴착기가 작업하는 막장에 다달았다.

《바로 저 동무가 자동차정비를 잘하여가지고 한교대에서 20톤을 띄워 석탄운반에서 최고기록

을 돌파한 2820 호운전사 박금과동무랍니다.》 하고 지배인은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그는 벌써 기름진 석탄을 듬뿍 싣고 정적을 울리며 썩 지나갔다.

그 뒤로 2821 호, 2892 호, 2890 호 운전사들이 따라섰다.

지배인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모두 월 1,000 탕목표를 내걸고 뛰고있는 혁신자들과고 한다.

바로 이때였다. 그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지배인에게 무슨 말인가 하였다.

매봉갱장 박합섭동무라고 하였다.

지배인은 갱장동무를 우리에게 인사시키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이 동무들이 오늘 <노다지>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가보자고 하누만요.》 하고는 의향을 물었다.

우리는 갱장동무를 따라 8 호굴착기가 작업하고 있는 막장으로 갔다.

굴착기가 선 앞에는 탄발이 쪽 펼쳐져있었다.

마치 온 탄벽이 미장한것처럼 기름기 돌았다.

우리는 너무나 희한하여 《이게 전부 석탄이 웁진 웁은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탄부들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탄이라고 하였다.

《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환성이 우리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는 언제 달려갔는지 두손에 석탄을 담뽕 쥐고는 눈여겨 살펴보기도 하였다.

《아니? 저 손을?》

《예!!》 우리는 하얀 맨 손이었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석탄을 그만 덩석 쥐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이러는 모양을 보면서 탄부들은 그저 즐겁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정말 기름진 탄발이었다. 쥐어짜기만 하면 기름이 툭툭 떨어질것만 같았다.

볼수록 흐뭇하였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고있으면 다른 갱들은 언제 보렵니까?》 하는 지배인동무의 재촉에 우리는 할수 없이 8 월 11 일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갱에 도착하자 얼마전 어느 한 신문에 영예의 혁신자들과 함께 사진이 났던 일이 있는 분초급당비서 장한섭동무가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온 목적을 알아 탄부들의 투쟁모습을 보려거든 자기 말을 듣는것보다 아예 갱막장으로 들어가보는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안전모와 작업복을 가져왔다.

우리 역시 찬성이었다.

이윽고 입갱준비를 다 갖춘 우리는 인차에 올

랐다.

우리가 도착한 갱막장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받은 굴진중대였다.

《이 동무들이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새로운 적재기를 도입하여 지난 시기 6 명이 하던 버력상차작업을 기계로 하고있는 류원립굴진소대입니다. 탄광적으로 기술혁신에서 소문난 중대이지요.》 하고 장한섭동무는 소대장 류원립동무를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그러자 소대장은 새해에 들어와서 지체발파기를 비롯하여 4 건의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갱내작업을 험하게 하면서도 능률을 높이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고속도굴진에서 앞장선 굴진공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우리 굴진공들의 모습을 보자면 웅당 5 형제 굴진공들부터 만나보아야지요.》 하면서 소대장은 씩 웃는 것이었다.

《5 형제가 굴진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채차 물자 분초급당비서 장한섭동무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올해 설날아침, 시내 건설기업소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만형 김춘식만을 내놓고 나머지 4 형제가 둘째인 김춘일네 집에 모여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시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올해에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여주시는 순간 4 형제의 심장은 한없는 흥분으로 높뛰었다.

그때 둘째인 김춘일이가 자기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올해에 석탄생산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탄부들을 또다시 부르시었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배려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있는 우리 탄부들이 올해에 어떠한 자세와 립장으로 일해야 하겠니.

우리 몸이 그대로 동발이 되어서라도 더 많은 석탄을 캐여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자! 그래서 나는 우리 4 형제가 한 개 초소를 말자는 생각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게니?》

그러자 동생들도 한결같이 찬성하여나섰다.

이것이 바로 탄광에서 40 년간 채탄공으로 일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의견은 곧 당조직과 집단의 지지를 받았고 당조직에서는 시내건설기업소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만형 김춘식이까지 소환하여 그들의 소원대로 5 형제굴진초소를 무어주었던 것이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이들은 누가 보건말건 개인소공구와 막장장비를 잘 갖추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달동안에 단마구리에서 110 메터의 굴진속도를 보장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는 굴진막장으로 갔다.

마침 5 형제굴진공들은 한 발파를 끝내고 또다시 착암기를 암벽에 들이대고있던 참이었다.

이미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터이라 우리는 소개인사를 할 사이도 없이 손을 힘있게 잡고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참으로 믿음직한 모습들이었다.(아버지가 썼던 초소에 오늘은 5 형제가 썼다!)

불수록 림림하고 부러운 석탄전선의 주인공들이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에서 부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초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천년암반을 떠받들고 곳곳이 선 저 동발처럼 묵묵히 바쳐가는 5 형제굴진공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시대의 화폭인가!

바로 이들이 《80 년대속도》창조에 떨쳐나선 우리 시대 탄부들의 미더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 이런 충성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우리의 석탄공업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1 억 2 000 만톤고지의 상상봉을 향하여 힘차게 줄담을 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지였다.

여기서는 진정 석탄이 땅속에서가 아니라 충성으로 불타는 탄부들의 뜨거운 심장속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이다.

우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채 갱박을 나섰다.